

알기 쉬운

선지서 개요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정 병 은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31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314, KOREA

16 MEN WITH A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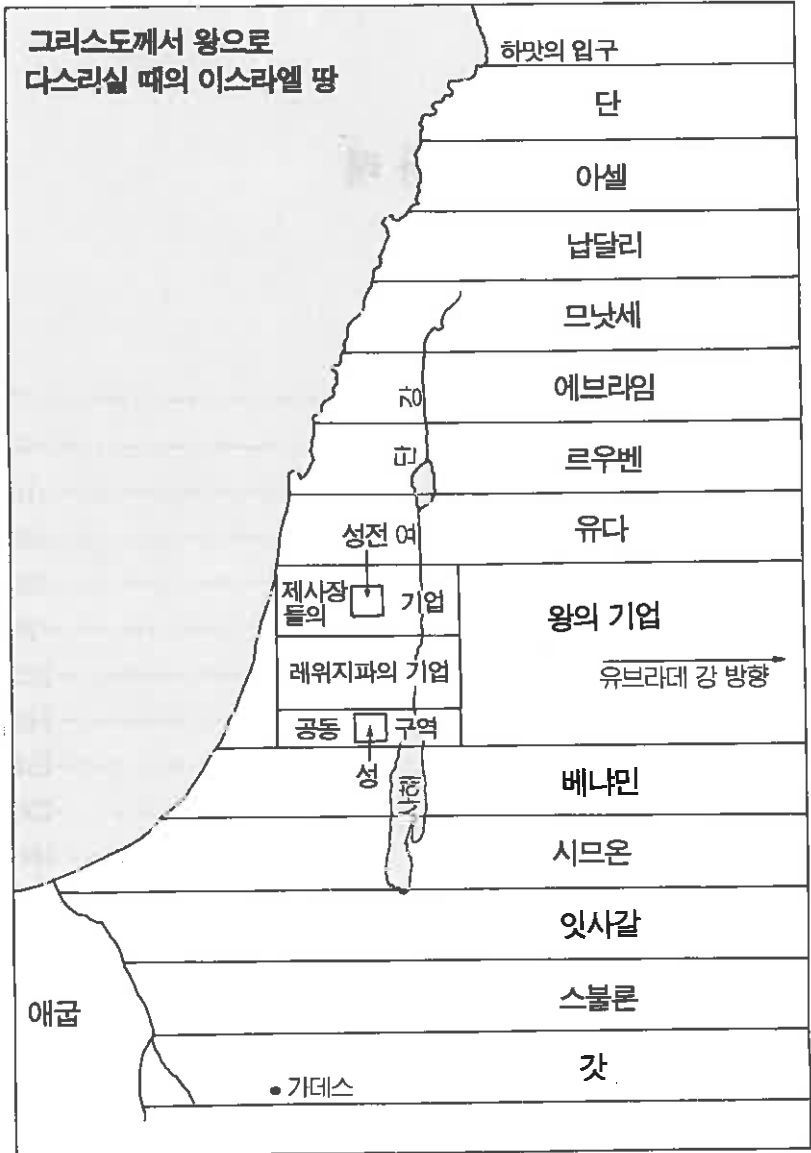
THE OLD TESTAMENT PROPHETS

by
William MacDonald

EVERYDAY PUBLICATIONS INC.
230 Glenmount Avenue Toronto,
Canada M4C 3T4

차례

머리글	7
서론	9
이사야	18
예레미야	55
예레미야 애가	88
에스겔	93
다니엘	129
호세아	143
요엘	154
아모스	158
오바다	166
요나	169
미가	174
나훔	183
하박국	188
스바냐	193
학개	198
스가랴	201
말라기	222
해답	228



에스겔 45~48장 참조

머리말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16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서는 성경의 이 중요한 부분(선지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미국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준 많은 책과 교재를 펴냈는데 구약 선지서에 대한 본 강해서는 맥도날드 형제님이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강의안으로 준비한 것을 W. A. 무닝스(W. A. Munnings) 형제님이 현대 영어로 다시 쓴 것입니다.

매일 한 장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면 여덟 달이면 16권의 선지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짧은 장 두 장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두 장을 읽을 곳은 이사야 11,12장; 17,18장; 20,21장; 46,47장과 예레미야 19,20장; 39,40장; 45,46장과 에스겔 9,10장; 14,15장입니다.)

8 · 선지서 개요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나와있는 선지자와 열왕에 대한 서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진 16 사 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뭔가 얘기해줄 것입니다.

첫날에는 이사야 1장을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위대한 책에 대해 읽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1장의 개요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정확한지 알고 싶으면 책 뒤에 나오는 답안을 찾아보십시오.

이 공부는 8개월에 16권의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를 상고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달에 임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론

“**선**지서”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에 이르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은 단지 그 책들이 다른 책보다 두꺼운 까닭에 **대선지서**로 불리우고 나머지 책들은 **소선지서**로 불리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그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고했다.

선지자의 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실패했을 때 사무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선지자들은 구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사역을 계속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때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지던 때를 포함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구약 선지자들은 성경을 집필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불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 후에 몇몇 선지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들의 가르침의 일부를 기록했다. 이들 “집필”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와 느헤미

야에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두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등의 표현들을 사용했다(렘 1:9; 겔 2:7 참조).

또한 선지자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종 여하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들 자신의 멧세지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28; 8:15,16,26,27; 10:7~15을 읽어보라. 사도 요한조차도 그가 받은 모든 이상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계 7:13,14; 17:6). 구약의 기자들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예언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더욱더 어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큰 영광을 얻으실 것을 둘 다 예언했다(벧전 1:10~13). 그들은 어떻게 그 메시아가 여호와와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시고 또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두번의 상이한 때에 오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 먼저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셨으며 후에 그분은 감람산 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 두 사건 사이에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이 가르친 주요 교훈은 무엇이었나?

1.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2.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실패하여 죄에 빠졌다.
3.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4.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5.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6.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7. 메시아가 오셔서 거절당하실 것이다.
8. 메시아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9.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10.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해 두라. 우리는 선지서에서 교회에 대해 배울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것은 교회의 진리는 신비, 즉 하나님께서 지난 시대 동안 감추어두신 비밀이라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엡 3:4~6).

구약성경의 많은 난해한 구절들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만일 당신이 이 원칙, 즉 “어떤 구절들은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거나 기록한 “직후”에 성취되었으며, 그가 예언한 일이나 적어도 그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그 선지자 시대 오랜 후에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그 예언 중 많은 부분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요엘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했다(욘 2:28~32). 이 약속은 오순절 날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데 그 때에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중 극소수만 성령을 받았을뿐이다(행 2:16~21).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요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다른 몇가지 사항들을 소개하겠다.

1.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보통 북왕국 열지파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온 백성, 곧 야곱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2. 반면에 “유다”는 거의 예외없이 남왕국, 즉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리킨다.

3. “에브라임”은 특히 호세아서에서, 열 지파 혹은 북왕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있다. “요셉의 집”도 북왕국을 가리킨다.
4.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으며 선지자들에 의해 종종 언급되었다.
5.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였다.
6. “바벨론” 성은 바벨론 나라의 수도였다.
7.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부의 작은 나라인 수리아의 수도였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증오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고하였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이나 동산, 혹은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은 또한 부정하고 불의한 일체의 것들을 증오하신다. 선지자들은 모든 송사를 공정하게 다룰 것과 가난한 자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죄 가운데 있었으나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어 여호와를 좇아 섬겼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잔존자”(남은 자)로 불리운다. 전체 백성 중 적은 부분만이 바벨론을 떠나 그들의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곧 잔존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은 말일에 여호와를 믿게 될 이스라엘의 잔존자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사 10:22,23).

아래 도표의 16명의 선지자들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로 불리운다. 그 중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 이전에 살았으며 일부는 포로기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며 나머지 일부는 바벨론을 떠나도록 허용이 되자 잔존자와 함께 그들의 나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악된 습성을 고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했다.

선지자들은 언제 살았는가?		
포로 이전	포로 기간	포로 이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나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대부분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했으나 네 명은 특히 이스라엘에게, 두 명은 이방 열국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했는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열국에게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나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훔 오바다

이들 중 일부는 둘 이상의 대상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이기도 했으며, 미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예언을 했고 나훔은 니느웨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증거했고(1:15) 그리고 하박국은 이방 열국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북방 열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에게서 분리해 나갔다. 그 후로 수리아(아람) 백성이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었다.

그 때 앗수르가 매우 강성해져서 서서히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1. 예후 왕이 B.C. 842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공세를 바쳤다.
2. 므나헴 왕이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공세를 바쳤는데도 디글랏 빌레셀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했다.
3. 베가가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때 디글랏 빌레셀이 납달리 지파의 성읍들을 쳐서 백성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왕하 15:29). 그는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고 B.C. 740년에 르우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그의 나라로 사로잡아 갔다(대상 5:26). 아마 그가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인 자들을 도와 그 대신 호세아를 왕위에 앉혔을 것이다.
4. 호세아는 앗수르 왕 살만에셀을 섬겼으며 처음에는 그에게 공세를 바쳤다. 그런 후에 그는 앗수르에 대한 반역을 시도했다. 즉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 왕에게 예물을 보내며 애굽과 결탁을 도모했다(왕하 17:3,4).
5. 살만에셀이 군대를 보내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며 B.C. 722년 사르곤이 왕위에 오르던 해 드디어 앗수르 군이 그 성을

공략했다. 앓수르 군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왕하 17:5,6) 남은 백성에게 과중한 공세를 바치도록 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842년 전에 이방 왕에게 공세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부분 기간 동안 외국의 압제 하에 있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했으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다.

유다(남방 지파들)

앗수르는 북부의 열 지파를 정복한 다음 유다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유다 백성은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앓수르 군이 쳐들어와 그들과 싸울 것이며 자신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히스기야 왕 때 앓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 쳐들어왔으나 그의 군대는 멸절당하고 말았다(왕하 19:35).

그 때 바벨론 국가가 매우 강성해져 유다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 경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으나 그는 애굽 왕에게 복종해야 했다.
2. 바벨론이 애굽과 그리고 앓수르를 정복했으며 B.C. 606년 유다도 손아귀에 넣었다.
3.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4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B.C. 606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는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하고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 여호야김도 이 포로 중 하나였고 선지자 다니엘도 그 중 하나였다(왕하 24:1~6; 대하 36:5~8; 단 1:1~6).
4. 9년 후인 B.C. 597년에 느브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여고냐혹

은 고니야로도 불림)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왕하 24:10~16). 선지자 에스겔이 이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5. 또 11년이 지난 후인 B.C. 586년에 느브갓네살이 다시 침공했다. 그는 이번에는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대부분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며 본토에는 허약한 자들만 남았다(왕하 25:2~21).
6. 본토에 남은 백성들은 그달라라는 이름의 총독의 지배를 받았다. 예레미야는 이들 본토에 남은 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달라가 살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왕하 25:22~26).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었다.

바벨론 민족은 B.C. 538년까지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다. 그런 연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는데 그는 유대인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다. B.C. 537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고 B.C. 458년에 더 많은 백성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다.

바사인과 메데인은 우방관계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B.C. 538년에서 536년까지 왕위에 있었다.

메데인과 바사인은 B.C. 333년까지 그 일대를 다스렸으며 그 후에 헬라인이 세력을 장악했는데 그들의 왕은 알렉산더 대제였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렘 25:11; 단 9:2). 이 7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1. 여호야킨이 바벨론에 잡혀간 B.C. 606년에서 유대인의 본토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왕의 조서가 내려진 B.C. 536년까지.
2.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B.C. 590년에서 유대인이 성전재건을 시작한 B.C. 520년까지.

3.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B.C. 586년에서 유대인이 성전건축을 마친 B.C. 526년까지.

왕과 선지자의 활동시기			
이스라엘 왕	선지자	유다 왕	선지자
여로보암	요나 호세아 1:1 아모스 1:1	요아스, 아마샤 웃시아	요엘 이사야 1:1
베가 호세아	미가 1:1 미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낏세 요시아	이사야 이사야 예레미야1:1 하박국 스바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첫번째 선지서를 기록했다. 이사야는 “구원이 여호와께로서 오다”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사실을 전해준다.

이사야는 웃시야, 요담, 아하스 및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다.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먼저 활동했고 미가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성령께서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난 일 중 많은 중요사항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세 명의 기자가 이사야서로 불리는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1~39장과 40~66장의 기자가 다르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1~39장, 40~55장, 56~66장의 기자가 각각 다르다고 말한다.

신약성경은 그러한 생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 예수님은 이사야 6:9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다(마 13:14). 또한 이사야 29:13을 인용하시고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7~9). 그리고 이사야 42:1을 다시 인용하시고 그 기자가 이사야라고 밝히셨다.

이사야서는 1~39장과 40~66장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성

경은 신약 39권, 구약 27권의 66권으로 이뤄져 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메시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인가를 말해주는 데 이에 대해서는 신약의 27권이 많은 사실을 말해준다.

이사야의 멧세지의 대부분은 유다에 대한 것이나 그는 유다 주변에 거하는 이방 열국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예언했다. 또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이 언젠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예언했다.

개요

1.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12장)
2.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3~24장)
3.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와의 축복 약속(25~27장) - 찬양의 장이라 불리운다
4. 이방 열국을 의리하는 어리석음(28~35장) - 화의 장이라 불리운다
5. 히스기야 왕의 역사(36~39장)
6.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상숭배 금령(40~48장)
7.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할 이스라엘의 운명(49~53장)
8. 회개의 촉구와 회복에의 약속(54~59장)
9.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축복(60~66장)

1장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판장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으로 나오라고 촉구하셨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에 대해 범죄했다고 선언하셨다(1~4절). 그래서 그들을 징벌했으나 여전히 그 민족이 자기에 대해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이어서 그분은 말씀하셨다(5~9절). 그들은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분의 명령

을 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으셨다(10~15절). 그분은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촉구하신(16~20절) 다음 그들이 전에는 자기를 의뢰했으나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21~23절).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와 함께 그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24~31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한 그들의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죄인이 자신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장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의 그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다(1~5절).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술객을 찾아가고 그들의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라고 요구하셨다(6~8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10~22절). 그분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시고(11~17절), 모든 우상을 없애실 것이다(18절). 악한 자들은 굴혈과 토굴에 숨고(19절) 그들의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다(20,21절).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 모든 인생은 죽을 것이나 여호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시 18:46).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3장

하나님께서서는 무서운 기근의 때가 있을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폐하실 것이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경고하셨다(1~8절). 9절에서 이사야는 여덟번의 “화가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시작했는데 그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 두 “화가 있을진저”는 본장에 나오고 나머지는 5장에 나온다.

1. 공공연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9절).
2. 모든 악인에게 “화가 있을진저”(11절).

유다의 통치자들은 가련했다(12~15절). 여인들은 교만하였고 남자들의 눈을 끄는 옷을 입고 간교한 모습으로 다녔다(16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아름다운 옷과 장식을 취해 가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17~24절).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25,26절).

“이 3장에는 몇가지 “화” 혹은 “환란”이 기록되어 있는가?”

4 장

여호와와 날에는 대부분의 남자들, 곧 일곱 중에 여섯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1절). 또한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취할 것이며(2절)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3,4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다(5,6절).

5 장

유다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았다(1~7절).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 나라를 심으셨다. 그분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으나 그것은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이 때 이사야는 나머지 여섯번의 “화가 있을진저”를 선포했다(3:9~11 참조).

3. 땅을 소유하고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8~10절).
4.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11,12절).
5.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18,19절).
6. 선과 악이 아무 차이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20절).
7.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21절).
8. 술에 취하고, 그리고 뇌물로 인해 악인을 놓아주는 판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22,23절).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다(24,25절). 그들은 멀리 떨어진 이방 민족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올 것이다(26~30절).

“판관들은 왜 악인을 놓아주었는가?”

6장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았다(1~4절). 그 때 그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했다(5절). 천사 중 하나가 뜨거운 숯으로 그의 입술을 깨끗케 했다(6,7절).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이에 그분은 그를 그의 백성에게 전파하도록 보내셨다(8,9절). 하나님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대신 자신이 유다 나라를 분명히 심판할 것과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둘 것을 말씀하셨다(10~13절). 선지자가 여호와께 그 심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매우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 마음과 입술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나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는가?”

7장

성령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앗수르인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서 그를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격려했다(1~9절).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자신이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허락하였다.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이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기 전에 죽을 것이다. 이 징조는 수년 후에 실현되었으나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미래의 때를 바라보고 계셨다(마 1:23).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애굽과 앗수르 군대를 부를 것이며 그들이 그 땅과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유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17~25절).

“하나님은 14절의 약속을 언제 이루셨는가?”

8장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불렀는데 그 뜻은 “노략이 신속함”이다. 그는 이 이름을, 앗수르가 속히 와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할 것을 예언하는데 사용했다(1~4절). 앗수르 군대는 유다도 치러 올라올 것이다(5~8절). 유다의 대적들이 한테 모일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9,10절).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다른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11~18절).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악한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

지 말아야 한다(19~22절).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술사들이 있으며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믿도록 애를 쓴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을 믿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20절.

“이사야와 그의 자녀는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었다(18절). 마헬 살랄하스바스는 어떤 징조였는가?”

9 장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무도 그들에게 종살이를 강요하거나 더불어 전쟁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멧세지는 믿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1~5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과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6,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으나 그들은 그 교훈을 배우기를 거절했다. 그들의 대적이 그들의 성읍을 파괴했으나 이스라엘은 다시 그것을 세우고 전보다 더 좋은 나무를 심고자 했다(8~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더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대적을 보내실 것이며(11,12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13~17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애굽과 대항하여 싸울 것이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18~21절).

“어느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주는가?”

10 장

이사야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치 못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 혹은 슬픔을 선포했다(1~4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앗수르”를 사용하실 것이나(5~11절) 앗수르 또한 징벌하실 것이다(12~19절). 아울러 이스라엘의 소수 잔존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20~23절). 앗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북방에서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24~34절).

때때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취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징벌하는데 사용하신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구절이 앗수르인이 매우 교만했음을 보여주는가?”

11 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밑둥이까지 자르신 나무와 같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나와 큰 가지처럼 자랄 것이다(1절).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며(2절) 지혜롭고 의로울 것이다(3,4절). 그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사람들과 들짐승이 모두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5~9절). 이방인들이 그들의 기호(旗號)인 그리스도께로 모일 것이며(10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지낸 후에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 거기서 살 것이다(11~16절).

“언제 들짐승들이 유순해지는가?”

12 장

이스라엘은 그 때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짧은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들은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므로 기뻐할 것이다(1절).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것

이다(2절).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실 것이다(3절, 요 4:13,14). 그 때 그들은 온 땅에 알려진,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것이다(4~6절).

13 장

우리는 1~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살펴볼 것이다:

- 바벨론 - 13, 14, 21장
- 모압 - 15, 16장
- 다메섹 - 17장
- 구스 건너편 나라 - 18장
- 애굽 - 19, 20장
- 두마와 아라비아 - 21장
- 예루살렘 - 22장
- 두로 - 23장
- 미래의 세계 - 24장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군(혹은 갈대아 군)을 심판하실 것이다(1~5절). 여호와께서 별들을 어둡게 하실 때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할 것이다(9~13절). 바벨론 군은 메데 군에 의해 파멸될 것이며(14~18절), 사람들이 다시는 바벨론 성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19~22절).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을 멸할 것인가?”

14 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고토로 귀환할 것이다. 그 때 그들은 바벨론 군을 그들의 포로로 삼게 될 것이다(1~3절).

바벨론 왕이 죽은 자들이 있는 스올에 떨어질 때 유대인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4~8절). 그리고 스올에 있는 자들도 그를 비웃을 것이다(9~19절).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은 그가 살았을 때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기 때문이다(13,14절).

바벨론 왕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나(20~23절) 우선 하나님의 목적은 앗수르를 멸하고 그분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24~27절). (이사야가 이 이상을 본 것은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때였다—28절; 왕하 16:20). 블레셋인들은 앗수르가 멸망할 때 기뻐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그들 역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유다는 이방 열국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할 것이다(32절).

바벨론 왕은 “루시퍼” 혹은 계명성으로 불리는 사단의 상징이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천사를 다스리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으며 훗날에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겔 28:11~15; 계 20:10).

“누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는가?”

15 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모압”도 멸하실 것인데 그들은 롯의 후손으로서(창 19:37)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 먼저 모압의 한 성읍인 아르와 길에 침묵이 있었고(1절) 그런 다음 부르짖음과 통곡이 있었다((2~5절). 들에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7,8절), 사람들이 다른데로 도피할 것이나(7,8절) 거친 사자들이 그들을 쫓을 것이다(9절).

16 장

모압 백성들이 유다에 예물을 보내며 그들의 나라를 떠난 그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1~5절). 하나님

께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모압인들을 징벌할 것이다(6~8절). 그 때 그들은 애곡할 것이며 이사야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9~11절).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며(12절)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을 낮은데 처하게 하실 것이다. 이 환란의 때는 3년 안에 임할 것이며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다(13,14절).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벌하셨는가?”

17 장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아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번째 나라이다(1~3절). 그 때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관심을 돌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4,5절). 일부 백성들은 충분히 고난당한 후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나(6~8절)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까닭에 징벌을 당할 것이다(9~11절). 무수한 앗수르 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멸하셨다(12~14절; 37:36).

선지자들은 여호와와의 날로 불리우는 미래의 위대한 날을 종종 언급했다. 그 날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읽게 되는데(4,9절)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믿을 것이다(7절).

“본장에서 어떤 구절들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해주는가?”

18 장

선지자는 구스 남쪽의 어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다. 이 나라는 대적에게 함락당할 때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들로 이스라엘의 고토귀환을 돕도록 촉구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께 바치는 예물로 드릴 것이다(7절).

19 장

애굽 역시 많은 환란을 겪을 것이다. 애굽인들은 서로 싸울 것이며(2절) 그들의 우상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1,3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외국 왕의 권세에 붙이실 것이다(4절). 나일강이 마를 것이며(5절) 백성들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6~8절)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9,10,15절). 애굽의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11~14,16,17절).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로 돌이키면 애굽인과 앗수르인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이뤄질 것이다(18~25절).

20 장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전히 미래의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당시에 이사야로 하여금 신과 옷을 벗고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와 같은 모습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였는데 이는 앗수르 왕이 아스돗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1~4절). 그 때 유다는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한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5,6절).

“왜 이사야는 신과 옷을 벗었는가?”

21 장

“경고”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데 이 21장에는 세가지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1. 해변광야는 바벨론 땅을 가리킨다(1절). 엘람(혹은 바사)과

- 메대는 바벨론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2절). 여호와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시자 이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3, 4절). 바벨론 지도자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파수꾼이 메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5~10절).
2. “두마”는 이두매 혹은 에돔의 다른 이름이다. 에돔 백성은 앓수르인을 두려워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위기가 지나갔는지 물었다. 이에 선지자는 아침이 곧 올 것이며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나 에돔에게는 밤이 오고 있으며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떤 에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기에 이사야는 후에 다시 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11,12절).
 3.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라비아인들에게 전했다(13~17절).

22 장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거기서 백성들은 마땅히 슬퍼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앓수르인을 보내어 그들과 싸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1~3절). 이사야는 다시금 환란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으나(4~7절) 백성들은 적군을 대비해서 세운 자신들의 훌륭한 방비책들만을 의지했다(8~14절).

칭지기 셉나는 이 성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벨론 땅에 던져져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15~19절). 엘리야김은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그를 높이셨다(20~25절).

주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므로 강한 못과도 같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부러져 떨어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그분께 허락하셨다.

“누가 셉나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23 장

상인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 혹은 스페인으로부터 모든 무역로를 향해했다. 그들은 항상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인 두로에서 많은 상 거래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두로에 근접한 깃딤 혹은 구브로에 이르렀다가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먼저 바벨론인이 두로를 파괴시켰으나 그 도시는 70년 후에 재건되어 다시 무역이 시작되었다(15~18절). 마침내 그곳은 헬라인에 의해 파멸되었다. 아마 18절은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미래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24 장

이 장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5,6절) 친히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실(1~4절)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산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것이다(7~12절). 그들 중 일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13~16절) 나머지는 한 위험을 피하다가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17~20절). 여호와께서는 악한 영들과 땅의 열왕도 심판하실 것이며(21,22절)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실 것이다(23절).

“누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인가?”

25 장

25,26,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으므로 찬양의 책으로 불리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여 그분께로 회복시키신 여호와를 찬양한다(25:1~8). 메시아께서 큰 연회를 베푸실 것이며(6절) 모든 슬픔의 흔적이 사라질 것이다(7절). 8절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지극히 낮추실 것이다(9~12절).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셨으며 이에 그들

을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마 22:2,3,9).

26 장

유다 백성은 고토에 돌아올 때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1,2절).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자신을 구원했노라고 모두들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3~9절).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때에도 여전히 악할 것이다(10,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고백했다(13~15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까닭에 슬퍼했다(16~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19절).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멸하는 동안 숨어 있으라고 자기 백성에게 이르셨다(20,21절).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세상에 악인이 존재할까?”

27 장

1절은 물에 사는 세 마리 들짐승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2~5절) 그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6절).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우상을 멸하기 전에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다(7~9절).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며(10,11절) 그분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서 애굽의 실개천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12,13절).

28 장

28~35장은 화(禍)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28:1; 29:1,15;

30:1; 31:1; 33:1). 이 장들은 앓수르에게 반역하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해준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가 전한 것을 믿지 않은 까닭에 그들이 많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루살렘 거민에게 경고하셨으나 후에 그분을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장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를 멸하실 마지막 때를 대망한다.

첫번째 “화”는 “교만한 면류관”으로 불리는 에브라임에 대해 발해졌다. 앓수르가 올라와 신속히 온 나라를 멸할 것이나(2~4절)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5,6절).

이사야는 과음을 피하라고 종종 백성들에게 경고했다(5:11,22; 28:1,3,7; 56:12).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식이나 술 담배 등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롬 12:1).

이어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전하였다(7~29절). 그들은 큰 죄를 범했으며(7,8절), 불품없는 멧세지를 전한다고 이사야를 비웃었다(9,1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외국어인 앓수르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르셨다(11절). 유다 백성은 다른 나라와 맺은 언약을 의지했다(14,15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했다(16~22절).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짧아서 피곤한 사람이 쉴 수 없는 침대와도 같다. 위험이 닥칠 때 인간의 지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어서 이사야는 농부가 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항상 그분의 백성을 징벌하지시는 않는다는—것을 상기시켰다(23~29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데 있다. 다윗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자신을 삼가게 되었다(삼하

12:14).

“누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돌인가?”

29 장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한 이름이며 앗수르 군대가 그것을 에워쌀 것이다(1~4절). 그들은 그 성을 빼앗는데 거의 성공할 것이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5~8절). 앗수르 군은 꿈꾸는 자가 넉넉히 먹었다고 생각했으나 깨어보니 여전히 배고픈 상황과 같을 것이다. 앗수르 군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멸절당할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까닭에(9~14절) 또 한번의 “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발해졌다. 그들은 애굽과 손을 잡고자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지 못하실 줄로 생각했다(15~17절).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18~24절).

30 장

다음 “화”는 앗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손을 잡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 발해졌다(1,2절). 그러나 애굽은 무너질 것이고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3~5절). 들짐승이 애굽으로 향하는 사신들을 덥칠 것이며 그들의 여행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6,7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분께 반역하고(8,9절)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고(10,11절) 지적하셨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징벌하실 것이다(12~14절).

만일 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안식을 취할 것이나 만일 그들의 대적을 의지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15~17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 교훈을 배울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 때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리라고 말씀하셨다(18~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길

을 보이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릴 것이다(21,22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23~26절).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멸하실 때 이스라엘은 즐거이 노래부를 것이다(30~3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구절은 어디인가?”

31 장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을 청하러 애굽에 가고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애굽인은 사람에게 불과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1~3절). 여호와께서는 앗수르인에게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4,5,8,9절).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6,7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환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대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히 13:5).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도움을 구하러 세상에 나가서는 안된다. 애굽(31:1)은 세상을 상징한다.

32 장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놀라운 그림을 여기에 제시해 놓으셨다.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1,2절). 사람들은 오래 살 것이며 더 지각이 뛰어날 것이다(3,4절). 그들은 선악간에 그들의 실제 상태 그대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5~8절).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이 많은 환란

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9~14절). 그런 다음 미래의 왕국에 대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이며 그들은 의로운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15,16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화평 중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17~20절).

“누가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를 보호할 사람인가?”

33 장

앗수르 군대는 매우 잔인했으며 1절은 그들에게 화를 촉구한다. 그들은 곧 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 기도와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의 기도가 2절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3,4절에 있으며, 그들의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5,6절에 있다. 그들은 큰 환란에 처했었으나(7~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오셨었다(10~12절). 그분은 신속히 대적을 물리치고 의인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13~16절). 그들은 왕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을 것이며 그들의 환란이 이미 지나간 일임을 기억할 것이다(18,19절).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성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20~24절).

34 장

여기서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1~4절). 그리고 “두마”로 불리는(21:11)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전쟁(5~7절)과 불(8~10절)이 있을 것이며, 오직 들 짐승만 에돔 땅에 거할 것이다(11~15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16,17절). 오늘날 에돔 땅은 본문에서 말한 상황과 똑같다.

“에돔은 꺼지지 않을 불로 소멸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35 장

이 짧은 장은 영광스런 메시아 왕국을 묘사해 준다. 그 때는 광야가 동산처럼 될 것이므로 식물이 풍부할 것이며(1,2절), 사람들이 강하고 용감할 것이며(3,4절), 눈먼 자는 보고, 저는 자는 뛰고, 말 못하던 자는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5,6절). 땅이 복을 받을 것이며(7~9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 찬양을 부를 것이다(10절). 주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는지!

36 장

이사야서는 시 형태로 노래와 같이 기록되었으나 36~39장은 역사와 같이 기록되었다. 이 장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다. 그것은 열왕기하 18:13,17에서 20:19까지의 기록과 거의 같다. 그러나 38:9~20은 히스기야 왕이 시 형태로 기록한 부분으로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다.

36장에서 앗수르 왕이 군대장관 중 하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앗수르에게 항복하라고 전했다(1~5절). 유다 백성은 애굽이나 여호와의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6,7절). 그는 거기에 탈 병사들이 있다면 말 2천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8,9절). 이것은 히스기야의 군대가 매우 적었음을 보여준다. 랍사게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자기를 보냈다고까지 주장했다(10절).

히스기야의 신복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다른 방언으로 말하라고 요구했다(11절). 그러나 랍사게는 일반 백성들도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12~16절). 그들은 그에게로 나와야 했으며, 그리하면 그가 그들을 그들의 땅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17절). 그는 여호와가 열방의 신들과 별 차이가 없으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19,20절).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은 그의 말에 답변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 모든 것을 고했다(21,22절).

산헤립의 신복은 예루살렘 백성들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게 하고자 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심어주는 사단을 상징한다.

“왜 앗수르 군의 장관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는가?”

37 장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듣자 매우 당혹해하며 몇몇 신복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1,2절). 왕은 이사야에게 성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3~5절). 이사야는 산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답변했다(6,7절).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호와가 열방의 신들과 다름없다고 다시 전했다(8~13절).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보이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14~20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종들이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 것을 아시는 까닭에 히스기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했다(22~25절). 앗수르 군이 여러 나라를 굴복시킨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었다(26,27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온 길로 돌려보내실 것이다(28,29절).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앗수르 군이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이 많은 식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30~35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을 멸하자 앗수르 군은 이스라엘을 떠났다(36절). 산헤립 자신도 두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37,38절).

“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앗수르군을 죽이셨는가?”

38 장

앞의 두 장(36,37장)은 히스기야의 큰 승리에 대해 말해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시험하셨으며(38,39장) 그는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

먼저 그는 중한 병이 들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그를 찾아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히스기야는 이 일에 대해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했으나 그 대신 그는 병이 낮게 되기를 구했다(1~3절).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허락하셨으며 그 증표로 일영표를 뒤로 10도, 즉 40분 가량 물러나게 하셨다. 일영표는 시간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를 통해 히스기야의 운명의 시간을 연장하신 것이다. 그는 그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했다(9~20절). 그는 곧 죽을 것으로 생각했으나(10~14절) 그러나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었고(15~17절) 영원히 그분을 찬양드릴 것을 약속했다(18~20절). 이사야는 처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다(21절; 왕하 20:7).

이로부터 3년 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으며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어떤 왕보다 오래동안(55년간) 다스렸으나 매우 사악하여 열방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 므낫세는 후에 뉘우치기는 했으나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잘못을 범하였다(대하 33:1~13).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삼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자 낮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39 장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의 아들이 사자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져왔다(1절). 이즈음 바벨론은 앗수르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나라였으며 수년 뒤에는 바벨론이 앗수르를 굴복

시켰다. 이 바벨론 왕의 아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고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그 사자들에게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1,2절).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에게 그 일을 물은 다음 그 바벨론 군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리라고 알려주었다(3~7절). 그 일은 예레미야 때 일어났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였으며 그의 생애 동안에는 나라가 평화로울 것에 대해 감사했다(8절).

“왜 히스기야는 이방 사자들에게 그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는가?”

40 장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한다. 앞 부분인 1~35장은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으나 뒷 부분인 40~66장은 주로 메시아와, 메시아가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에 대한 것이다. 이사야 40~66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의 개관을 살펴보라. 그 첫 부분인 40~48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40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심으로 시작하셨다(1~11절).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3~5절; 눅 3:4~6). 이스라엘은 그들은 사람에게 불과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다(6~8절).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포상하고 그리고 목자가 그의 양을 돌보듯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친히 오실 것이다(9~11절).

세례 요한은 매우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전했다. 그는 여호와에 관한 진리를 선포했다(요 5:33; 10:41).

그분은 세계와 열방 위에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이다(12~17

절). 그분은 모든 거짓 신들과 땅 위의 모든 왕보다 위대하시다(18~25절). 그분은 그분을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26~31절).

“성령께서 세계 요한에 관해 말한 구절은 어디인가?”

41 장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능력이 우상의 능력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를 물어보셨다. 하나님은 유다 동편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2~4절). 우상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다(5~7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어떤 우상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다. 그분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에게 그것을 보이셨다(8,9절). 그분은 그들을 도와주고(10절) 대적에 대한 승리를 얻게 해주겠다고(11~16절) 약속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17,18절) 광야를 숲이 되게 하셨다(19,20절). 이스라엘의 우상은 결코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우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와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21~29절; 45:1).

거짓 선지자들이 때때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중단하고 다른 대상을 따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야 한다(신 13:1~3).

42 장

1~1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분은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다(1~4절; 마 12:18~21). 만물의 창조주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메시아를 불러 세워셨다(5~7절). 여호와는 모든 우상보다 크시며(8,9절) 이에 성령께서 여호와

계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모든 사람에게 촉구하신다(10~1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대적을 떨하고(13~15절)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16,17절) 친히 오실 것이다.

18~25절에서 “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사자가 되어야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신약의 어떤 구절이 여기 1~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가?”

43 장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으며, 환란의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그들의 고토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셨다(1~7절). 이어서 우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지 चे차 물으셨다(8,9절). 여호와와 백성은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10~12절) 아무도 그분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13절)고 증거할 수 있다. 여기서 그분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토로 되돌리겠다고 예언하셨다(14~21절). 그러나 백성들은 그분을 경배하려 하지 않았다(22~24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심판보다 컸다(25~28절).

“여호와께서는 어떤 민족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44 장

하나님은 다시금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1~5절). 그분은 오순절날에 그분의 성령을 주셨으나(3절) 여호와께서 오실 미래에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까닭에 우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6~8절).

그런 다음 이사야는 우상을 만드는 백성들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1. 우상을 만드는 자는 사람에게 불과하며 그 자신이 쉽게 피곤해진다.
2.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지며 나머지 나무는 뿔감으로 사용된다.
3. 우상 자체는 아무도 구원하거나 도울 수 없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을 공경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21~27절). 28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바사 왕의 이름 “고레스”를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다. 이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여년 전의 일이었다.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왜 매우 어리석은 일인가?”

45 장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에 들어가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실 것이다(1~8절). 이스라엘의 참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다윗의 가계에 속한 왕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권한이 있으시며 아무도 그분의 행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 해서는 안된다(9~13절). 장래에 이방 열국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머리로 인정할 것이다(14~17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18,19절). 그러나 우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없다(20,21절).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22~25절; 롬 14:11; 빌 2:10).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왜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때에 맞춰 일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원하시는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인 고레스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6 장

벨과 느보는 우상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에 그 우상들을 날라야 했다(1,2절).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날릴 필요가 없으며 사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날릴 수 있으시다(3,4절).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이다. 거짓 종교들의 모든 제사장들은 무거운 우상을 사람들에게 지우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댓가로 선행을 지불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짐도 날라 주신다(벧전 5:7).

그런 다음 이사야는 다시금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 그분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5~7절). 오직 하나님만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있다. 여기서 그분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고레스를 가리킨다(45:1). 다시금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다(12,13절).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설명했는가?”

47 장

이제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징벌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셨으나(39:6) 그들은 잔인했고 이스라엘에게 아무 자비도 보이지 않았

다(1~6절). 그들은 또한 매우 교만했으며 자신들이 아무 환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7~11절; 단 4:30). 더 나아가 그들은 술객들과, 별을 관찰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의지했다(12~15절).

48 장

또 다시 하나님은 우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셨다(1~8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따르고 있노라고 주장했으나(1,2절) 그분은 많은 이들이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을 징벌해야 하는데 모든 백성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9~11절). 그분께서 그들을 많은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나 후에 그분의 종 고레스를 불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2~16절).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구속자를 따라야 했다(17~19절). 고레스가 그들로 바벨론을 떠나게 해줄 것이나 계속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평강이 없을 것이다(22절).

16절에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도 세상에 보내셨으며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요 14:24,26)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다(41:4; 44:6; 48:12). 이것은 그분의 영원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가?”

49 장

이사야서의 다음 부분인 49~5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까닭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책

으로 불리운다.

49장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부르는 여호와와 종, 곧 메시아를 상징한다(1~4절).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이다(5,6절). 여호와께서 모든 왕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리라고 선언하셨으며(7절)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8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계에서 돌아오는 것을 도와 줄 것이다(18~23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포로로 있는 동안 바벨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았으며 누가 과연 그들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2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모든 사람들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25,26절).

50 장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셨다(1절). 2~9절은 메시아에 관한 몇몇 중요한 진리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할 사람을 찾으셨으나 모두가 죄인임을 발견하셨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40:7,8).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셨다(2,3절).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하나님에게서 배우셨다(4절; 요 7:16).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심문하고 죽일 때에도 그분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5~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기쁘게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메시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8,9절). 그분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나(10절) 어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그들은 곧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음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11절).

“언제 이사야는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범을 배웠는가?”

51 장

일부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할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셨다(1~3절).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으며, 이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4~8절). (성령께서는 이 장에서 몇번이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호소하셨는가?)

그 때 백성들은 메시아를 “여호와의 팔”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라합” 혹은 애굽에게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했다(9~11절). 메시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분이 그들을 지으셨으며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12~16절).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노하실 때 그분노의 잔을 마셨었으나(17~20절)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분노를 그분의 백성의 대적에게로 돌리실 것이다(21~23절).

52 장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를 것이다(1,2절). 바벨론 백성은 전에 애굽 백성이 그러했듯이 그들을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다(3~6절). 여호와께서 친히 이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7~10절). 그들은 바벨론을 떠날 때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명을 받았다(11,12절).

이어서 성령께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다(13~15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13절). 그러나 먼저 그는 무서운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14절). 그는 자기 피를 그들을 위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을 것이다(15절, 벤전

1:2).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53 장

이 놀라운 장은 메시아에 관한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다(1절).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거절할 것이다(2,3절).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이다(4~6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하시는 줄로 생각할 것이나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거짓고소를 할 때 침묵하실 것이며(7절)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할 것이나 그분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8절). 그분은 부자에게 속한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9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 메시아는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10~12절).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이르신 그대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죄인취급을 받으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이 다른 죄인들처럼 장사될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다(마 27:57~60).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다.

“언제 주 예수님은 만족하실 것인가?”

54 장

유다는 아무 자식도 없다가 자녀를 얻고 심히 기뻐하는 아내와 같

았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러한 여인처럼 노래부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유다가 그분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1~4절). 창조주 하나님이 유다에게 남편과 같다. 그분은 그녀를 부르셨으며(5~8절) 다시는 그녀에게 분노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9,10절).

이어서 그분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을 다시금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1,12절). 그 모든 대적이 멸절당할 때 예루살렘은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13~17절).

55 장

여기서 우리는 목마른 자에 대한 초청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은 아무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1~5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또한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와 만족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준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4:14과 7:37에서 그러한 말씀을 사용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께 돌아오라고 이르셨다(6,7절). 그분의 생각은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며(8,9절)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1~13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56 장

여기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1,2절).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

으나 이방인들과 “고자”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3~8절). 들짐승은 이방 왕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거나 잠들었거나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다(9~12절).

57 장

처음 두 구절은 56:9~12의 가르침, 즉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고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고(3~9절) 하나님께로 돌아키지 않은(10~13절) 까닭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정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그치면 그들을 용서하고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13절 후반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환란만을 주실 것이다(20,21절).

영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고 으뜸이 되신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꺼이 거하고자 하신다(15절).

“어느 구절에서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는가?”

58 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며 여호와의 사랑하듯 행동하면서 그와 동시에 매우 악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셨다(1~5절).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은 의로운 생활을 하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6~12절). 여기서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다(13,14절).

59 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인과 거짓(3절)을 비롯한 여러 죄들(4~8절)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1,2절).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크며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9~15절). 그러므로 메시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중재자요(16절) 구속자이시다(20절). 그분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18절).

60 장

이 장은 예루살렘 성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세계의 중심으로 묘사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3~9절). 또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것이며(10~12절) 하나님이 그 땅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13~16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평강과 의와 영원한 빛이 존재할 것이다(17~22절).

“어느 구절이 이방인이 그들의 재물을 유다에게 가져갈 것을 보여주는가?”

61 장

성령께서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래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다(눅 4:16~21 참조). 메시아가 그분의 백성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옛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3,4절). 이방인들이 들에서 일할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까닭에 이스라엘을 우러러볼 것이다(4~9절).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돌이키실 때 여호와의 즐거워할 것이다(10,11절).

주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섰을 때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으셨다

(눅 4:16~19). 그분의 초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은혜를 전하시
기 위해서였다(요 1:17).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을 거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살후 1:7,8).

“어느 구절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에 대해 말해주는가?”

62 장

선지서는 새로운 영광 중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때까지는 쉬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1~9절). 그는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해주실 것
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계속 간구하고자 했다. 하
나님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과(2,3절) 백성들이 즐
거워할 것을(4,5절)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겠
다고 약속하신 까닭에(8,9절)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기도
해야 한다(6,7절). 열방은 유다의 고토귀환을 도울 것이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10,12절).

63 장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때
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옷은 그분의 백성의 대적들의 피로 붉
어 있다(1~6절). 이어서 하나님이 지나간 때에 여러 차례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셨다(7~14절). 그
분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으나 그들은 곧 다시 그분
께 반역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해들이셨다. 여기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호소했다(15~19절).

“메시아는 능히 구원하신다(1절). 왜 그분의 옷이 붉은가?(2
절)”

64 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한다(1~3절). 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4,5절) 자신들은 죄인이라는(6,7절) 사실을 기꺼이 고백했다. 그들은 자비를 베푸실 것과 그들을 도울 것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8~12절).

65 장

여기서 성령께서 그분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름답게 묘사했다(1~7절). 이스라엘 중에는 주님을 믿을 “잔존자”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8~10절). 메시아를 거절하는 자들은 싸움에서 죽을 것이다(11~15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것이다(17~19절). 사람들은 오래도록 살 것이며(20~22절)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24절). 들짐승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다(25절).

66 장

하나님께서서는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증오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가져오르고 그분의 백성에게 분부하셨으나 그것을 가져오는 자들은 삶이 깨끗해야 한다(1~4절). 이들 신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5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단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7~14절).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불로 멸하실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14~18절). 그 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것이다. 18절 후반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라. 그 결과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심판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24절). 이사야의 예언은 그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는다.

이사야는 다른 어떤 구약의 기자들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로 넘어가서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구절들을 발견할 것이다.

“65,66장에서 어느 구절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는가?”

예레미야

주요 부분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사 그에게 할 일을 이르셨다(1장).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후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때에 관한 멧세지를 전하셨다. 우리는 언제 예레미야가 이 멧세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했는지는 알지 못한다(2~19장).
3.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멧세지를 전하셨다. 그분은 정부 지도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20~23장).
4.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더 많은 멧세지를 전하시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바벨론 군대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아가게 한 후에 그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24~33장).
5. 예레미야는 그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진술했다(33~45장).
 - (1)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굴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취하였다(34~39장).
 - (2)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취한 후에 유다에서 일어난 일들(40~42장).
 - (3) 일부 유다인들은 애굽으로 갔다(43,44장).

- (4) 바룩에게 전하는 멧세지(45장).
- 6. 하나님께서 몇몇 이방 나라를 징벌하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다(46~51장).
- 7.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행하셨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 일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일어났다(52장).

개요

- 1. 예레미야의 소명(1장)
- 2.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2~19장)
- 3. 유다 지도자들의 죄(20~23장)
- 4.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 예고(24~33장)
- 5. 예레미야 당시에 발생한 사건들(34~45장)
 - (1) 바벨론 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34~39장)
 - (2)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40~42장)
 - (3) 일부 유대인들의 애굽 피신(43,44장)
 - (4) 바룩에게 전하는 멧세지(45장)
- 6. 일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46~51장)
- 7. 바벨론 군의 예루살렘 함락(52장)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다. 만일 그가 종종 눈물을 흘린 일과 그 이유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그 또한 제사장이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의 아나돗이란 마을에 살았다. 예레미야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를 크게 하셨다”는 뜻이다.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 지경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는 앗수르 군대가 이

스리엘을 함락하여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였으며 유다가 멸망하기 불과 수년 “전”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군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 바벨론에 가뉘들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다. 그분은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로 바벨론 백성에게 복종하도록 권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그의 조국의 대적으로 몰아붙치며 그를 죽이려 했다.

바벨론 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레미야를 유다에 머물도록 허락한 반면 대부분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라고 권했으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으며 그는 거기서 죽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과 또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그들의 고토에 돌아올 것을 증거했다.

예레미야의 뗏세지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본서를 공부하면서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를 증오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분은 그들의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환란과 고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며, 또한 그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할 일을 맡

씀하신 경위를 대하게 된다. 그는 그 부친이 제사장이므로 자연 제사장의 신분이었으나(1절)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택하셨다(5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며(8,9절),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를 함락하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이르셨다(10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른 봄에 살구나무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오른다. 사람들은 살구나무에서 꽃봉오리를 보면 봄이 가까왔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표증을 주셨으며 이에 예레미야는 때가 가까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11,12절). 끓는 가마는 곧 닥쳐와서, 가마의 끓는 물이 그것에 데는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듯이 유다 백성을 상하게 할 바벨론 군대에 대한 상징이었다(13~1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멧세지를 싫어할지라도 유다 백성에게 그분의 멧세지를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보호하실 것이다(17~19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받들어 행했다. 만일 그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삶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한다. 만일 그분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레미야를 그분의 종으로 택하셨는가?”

2장

2~33장에서 우리는 심판의 임박을 알리는 예레미야의 많은 멧세

지를 대할 수 있다. 2~19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셔야 했음을 말해준다.

유다 백성은 한 때 하나님을 사랑했으나(1~4절) 그 마음이 변했다(5~7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하고 우상을 섬겼다(8~13절).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앗수르에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했다(14~19절). 그들은 그들의 죄로 치달으며 더욱더 우상을 섬겼으며(20~25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우상은 환란을 당할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26~28절).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말했으며 그분께 복종하거나 그분께로 돌아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행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잊어버렸다(29~32절).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되고 잔인함을 아셨다. 그분께서 확실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33~37절).

3장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했으나 실상은 우상을 사랑했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신실치 못한 아내와 같다고 말씀하셨다(1~5절).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후에도 유다는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6~10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고 우상 섬기기를 그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르셨다(11~13절). 그분은 만일 그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유다 백성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연합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더불어 거하겠다고 약속하셨다(14~20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자백했다(21~25절).

“왜 하나님은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는가?”

4 장

그들의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다(1,2절).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으며 이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든 남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교훈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유다 자손에게 이르기를 겸비하고 그들의 죄를 슬퍼하고 스스로 여호와께 성별되라고 하셨다(3,4절).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그들의 땅에 보내실 것이다. 바벨론 왕이 사자처럼(7절) 북방에서(5,6절) 올 것이다. 예레미야와 모든 백성은 이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었다(8~10절). 그러나 바벨론 군이 뜨거운 바람처럼, 구름처럼 속히 오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11~13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죄를 버리라고 호소했다(14~19절). 예레미야는 크게 낙심되었고 유다 백성들로 인해 그 몸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19~22절). 그는 대적이 그 땅을 함락했을 때의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았다(23~31절).

5 장

만일 그 성에 의인이 한 사람 있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용서하실 것이다(1절).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러했다(2~5절). 바벨론 군이 와서 그들을 그 땅에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6~19절). 바다는 여호와를 순종했으나 유다 백성은 그분을 순종하지 않았다(20~29절). 종교 지도자들, 곧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으며 백성들

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좋아했다(30,31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백성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다. 그분은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위대한 왕을 주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은 그분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음을 입증해준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눈과 귀를 가졌는데도 보고 듣지 못하였는가?”

6장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1~5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실 참인데 이는 유다 백성이 강포하고 잔인한 때문이었다(6~8절).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9~15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에 그분은 그들의 예물을 거절하고 그러한 제사를 증오하셨다(16~21절). 바벨론군이 오면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22~26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란을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귀한 금속을 쓸모없는 광물에서 분리시키는데 사용하는 불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은 백성들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분리시킬 수 없었으니 그들은 그만큼 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었다(27~30절).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16절). 우리는 오늘날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마 11:28)”

7장

이 장은 예레미야가 “성전”,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곳에서 전한 멧세지로 불리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도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므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1~4절).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우상을 들여놓음으로써 성전을 더럽게 했으며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으나 실로가 파괴되었듯이,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5~15절). (우리는 실로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성경에서 알 수 없으나 아마 사사시대 동안, 혹은 사무엘이나 사울 때에 파괴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적이거나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그분의 징벌에서 제외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들은 만일 그곳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의 장소를 파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바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소위 “하늘 황후”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므로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16~20절).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나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단순히 종교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21~26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멧세지를 듣지 않는 까닭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27~29절). 많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우상의 제물로 죽인 까닭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30~34절).

8장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는데 그들의 뼈가 파헤쳐져 땅 위에 노출될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그들 위에 쪼일

것이다(1~3절).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새들도 그 거처로 돌아올 때를 알건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다(4~7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악을 행하고 있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그러했다(8~13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모든 희망을 잃었으며(14,15절), 바벨론 군대가 눈 앞에 이르렀다(16,17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환란을 슬퍼했으며(18,19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19하). 예레미야는 다시금 부르짖었다(20~22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징벌하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은 슬퍼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9 장

백성들이 극심하게 죄를 범하는 까닭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부르짖었다(1~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7~9절). 그분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할 것이며(10~14절)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 흩어질 것이다(15,16절).

어떤 이들은 여인들을 장례에 불러와 죽은 이를 위해 애곡하게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곳을 위해 애곡하도록 그 여인들을 부르신다(17~22절). 사람들은 비록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안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23,24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이방 백성 모두를 징벌하실 것인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대해 강팍했기 때문이다(25,26절).

“왜 예레미야는 광야에 가서 살려고 했는가?”

10 장

예레미야는 우상은 그들을 도울 수 없으나(1~5절)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증거했다(6~16절).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다(17,18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이 그곳을 파괴했을 때 그 성의 파멸을 슬퍼했다(19~22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을 멸할 것을 구함으로 유다 백성을 위해 변호했다(23~25절).

11 장

예레미야는 만일 그들이 율법을 통해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맺은 약속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유다 백성에게 말했다(1~8절).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이 약속을 파기했으며(9~13절) 그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14~17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마을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그의 가족을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다(18,19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20~23절).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계획했는가?”

12 장

예레미야는 왜 아나돗 사람들처럼 악인에게 부와 성공을 허락하십니까 그 까닭을 하나님께 여쭙었다(1~4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5,6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나(7~13절)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열국을 징벌하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4~17절).

13 장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가 허리에 맨 천조각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천을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었다가 그것이 썩은 뒤에 찾아왔다(1~11절).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종종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셨다.

천조각은 사람들이 허리에 매는 띠와 같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천을 바위 속에 숨겨두어 썩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속했지만 곧 바벨론에 잡혀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마실 포도주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나 그 포도주는 일상적인 포도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12~1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길을 돌이키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15~17절). 사람들이 그 땅에 몰려와 왕과 왕후를 사로잡고 남방의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다(18,19절).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바벨론 군대가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공허케 할 것이다(20~27절).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 띠를 엉덩이에 감추라고 하셨는가?”

14 장

유다 땅은 아무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것이다(1~6절).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7~9절). 비도 양식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백성들을 죽게 할 것이다(10~12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13~16절).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성읍들이 황폐되고 파괴될 것이므로 예레미야에게 슬피 올라고 이르셨다(17,18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19~22절).

15 장

하나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들지 않으실 것이므로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 그분은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며 그들은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1~4절). 모든 사람이 유다 백성이 그토록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나 그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분은 그들을 징벌하셔야 했다(5~9절). 예레미야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멱세지를 듣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했다(10~12절). 하나님은 그 백성이 종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셨다(13,14절).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다의 소수 백성을 위해 변호하기도 했다(15~18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9~21절).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먹었는가?”

16 장

하나님께서서는 그 땅이 파멸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므로 그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1~4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징벌하는 이가 “하나님”이므로 예레미야는 울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5~9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징벌하시려 하는지 예레미야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10~13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유

다 백성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14,15절) 먼저는 그들 곁에 사는 이방 백성이 그들을 습격하여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나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16~18절). 소수의 백성은 그들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긴 그 어리석은 행위를 자백할 것이다(19~21절).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을 섬긴 까닭에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일부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한 왕,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17 장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 까닭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1~4절). 만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나 만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5~8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종종 서로 거짓을 말하며 우리 역시 스스로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려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9~11절).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다 나라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았다(12~14절).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한대로 징벌이 오지 않냐고 그에게 물었다(15절).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여호와께 아뢰고는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물었다(16~18절).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19~27절).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가?”

18 장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토기장이와 같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와 같다고 유다 백성에게 말했다. 토기장은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1~17절).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다는 것과, 자신은 그들에 대해 원하는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토기의 그림을 사용하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은바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우리는 그분이 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을 아무 자격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해롭게 하기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까닭에 그분이 원하시는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까닭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만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거짓 증거를 꾸미고자 했다(18절). 예레미야는 전에 하나님께 그들을 징벌하지 말라고 아뢰는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19~23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토기장이와 같으신가?”

19 장

토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다(1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백성들을 살해하고 성읍들을 파괴시킬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깨뜨렸다(10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대히 하여,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바치고자 백성들을 죽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

20 장

바스홀은 성전의 유사장이었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수족을 묶었다(1,2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엄히 징벌하실 것이라고 증거했다(3~6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슬펐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를 설득시키셨다(7~18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었으나 그 말을 중단할 수 없었다(9절).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해할 계획을 짠다는 것을 들었으나(10절)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주실 것을 믿었다(11,12절). 예레미야는 때로는 마음이 기뻐 여호위를 찬양했으나 때로는 슬픔에 젖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14~18절).

“바스홀은 왜 예레미야를 때렸는가?”

21 장

시드기야왕이 바스홀이란 이름의 또 다른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에 임박한 바벨론 군대에 대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라고 했다(1,2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을 도와 유다 백성을 거스려 싸우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왕과, 목숨을 남겨둔 모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3~7절). 바벨론 군은 그들을 거스려 싸운 자들은 모두 죽일 것이나 그들에게 항복한 자들은 살려둘 것이다(8~10절). 예레미야는 왕의 권속에게 고하기를 백성들에게 부정과 폭정을 중단하라고 했다(11,12절).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을 “계곡에 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13,14절).

22 장

이 장은 유다의 네 왕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그들의 통치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

1.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이르셨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 땅은 황폐케 되고 그 백성은 사로잡혀갈 것이다(1~9절).
2. 여호와께서 여기에 살룸으로 불리운 여호아하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10~12절).
3. 여호야김은 그의 큰 집을 지은 자들에게 샅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부친 요시야가 행했듯이 의를 행치 않았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 백성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를 성밖에 끌어내어 함당히 장사하지 않을 것이다(13~19절).
4. 여호야김이 여기에 고니야로 불리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후손 중 아무도 다윗의 위에 올라 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20~30절).

여고냐는 이 왕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1:11에서 그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선조였음을 보게 된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으므로 요셉이 그분의 부친이 아니었다(마 1:20). 주 예수님은 정녕 다윗의 위에서 다스리실 것이나 그분은 사실 여고냐의 계보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주 예수님은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셨지 고니야의 후손이 아니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이루셨는지!

“왜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23 장

하나님께서서는 목자들 혹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은 고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다(1,2절).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일부를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돌볼 지도자들을 허락하실 것이다(3,4절). 그분은 메시아를 그들의 왕으로 보내실 것이며(5,6절)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분으로 알게 될 것이다(7,8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간음을 비롯해서 많은 죄악을 범한 사실을 드러내셨다(9~15절).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16,17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말을 준적이 없으셨다(21,22절).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라고 말했다(23~32절). 그들은 마땅히 경청해야 할 때 여호와의 경고의 멧세지를 비웃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멧세지를 비웃은 까닭에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33~40절).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었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24 장

유다 백성의 일부는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열매와 같다고 하셨다. 또 유다에는 시드기야와 그 방백과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쁜 열매와 같다고 하셨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나 유다에 남은 자들은 쫓겨나고 살해될 것이다.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5 장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순종하라고 전파했었다(1~7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멧세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70년간 머물게 될 것이다(8~14절).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가 유다 백성과 바벨론 군이 점령할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분부하셨다(15~33절).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마저 징벌하실 것이다. 바벨론은 26절에 “새삭”으로 불리운다. 백성들의 목자 혹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크게 부르짖을 것이다(34~38절).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얼마동안이나 말씀하셨는가?”

26 장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바깥 뜰에 서서, 만일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를 떠나신 것처럼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1~6절). 제사장들은 분노했으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과 백성들도 분노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해하겠다고 했으나(7~11절)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12~15절). 그 때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장로들은 선지자 미가가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라고 말했다(16~19절). 아마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한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죽인 사실을 예레미야의 동료들에게 말했는지 모르는데 본문

은 단순히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죽인 사실만 말하고 있다(20~23절). 어쨌든 아히감의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다(24절).

27 장

바벨론을 섬기려 하지 않는 나라들은 포로와 종이 될 것이다. “줄 혹은 사슬”은 포로를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되며 “명예”는 가축을 부릴 때 사용된다(2,11절). 이 줄과 명예는 포로 혹은 종이 된 백성들을 상징한다(1~11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군대에 굴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이 곧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사실 바벨론 군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기명들마저 곧 가져갈 것이다(12~22절).

“왜 예레미야는 줄과 명예를 그의 목에 얹었는가?”

28 장

하나나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2년 안에 유다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것은 거짓이었다(1~4절).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백성들은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이 종이 될 것에 대한 그림으로 그의 목에 나무 명예를 얹고 있었다(27:2). 하나나가 그 명예를 부러뜨렸으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자신이 백성들에게 쇠 명예를 얹을 것이며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은 쇠 명예는 부러뜨릴 수 없었다(10~14절). 예레미야는 그가 거짓말하는 선지자이며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나에게 말했다. 그는 두달 후에 죽고 말았다(1,17절).

하나나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을 징벌하셨다.

29 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들이 바벨론에 오래 머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전했다(4~7절). 그 서신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에 머무른 다음에 그들의 땅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10~14절).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도 또한 징벌하실 것이다(15~19절). 하나님은 두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합과 시드기야를 징벌하실 것이다(20~23절). 그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투옥시켜야 한다고 전한 스마야도 징벌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바나가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자(24~29절) 예레미야는 스마야의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스마야는 유다 백성이 풀려날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30~32절).

“왜 스마야는 예레미야에게 분노했는가?”

30 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했다. 그는 그들이 유다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큰 환란이 야곱의 후손에게 임할 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했다(1~11절).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다(12~22절). 여호와께서는 아울러 악한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23,24절).

31 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유다 바로 북쪽에 거하는 백성이요 야곱의 다른 열 아

들의 후손이었다(1~6절).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올 것이며(7~9절) 기뻐 노래하며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10~14절). “라헬이 애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큰 슬픔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 슬픔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때 끝날 것이다(15~20절). 이스라엘 백성은 찾기 쉬운 길로 돌아올 것이며 인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21,22절).

유다 백성은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와 그들의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23~26절). 많은 사람이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죄에 따라 징벌하실 것이다(27~3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율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8:8~12에서 다시 읽을 수 있다. 이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언약의 축복을 소유한 것이다(히 10:16~18).

사람들은 변화되어 의를 행하기를 원할 것이며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31~34절). 이 언약은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35~37절).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38~40절).

“왜 마태는 15절의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했는가?(마 2:18)”

32 장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다(1~5절). 그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하나멜에게서 발을 사라고 이르셨다. 하나멜의 발은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에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것을 사라고

권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밭을 산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바룩에게 건네주고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두라고 했다(6~15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 때 왜 하나님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는지 의아해했다(16~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므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나(26~35절) 후에 그 백성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여 크게 축복할 것이라고 하셨다(36~41절). 백성들은 다시 땅과 밭을 매매하게 될 것이며(42~44절) 그러므로 예레미야나 그의 후손이 그가 밭을 산 것을 보증하는 서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왜 예레미야는 그의 친척의 땅을 샀는가?”

33 장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그들의 고국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0절).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 거하며 즐거워할 것이다(10,11절). 많은 양떼가 언덕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12,13절). 그리고 메시야가 올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사건이 될 것이다(14~18절).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낮과 밤이 있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윗의 계보에 속한 분께서 항상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제사장의 권속은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19~26절).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며 그 약속들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34 장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라고 하셨다(1~7절). 왕이 유다의 모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했는데 그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던 중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곧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

았다. 아마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틈을 타서 그렇게 한 듯하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7절). 어떤 이들은 종을 자유케 하겠다는 언약을 보증하고자 짐승을 잡기까지 했으나 이후에 그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 그 성을 파괴할 것이다(8~22절).

우리가 하는 약속은 다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 다음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큰 죄이다. 만일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경 우리를 징벌하신다.

“왜 예루살렘 백성은 송아지를 죽였는가?(18절)”

35 장

예레미야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레갑 족속을 성전에 오게 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레갑 족속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는 것도 거절했다. 그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포도나무를 기르거나 포도원을 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유다 땅에 나그네와 같았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달랐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의 말을 순종했으나 유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야 했다. 레갑 족속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숭배를 없앤바 있다—왕하 10:15~28).

36 장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모든 맺세지

를 기록하라고 지시하셨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여 1년 뒤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1~10절).

미가야가 바룩이 예레미야의 멧세지를 읽는 것을 듣고 유다 방백들에게 그것을 고하였다. 방백들은 바룩을 불러와서 그 멧세지를 읽게 했다. 그런 다음 그와 예레미야는 피신해야 한다고 바룩에게 말했다(11~19절). 방백들은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바룩이 읽은 예레미야의 멧세지를 전했다고 이에 왕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여후디란 사람이 그 멧세지를 왕에게 읽어주자 그것을 듣던 왕은 칼을 취해 그 책을 갈래갈래 찢어 불에 던져 버렸다. 방백들이 그것을 태우지 말라고 만류했으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든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으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20~26절).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그 멧세지를 다시 기록하고 거기에 여호야김 왕의 처참한 죽음을 예고한 부분을 추가했다(27~32절).

유다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을 기록한 책을 불살랐다. 그것은 커다란 죄였으며 그는 오히려 그 형벌을 더욱 크게 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만일 그분을 거스려 싸우려 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왜 여호야김은 바룩이 기록한 책을 불태웠는가(23절)?”

37 장

애굽 군대가 유다 백성을 도우러 오자 바벨론 군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1~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6~10절).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로 그 성을 막 떠나려 할 때 시드기야 왕의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가 도망하려 했다고 했다(11~15절). 얼마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었다. 예레미야는 바

벨론 군대가 그 성을 함락하고 왕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담대히 그에게 얘기했다.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왕에게 자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구했고 왕은 그 요청을 수락했다(16~21절).

38 장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고 권하므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성 아래 바위 속 깊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1~6절). 왕 심복 중에 예레미야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해달라고 왕에게 구했다. 왕이 허락하여 그는 줄과 천 조각을 취하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했다(7~13절).

구스 사람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었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기서 죽게 하려 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종 악하고 잔인하다. 때때로 하나님은 소박한 이방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사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예레미야는 전쟁을 중단하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고 대답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항복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왕을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14~23절). 시드기야는 그들이 서로 얘기한 것은 말하지 말고 그가 옥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왕에게 부탁한 것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당부했다(24~28절).

“에벳멜렉은 왜 넓은 옷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보냈는가?”

39 장

마침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사들은 도주하려 했으나 적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들은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빼어 그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다. 바벨론 군은 소수의 빈민만 유다 땅에 남겨 두었다(1~10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현된다. 예레미야는 그가 계속 싸움을 고집하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그를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시드기야에게 경고했다(34:2~6; 38:18).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았으므로 눈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그달라를 유다 총독으로 삼고 예레미야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11~14절). 여호와께서는 또한 예벳멜렉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다(15~18절). 그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왕의 심복이었다.

40 장

바벨론 군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머물 것인지 바벨론에 갈 것인지를 물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다(1~6절). 이스마엘이란 악한 자가 유다 총독 그달라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 이에 백성들이 그달라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그달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체포하지 않았다(7~16절). 미스바는 바벨론 치하의 유다의 새 수도였다(6절).

“요하난은 그달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41 장

이스마엘과 그의 심복들이 그달라를 살해했다. 그들이 그를 죽인 것은 그달라가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직접 그 땅을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이리라(1~3절).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예베드리러 온 70인도 살해하고 그 시체를 큰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4~10절).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피한 다른이들을 구해주었는데 그들은 애굽에 갈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도피했다(11~18절).

42 장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레미야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었다(1~6절). 애굽으로 피신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유다 땅에 머물면 도움을 베풀 것이나 애굽에 가면 거기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7~22절).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가?”

43 장

요하난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는 예레미야와 바룩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1~7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고통을 당하였다. 바벨론 군대가 많은 백성을 죽이고 그 중 일부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다. 소수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남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모두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께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

하신 대로 거기서 죽었다.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다바네스란 마을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왕 타로의 집 문 가까이에 벽들로 낮고 평평한 지반을 지으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애굽과 싸워 이겨 예레미야가 쌓은 벽돌 위에 그의 보좌를 세울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8~13절).

44 장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다고 유다 백성에게 고했으나(1~6절) 그들은 애굽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7~10절).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죽게 할 것이다. 그들 중 아무도 유다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11~14절).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는 아무 환란도 겪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15~19절). 예레미야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환란을 보내셨으며(20~23절) 또 그들은 그 죄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일러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며, 다른 군대들이 와서 그들이 의지한 나라 애굽을 함락시킬 것이다(24~30절).

이 장은 애굽에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대한 마지막 기록으로 그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신을 숭배했는가?”

45 장

예레미야가 이 장을 기록한 것은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이며, 따라서 우리가 이 장에서 읽는 모든 내용은 44장에 나오는 사건들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큰 슬픔에 잠긴 바룩을 위로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나라를 축복 혹은 징벌

하실 때는 의롭게 행하신다고 그는 말해주었다. 바룩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유다 백성을 위해서나 큰 일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했다.

“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가?”

46 장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과 나라들에 일어날 일들을 아신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다. 후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다. 46~4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가까이에 거하는 다른 백성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장은 애굽에 대해 말해주며 47~51장은 여타 이방 나라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준다. 느브갓네살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는 그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퇴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선지자는 군대들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애굽은 교만하여 전쟁에서 이기리라 자신했건만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쳤다(2~12절). 예레미야는 애굽 백성들에게 느브갓네살이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에 대비하라고 일러주었다(13~24절). 하나님은 애굽 성읍들에 거하는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이나 후에 그들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25,2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나 이 당시는 아니었다(27,28절).

47 장

바벨론 군대가 북방에서 이르러 블레셋을 칠 것이다. 바벨론 군대

가 그들로 두로와 시돈의 성읍들에게서 도움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블레셋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48 장

이 장은 모압 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탐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다.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처럼 갑자기 덮쳐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4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모압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47절).

“모압은 영원히 파멸되었는가?”

49 장

“암몬” 백성은 교만하여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겼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나 다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1~6절).

“에돔” 백성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그들이 산중에 거하므로 아무 군대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7~22절).

하나님은 아랍의 “다메섹”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성이 파멸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젊은 자들이 거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며 모든 군대가 멸절될 것이다(23~27절).

바벨론 군대가 “그달”에 거하는 아랍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28, 29절).

느브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하술” 성을 쳐서 그 모든 부를 빼앗고 황폐되고 무너진 채로 버려둘 것이다(30~33절).

엘람 백성은 온 땅에 두루 방황하게 될 것이나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34~39절).

50 장

이 장과 다음 장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메대”로 불리는 북방 민족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1~3절).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분의 백성 유다를 징벌하는데 바벨론 백성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여 바벨론을 징벌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사람들을 징벌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민족들 혹은 나라들도 징벌하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벌하실 것을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축복이 임할 것임을 여섯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첫 축복은 4~7절에 나온다. 비록 바벨론이 열국의 “어미” 같았지만 적군이 바벨론을 쳐서 그 부를 빼앗아갈 것이다(8~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17~20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21~32절) 그분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33,34절)를 밝혔다. 바벨론 백성은 전쟁에서 멸절당할 것이며 “메대” 군대가 바벨론 성을 멸하고 황폐케 할 것이다. 열국 백성들은 메대 군대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35~46절).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방망이”라 불렀는가?”

51 장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으켜 자비를 베풀려 하지 않는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1~4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5절). 바벨론 성은 부유했으나 하나님이 메대 군대를 사용하여 그것을 멸하실 것이다(6~14절). 하나님은 모든 우상보다 크시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시다(15~19절).

하나님은 메대인들에게 말씀하셨으며(20~23절) 24절에서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듯 보인다. 그런 다음 그분은 25절에서 다시 바벨론에게 말씀하셨다. “멸망의 산”이란 바벨론 백성을 가리킨다. 바벨론은 파멸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옥과 벽이 파괴될 것이며 오직 들짐승만이 거할 것이다(25~37절).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배풀 큰 잔치에 대해서 얘기했다(38~40절). (메대 군대가 바로 그 밤에 바벨론을 함락시켰다—단 5장). “바다”는 메대 군대를 가리킨다. 그들은 바벨론 성에 이르러 모든 보물을 약탈해갔다(41~44절).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대 군대가 오기 전에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새 왕이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 주기까지 기다려야 했다(45~51절). 메대 군대는 위풍당당한 바벨론 성을 쳐서 우상을 파괴하여 지도자들을 죽이고 벽을 허물고 그들의 모든 오만한 말을 그치게 할 것이다(52~58절).

이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스라야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었다. 스라야는 그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준 다음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 했다. 이것은 바벨론 성이 파멸될 것을 보여줄 것이다(59~64절).

52 장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과(1~11절) 예루살렘의 멸망(12~16절)에 대해 다시 읽을 수 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바벨론 군대가 가지고 간 성전 기명에 대해서 언급했다(17~23절). 바벨론 군대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서 74명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다. 왕은 립나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24~27절). 예루살렘 백성의 일부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28~30절).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투옥된지 36년만에

옥에서 풀어주고는 그를 죽을 때까지 잘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그분께 범죄하는 백성들을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잔인한 바벨론 왕으로 여호야김에게 인자를 베풀게 하사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 돌보도록 하셨다.

“왕이 그를 옥에서 끌어내었을 때 여호야김의 나이는 몇이었는가?”

예레미야 애가

개요

1. 황폐케 된 예루살렘 성(1:1~11)
2. 예루살렘 백성의 기도(1:12~22)
 - (1) 부르짖음(12~17절)
 - (2) 죄를 자복함(18,19절)
 - (3) 하나님께 기도함(20~22절)
3. 예루살렘을 징벌하신 자 여호와(2:1~22)
 - (1)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1~13절)
 - (2)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14절)
 - (3) 이웃 백성들이 보고 조롱함(15,16절)
 - (4)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다를 징벌하심(17절)
 - (5)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참회와 회개를 촉구함(18,19절)
 - (6)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20~22절)
4.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권면((3:1~66)
 - (1)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벌하심(1~18절)
 - (2) 여호와의 자비(19~39절)
 - (3) 백성들이 죄를 자복함(40~47절)
 - (4)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예레미야의 슬픔(48~51절)

(5) 살해의 위협에서 보호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52~66절)

5. 유다 백성의 옛 영광(4:1~20)
6.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돔 백성은 멸망할 것이나 유다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4:21,22)
7.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5:1~22)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 무섭고도 처참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의 고통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애가서를 쓰게 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부르짖음과 눈물의 책이다.

예레미야서는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지자의 멧세지를 담고 있는데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서에 추가된 작은 책이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느끼던 마음의 고통을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당하는 백성들로 인해 슬퍼하며 애곡했다.

애가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과 함께 다음 사실들을 말해준다.

1. 애가서는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슬퍼했음을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2. 애가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의 그 고통과 슬픔의 일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1:12 말씀을 인용하실 수도 있으셨다.
3. 애가서는 미래에 주님을 따를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의 때로도 불리우는 대환란의 때에 고통을 당하면서 겪게 될 슬픔을 보여준다.

애가서 1,2,4장은 일반적인 글과 다르다. 각장마다 22절로 되어있고 각절마다 히브리어 문자 중 하나로 그 순서에 맞춰 시작된다. 3장은 66절로 되어있으나 마찬가지로 3구절씩 짝을 이루어 히브리어 문자로 순서대로 시작된다. 5장은 1,2,4장처럼 22절로 되어 있으나 문자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임의로 시작된다.

1장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 거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된다. 우상들은 예루살렘 백성을 도와주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돕겠다고 했으나 등을 돌리고 말았다(1,2절).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으며 이에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다(3~9절). 바벨론 군이 성전의 금은 기명을 취해 갔으며(10절) 그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양식이 없었다(11절). 유다 백성은 슬피울며 그들의 죄를 자복했으며(12~19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대적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20~22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그 죄로 인해 그분은 그들을 징벌하셨다. 이웃 나라들의 많은 백성이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먼저 징벌하셨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소유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징벌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백성보다 그분의 백성을 먼저 징벌하셨는가?”

2장

이 장은 백성들과 유다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은 그분의 “발등상”으로 불리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1

절) 성읍들을 멸하고(2절) 대적들을 막지 않으셨다(3절). 그리고 그분의 성전조차 보호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 짐승을 가져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취해 가셨다(6절). 거리의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을 잃고 쓰러져 죽었다(11,12절). 백성들의 환란이 극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그들을 위로하거나 기쁘게 할 수 없었다(13절). 어떤 여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자기 자식을 먹기까지 했다(20절).

3장

여기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우 진노하셨다(1~18절). 그들은 그분의 자비만을 바랄 뿐이었다(19~33절).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신 것은 의로운 처사였다(34~39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굴복하고 대적을 징벌해달라고 그분께 구할 것을 촉구했다(40~66절).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가?”

4장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전에는 이름답고 놀라웠으나 이제는 누추하고 황폐하다고 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했으며 어떤 여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버려둔채 달아났다(3,4절). 어떤이들은 양식이 없어 죽었으며(5절) 어떤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9절). 귀인들은 평민과 다를바 없었으며(7,8절) 어떤 여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그 자식을 먹기까지 했다(10절). 백성들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다고 장담했지만 바벨론 군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12절). 이 모든 환란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다(13~16절). 그들은 애굽 군대가 도와줄 줄로 기대했으나 애굽은 그들을 돕

지 않았다(17절). 바벨론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18,19절)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기를 부으신” 자로 불리운다(20절). 에돔 백성은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칠 때 기뻐했으나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을 징벌하시고 시온 혹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21,22절).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먼저” 유다 백성을 징벌하셨다. 그분은 모든 백성과 나라의 하나님인 까닭에 에돔 백성을 징벌하셨다. 그분은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징벌하신다. 그분은 큰 악을 행하는 어떤 백성 혹은 나라를 즉시 징벌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죄를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그에 응당한 징벌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한가지 죄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애굽이나 에돔 백성이 환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었는가?”

5장

1~18절에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임한 환란으로 인해 슬피 울었다. 그들은 양식과 모든 생필품 값이 너무 비싸 한숨지었으며(4절) 아무 샅도 없이 일해야 했다(5절). 그들의 주인은 잔인했고(8,11,12절) 백성들은 가련하게도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었다(9,10절). “그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이켜 자비를 구했다(19~22절).

옛 히브리어 성경에는 21절이 22절 뒤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그 성경에 따른다면 이 애가서는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마감될 것이다.

에스겔

주요 부분

1.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1:1~3:21)
 - (1)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1:1~28)
 - (2) 에스겔의 유다 파송(1:29~3:21)
 - ① 백성들의 거듭된 거역(1:29~2:7)
 - ②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2:8~3:3)
 - ③ 백성들의 성향에 대한 추가 기록(3:4~11)
 - ④ 에스겔의 파수꾼 역할(3:12~21).
2.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3:22~24:27)
 - (1)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3:22~27)
 - (2) 박석모형을 통한 경고(4장)
 - (3) 삭발의 비유를 통한 경고(5장)
 - (4) 거짓 신들의 파멸과 적은 무리의 구원(6장)
 - (5) 임박한 바벨론 군대의 공격(7장)
 - (6) 성전에서의 우상숭배 광경(8장)
 - (7)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경고(9장)
 - (8)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10장)
 - (9) 악한 방백들의 헛된 조언(11:1~13)
 - (10) 일부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11:14~21)
 - (11) 영광의 구름의 감람산 강하(11:22~25)

- (12) 이사(移徙)의 비유를 통한 경고(12장)
 - (13)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13장)
 - (14)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14장)
 - (15)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한 경고(15장)
 - (16) 예루살렘의 거둬진 불순종과 패역(16장)
 - (17)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비유(17장)
 - (18)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실례(18장)
 - (19) 유다 마지막 왕들을 위한 슬픔의 노래(19장)
 - (20) 이스라엘의 거둬진 거역(20:1~31)
 - (21) 정결케 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계획(20:32~44)
 - (22) 유다와 암몬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 예고(20:45~25:32)
 - (23) 예루살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경고(22장)
 - (24) 음부와 같이 행한 두 성읍에 대한 비유(23장)
 - (25)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24:1~14)
 - (26)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에스겔의 설명(24:15~27)
3. 일곱 민족에 대한 심판 경고(25:1~32:32)
- (1) 암몬(25:1~7)
 - (2) 모압(25:8~11)
 - (3) 에돔(25:12~14)
 - (4) 블레셋(25:15~17)
 - (5) 두로(26:1~28:19)
 - (6) 시돈(28:20~26)
 - (7) 애굽(29:1~32:32)
4.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33~39장)
- (1) 에스겔의 파수꾼 역할(33장)
 - (2)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34장)

- (3) 에돔에 대한 심판 경고(35장)
- (4)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에 대한 약속(36장)
- (5) 마른 뼈의 이상(37:1~14)
- (6)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결합에 대한 비유(37:15~28)
- (7)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 경고(38,39장)
- 5. 축복의 천년 시대(40~48장)
 - (1) 하나님의 전의 재건(40~44장)
 - (2)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통치(45~48장)

개요

1. 에스겔의 소명(1:1~3:21)
2.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3:22~24:27)
3. 일곱 민족에 대한 심판 경고(25:1~32:32)
4.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계획(33~39장)
5. 축복의 천년 시대(40~48장)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부시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으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두번째 공격할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 때는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11년 전이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온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거주했다. 에스겔은 27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백성들은 그들이 곧 고국에 돌아갈 줄로 생각했으나 에스겔은 그들이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유다의 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곧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에스겔은 그가 본 놀

라운 환상을 얘기해줌으로써 그 사실을 선포했다. 그는 또한 그를 눈여겨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밝게 빛나는 구름이 성전 위에 걸친 것을 보았는데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 범죄했으며 그분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다. 그 구름이 점점 이동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부득불 떠나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성전을 더럽혔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 그들을 멸하실 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는 열국을 징벌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잔인했다. 에스겔은 이 부분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기록했다.

끝으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의 고토 팔레스타인에서 재결합시키실 때에 대해서 예언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지막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거할 것이다. 이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천년동안 다스리실 천년왕국 시대를 대망한다.

에스겔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의해 기록된 다른 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여러 장의 서두에 주어진 연대나 시대를 주목해야 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에 걸친 예루살렘 공격

1차. 여호야김 - 왕하 24:1,2; 대하 36:6,7

2차. 여호야긴 - 왕하 24:10~16; 대하 36:9,10

3차. 시드기야 - 왕하 25:1~7; 대하 36:11,17

1장

에스겔서 1~24장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하기 전에 기록되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중에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기 6,7년 전에 그 운명을 선포했다. 그가 이 글을 기록할 즈음에는 아마 30세쯤 되었을 것이다(1:1).

1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을 보았는데 각각 네 얼굴(사자, 소, 독수리, 사람)과 네 날개와 곧은 발과, 그리고 날개 아래의 손이 있었다. 그는 영광의 주님께서 앉아계신 보좌를 보았으며, 각 생물마다 곁에 바퀴가 있고 각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을 종합하면 땅 위에 바퀴가 있고 네 생물이 궁창을 떠받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차(throne-car)였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았으며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이 장의 어떤 내용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된 교훈은 분명하다. 성령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적이 없으나(요일 1:18) 우리는 이 장에서 그분이 매우 위대하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2장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분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에스겔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루마리 모양의 작은 책을 먹으라고 이르셨다. 이 책에는 유다 백성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슬픈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두 다른 선지자는 누구인가?”(렘 15:16;

계 10:10)

3장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두루마리책을 먹었다(1~3절).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을 백성(여기서는 유다가 이스라엘로 불리운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다고 재차 말씀하셨다. 그는 유다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나 바벨론에 이미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다(4~11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바벨론 성 부근의 그밭 강가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로 데려가셨다. 에스겔은 그들과 7일 동안 함께 있었다(12~15절).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호자 혹은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강하게 경고할 책임을 맡게 하셨다(16~21절). 이어서 에스겔은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때까지 무리에 의해 졸로 매인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22~27절).

하나님은 에스겔을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경계를 서는 병사처럼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할 것을 악인들에게 경고하라고 그에게 이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마 11:20~24)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행 2:36,38)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본을 좇아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에스겔은 파수꾼과 같았는가?”

4장

하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 전쟁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내보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그는 박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성을 그렸다. 그리고 전철(煎鐵)을 가져다가 그와 그 성 사이를 막는 철성(鐵城)을 삼았다(1~3절).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어야

했다. 1일은 1년을 가리켰으나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9~17절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동안 백성들이 당한 처참한 기근을 말해준다. 각 사람에게 소량의 식량과 물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쇠똥으로 떡을 구울 것이다.

“왜 에스겔은 여러 날 동안 모로 누웠는가?”

5장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였다. 예루살렘 백성의 3분의 1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불로 그의 머리카락의 3분의 1을 살랐다. 그는 또 백성의 3분의 1은 전쟁에서 칼로 죽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칼로 다른 3분의 1을 잘라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2,12절). 소수 잔존자만 예루살렘에 남을 것이나 그들 중 일부도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3,4절). 이 모든 두려운 일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그들은 주변의 열방보다 더 큰 특권을 소유했으나 더 악하게 행동했다(5~9절). 식량이 떨어지면 많은 이들이 인육(人肉)까지 먹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혔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11~13절). 열방이 유다를 조롱하고 학대하고 그 중 일부를 죽일 것이다(14~17절).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셨는가?”

6장

하나님은 그들이 종종 산에 우상을 세운 까닭에(호 4:13)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므로 그 땅을 징벌하실 것이다(1~7절).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 스스로를 증오할 것이다(8~10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인해 나머지 백성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

다. 그분은 질병과 전쟁과 극심한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11~14절).

하나님은 사람을 짓기 전에 많은 영을 지으셨다. 그분은 그 영들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셨으나 일부 영들이 그분께 반역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그분을 배반했다. 많은 이들이 우상과 악한 영 혹은 귀신을 숭배한다(고전 10:20).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분을 반역한 영들을 숭배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어야 한다(행 14:15).

7장

때가 이르렀고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이 여호와께로서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1~13절). 지도자들이 그 하수인들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지시해도 아무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고 나머지는 약하고 두려워했다(14~18절). 그들의 돈이 그들을 돕지 못했다(19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으나 백성들은 그 안에 우상을 들여놓음으로 그것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방인인 바벨론인에게 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 보물을 약탈하고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20~22절). 왕과 방백, 선지자, 제사장, 장로와 백성 등 모든 부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23~27절).

8장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마치 그가 그곳에 있듯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1. 그는 성전 안에서 가증한 우상, 즉 여호와와의 투기를 격발케 한 우상을 보았다(1~3절). 여호와 자신이 그곳에 계셨으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알고 매우 슬피

하셨다(4~6절).

2. 선지자가 본 두번째 장면은 성전 뜰 안이었는데 유다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벽에 그려진 가증한 그림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7~13절).
3. 세번째 장면은 북쪽 문이었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바벨론 신 담 무스에게 절하고 있었다(14,15절).
4. 성전 안뜰에서는 25인이 태양에게 절하며 태양숭배자들이 행하는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16~18절).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다. 제사장들은 악한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낼 책임이 있었다. 왕조차도 제사장들에 의해 쫓겨났다(대하 26:20).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이상을 보여주시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멸하셔야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징벌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에스겔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어떤 가증한 죄를 보았는가?”

9장

이 장에서 에스겔은 사람과 같은 여섯 천사들이 8장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바벨론이 곧 그러하듯이 북쪽에서 왔다.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나, 하나님이 우상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므로 이제 그것은 성전 지성소를 떠나버렸다. 그 영광의 구름은 성전뜰 앞 문으로 나아가 뜰을 그 찬란한 빛으로 가득케 했다(3절).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여 다른이들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자 애썼다. 우선 이 신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마에 표를 받았다(4절). 그런 다음 여섯 천사들이 노인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5~7절). 에스겔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

려두거나 붙잡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8~11절).

“하나님은 에스겔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셨는가?”

10 장

이 장은 1장에 묘사된 보좌차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서 생물들은 “그룹”으로 불리운다.

우리는 9:2,3에서 가는 배움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읽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룹 사이에서 솟불을 취하여 예루살렘 위에 홀으라고 명하셨다(1,2절). 이것은 그 성에 쏟으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었다. 3~5절은 9:3에 언급된바 있는 그 영광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금 말해준다. 이어서 에스겔은 보좌차의 그룹과 바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묘사했으나(6~17절) 그 모양이 어떠한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 영광의 그룹은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18,19절). 에스겔은 그 그룹이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과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11 장

25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1~3절). 그들의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냉혹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라는 분부를 받았다(4~12절). 블라다가 그 25인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다. 그가 죽자 에스겔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13절). 하나님은 자신이 정녕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보고 고토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로 우상숭배의 죄를 씻도록 하실 것이다(14~21). 이 장 마지막에서 그 영광의 구름이 성에서 나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갔다(22~25절).

영광의 구름은 갑자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취해가기를 원치 않은 듯이 천천히 떠나갔다. 그 적합한 위치는 성전 안인데(8:4) 그것이 성전 앞문으로 나와(9:3) 동문으로 가더니(10:19) 마침내는 성전 동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11:2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그분의 성과 성전을 떠나셨으며 주님께서 오실 때 새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43:2).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본다.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벧전 4:17).

“영광의 구름은 언제 처음으로 성전에 임했는가?”

12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주해야만 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었다(1~7절). 에스겔은 밤중에 벽을 뚫어 구멍을 뚫으로써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그 성에서 달아날 것과 그 때 그가 땅을 볼 수 없을 것을 예언했다(8~12절). 그러나 적군이 그를 사로잡아 바벨론에 데려갈 것이다(물론 그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13절). 이것은 그대로 정확히 일어났다. 바벨론 군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그 눈을 빼고 갈대아(혹은 바벨론)로 데리고 갔다(왕하 25:7).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많은 수가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일부는 기근이나 무서운 질병에 죽을 것이다(14~16절). 에스겔은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이는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이었다(17~20절).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으나 에스겔은 모든 일이 성취되고 모든 예언이나 이상이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 미래의 어느날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21~28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이르셨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주님께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13 장

이어서 에스겔은 남자(1~16절)와 여자(17~23절)를 포함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기록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예언을 스스로 지어냈다(1~5절). 그들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말한다고 스스로 주장했으나 그것은 거짓이었다(6,7절).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곧 무너질 벽에 회칠을 한 죄값으로 파멸을 당할 것이다(8~16절). 여선지자들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팔뚝에 방석을 꿰어매고 그 머리에 수건을 두르게 했다. 그들은 마술로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악한 여인들을 멸하실 것이다(17~23).

“여선지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려 했는가?”

14 장

백성의 장로들 중 일부가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이 에스겔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응답하겠다고 선언하셨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우상숭배자들에게 대답한다면 그는 속임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은밀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1~11절).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비록 이 의인

들이 그 우상숭배자들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기근과 전쟁과 무서운 질병을 보내실 것이다(12~20절). 하나님은 모든 범죄한 나라에 그러한 징벌을 보내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실 텐데 이는 그분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졌기에 그 백성들이 더욱 조심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에 의롭다고 증거할 수 있는 소수를 남겨두실 것이다(22,23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권속 속에 속한 이 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스겔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므로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15 장

예루살렘 백성은 포도나무와 같았다. 포도나무는 과실을 맺는데만 유용하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가구나 못을 만드는데 유용하지 못하다. 혹 약간 불로 태운다해도 여전히 쓸모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다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바벨론이 그 성을 칠 때 얼마간 불태워질 것이다(1~8절).

16 장

여호와께서 여기서 유다 모든 백성의 표본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어린 여아(女兒)와 젊은 처녀로 말씀하셨다. 처음에 그녀는 그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고

셋기려고도 하지 않은 어린아기와 같았다(1~5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녀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이주셨다(6,7절). 그녀가 자라서 처녀가 되자 여호와께서 그녀와 결혼하여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셨다(8~14절).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는 한 남자의 아내가 음부가 된 것과도 같았다(15~22절). 그녀는 다른 나라들과 음행을 범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23~29절). 창기는 보통 돈을 받고 몸을 내주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죄를 저질렀다(30~34절). 하나님은 그녀가 값을 지불한 이방 나라들과 함께 그녀를 멸하심으로 그녀를 심판하실 것이다(35~43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무서운 죄는 헷족과 야모리족과 사마리아, 혹은 에돔보다 더 심했다(44~52절).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다. 그들은 장차 올 날에 다시 건설되어 큰 성읍들을 이룰 것이다(53~58절). 그분은 그분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유다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를 배반한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다(59~63절).

하나님은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셔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다른 백성들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죄악된 아내와 같았는가?”

17 장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전해주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다. 큰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취하여 낮은 땅에 가지고 갔다. 그 독수리는 땅의 종자도 취하여 좋은 땅에 심었다. 거기서 그 종자가 자라나 온 땅에 퍼진 포도나무가 되었다(1~6절). 포도나무는 다른 독수리를 향해 자라기 시작했으나 더 이상 썩 잘 자라지 못했다(7~10절). 에스겔은 11~21절에서 이 비

유를 설명했다. 첫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다(12절). 그는 유다 왕 여호야긴(높은 가지)을 예루살렘(레바논)에서 바벨론(장사하는 땅)으로 취해갔다. 그는 또한 시드기야(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유다 왕으로 세웠다(13:2; 왕하 24:12,13,17). 시드기야는 한 동안 유다 왕으로 있다가 애굽 왕(또 다른 큰 독수리)에게로 돌이켜 유다를 바벨론에서 건져주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대하 36:13; 사 30:1,2). 그 결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16~21절). 그는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로였다(19절). 22~24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작은 가지”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는 다윗의 가문의 후손일 것이다. 그는 풍성한 나무일 것이며 백성들은 그 가지 아래서 안전할 것이다(23절).

18 장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속담이 있었다(1,2절). 하나님은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시고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3,4절).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다.

1. 의롭게 사는 사람은 살 것이다(5~9절).
2. 의인의 악한 아들은 죽을 것이다(10~13절).
3. 불의한 자의 의로운 아들은 살 것이나(14~17절) 그 불의한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18절).
4.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살 것이다(21~23절).
5. 의인이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다(24절).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분은 악인도 죄에서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공평하다는 것과,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셨

다(25~32절).

여러분은 이 구절들이 출애굽기 20:5에서 가르쳐진 교훈을 변경 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자와 그들의 자손이 이생에서 “그의” 죄의 결과를 당한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성령께서 에스겔 18장을 통해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징벌하시며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이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18장의 중요한 교훈이다.

“나는 부모가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가?”

19 장

이것은 유다 마지막 왕들을 위한 애가(哀歌)이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마지막 네 왕 중 셋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다. 열방은 사자들이고 그들의 통치자들은 젊은 사자들이다(2절). 젊은 사자가 된 사자새끼(3절)는 아마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인 듯하다(4절). 다른 사자새끼는 여호야긴 같은데 어떤 교사들은 여호야긴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9절에서 이 젊은 사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 어미(10절)는 전날에는 풍성한 포도나무였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한 때 그녀는 강한 왕들(가지들)을 소유했으나 바벨론(동풍)에 의해 파멸될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광야에서~11~14절).

20 장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원한

다고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분께 여러 차례 반역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1. 그들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며(4~8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을 염려하여 거기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다(9절).
2.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으며(10~13절) 다시금 여호와께서는 이방인들 까닭에 노를 거두셨다(14~17절).
3.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자손도 여호와께 반역했으며(18~21절)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22~26절).
4.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으나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27~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다(32절). 그분은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불러모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의인은 용납하고 악인은 징벌하실 것이다(37,38절). 그 백성은 그들의 땅에 돌아올 것이며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39~44절).

45절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의하면 21장 1절이다. 45~49절에서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불타는 삼림 속의 나무처럼 파멸될 것인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치러 올라올 것을 가리킨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싶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49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믿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차례 자비를 베푸셨다. 이것이 그들

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일까?”

21 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분명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보내실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슬피 탄식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해할 칼을 준비했다(8~13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기까지 많은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14~17절). 18~24절에서 우리는 바벨론 왕이 그 땅을 향해 진군해오는 것을 본다. 그는 두 방향으로 나뉘는 길목에 이르렀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는 세가지 방법으로 점을 쳐보았다: (1) 화살 두개를 취하여 하나는 예루살렘을, 하나는 랍바를 향해 놓았다; (2) 그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물었다; (3) 죽임당한 짐승의 간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시드기야는 25절의 악한 왕이다. 그는 왕으로서 권위를 상실할 것이며, 다스릴 “권한”을 가지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25~27절).

바벨론 왕은 이어서 암몬 족속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28~32절).

22 장

1~12절은 예루살렘 백성의 죄의 목록이다. 그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침으로 피를 쏟고, 우상을 숭배하고(3,4절), 사람들을 죽이고(6절), 부모를 경멸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냉혹했다(7절).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고(8절), 거짓을 말하고,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9절), 심지어 근친상간을 범하고(10,11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고리대금을 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12절). 이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이다(13~16절). 예루살렘은 뜨거운 불로 금속을 녹일 때 사용하는 풀무와 같아서 아무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쓸모없는 금속과 같다고 말씀하셨다(17~22절). 선지자들(25절), 제사장들(26절), 성의 지도자들(27절), 모든 백성(29절) 등 모든 부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으나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셨다(30,31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속 찌기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23 장

이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음부인 두 딸에 대한 비유이다. 오홀라는 사마리아였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었다(1~4절). 오홀라는 말을 타고 다니는 앗수르의 잘 생긴 자들의 음부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녀를 그 연모자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은 그녀를 살해했다(5~10절). 오홀리바는 훨씬 더 악했다. 그녀는 우상을 숭배하고 언니보다 더 심하게 간음을 행했다. 먼저 그는 바벨론 사람의 형상을 사랑했으며 이어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그녀의 땅에 초청했다. 그녀는 애굽에서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을 바벨론인에게 내어주어 간음을 행했다(11~21절). 그 결과 하나님은 그녀가 연모하는 바벨론인을 사용하여 그녀를 멸하실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사모한 바로 그 사람들이 그녀를 잔인하게 대할 것이다(22~35절). 두 자매가 같은 죄를 범했으나 간음과, 살인과,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과(37절),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한 것과(38절),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과(39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대신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간음을 행한 것”(40~44절) 등이 그러했다. 하나님은 열방에서 의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이 두 자매를

징벌하사 그들로 응당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이다(45~49절).

24 장

에스겔은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치기 시작한 날에 꿩을 가마의 비유를 전했다. 가마는 예루살렘이었고 고기 조각은 백성들이었다. 가마가 거의 꿩고 있었다. 가마 속에는 녹이 있었는데 이는 백성들의 무서운 우상숭배 죄를 말해주었다. 가마 속의 모든 것이 부어질 것이며 가마 자체도 녹을 제거하기 위해 불태워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로 우상숭배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애쓰실지를 보여준다(1~14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네 눈에 기뻐하는 것”)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다음 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이르셨다(15~18절). 백성들은 에스겔에게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성전)을 멸하고 그들의 아들 딸이 죽임을 당할 때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19~24절). 25~27절은 누군가 그에게 대적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 에스겔이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듯하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이르셨는가?”

25 장

25~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곱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게 된다. 첫째 나라는 암몬이었다. 암몬 족속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서 많은 사람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갈 때에 즐거워했으며 따라서 바벨론 군(동방 사람)이 그들도 멸할 것이다(1~7절). 둘째 나라는 모압이었다. (8절에서 “세일”은 생략되어야 한다). 바벨론 군은 그들의 땅도 취할 것이다. 암몬 족속에게 일어난

동일한 일이 모압 족속에게도 일어날 것이다(8~11절). 셋째 나라는 에돔이었다. 에돔은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은 까닭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12~14절). 넷째 나라는 블레셋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유다 백성의 대적이었으므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15~17절).

26 장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다섯째 백성은 두로 성의 사람들이었다. 이 성은 해변에 위치했다. 우리는 26:1~28:19에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두로 백성은 유다의 대적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경제력을 가로챌 것으로 기대했다(1,2절).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사용하여 이 성의 백성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4~6절에서 예언된 일들은 정확히 성취되었다. 우선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쳤다(7~11절). 그러나 두로 백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해변 근처의 작은 섬으로 도피했다. 이 섬도 두로로 불리웠다. 거기서 그들은 250년 동안 평안히 지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제가 옛 성 두로에 남은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넣음으로 그 섬에 이르는 길을 만들었다(12~14절). 다른 열방들은 두로가 멸망한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할 것이다(15~21절). 하나님이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다시 두로를 재건하지 못했다.

“알렉산더가 두로 성을 파괴시켰다. 그것은 언제 재건되었는가?”

27 장

1~9절은 두로 성이 아름다운 배와 같았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날라온 진귀한 재료들로 건설되었다. 10,11절은 두로의 군사에 대해 말해준다. 이 성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와 무역을 했다(12~26상). 그러나 동풍(바벨론 군대)이 불어와 이 성을 멸할 것

이다(26하, 27절). 다른 나라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랄 것이다(28~36절).

28 장

두로 왕은 매우 교만하고 지혜롭고 부유했으나(1~6절) 그러한 그를 바벨론 군이 멸망시켰다(7~10절). 그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이다(요일 2:22; 살후 2:3~10 참조). 두로 왕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나 극도로 교만하기에 멸망당했다. 많은 성경 학도들은 11~19절이 사실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경위를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시돈 성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여섯째 부류였다. 시돈은 두로 근처의 해안 도시였다. 하나님은 많은 수가 질병으로 죽고 일부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들의 성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20~23절). 시돈 성은 오늘날 여전히 그곳에 있으나 두로는 완전히 멸망했다(26:21 참조). 24~26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지상 왕국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움을 입고 복을 받을 것을 말해준다.

2절과 12절에서 두차례 두로 왕이 언급되었다. 두로 왕은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극도로 교만해져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사 악한 두로 왕 배후에 도사린 실제 세력인 사단에 대해 말하도록 하신 듯하다. 사단은 에덴에 있었다(13절). 하나님은 사단을 지으시고 그를 지위가 높은 그룹 혹은 천사로 두셨다(14절). 그러나 죄와 교만이 사단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한 것을 살펴보았다(사 14:13,14).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한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를 대적하면 우리 곁을 떠날 것이다(약 4:7; 벰전 5:8,9).

“두로 왕은 누구의 모형인가?”

29 장

애굽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라였다(29:1~32:32). 하나님은 애굽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가혹하게 심판하실 생각인 것 같다.

바로는 나일 강에 사는 크고 위험한 동물인 악어와 같았다. “고기”는 애굽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애굽인은 부러진 갈대지팡이 같아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6~9상반절). 바로가 몹시 교만하므로 하나님이 애굽 땅을 40년간 버리실 것이다(9하~12절). 그 후에 그 백성을 모으실 것이나 애굽은 다시는 제국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13~16절). 느부갓네살은 두로 성을 취하려고 모진 애를 썼으나 그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섬으로 피하는 바람에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댓가로 그에게 애굽 땅을 주실 것이다(17~20절). 21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만일 “그 날”이 24:27의 그 날이라면 그것은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취할 날이다. 그 때에 선지자는 유다에 대해 다시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30 장

바벨론군이 애굽인과 그 모든 우방을 몰리칠 것이다(1~9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땅에서 모든 것을 멸할 장본인일 것이다(10~12절). 13~19절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애굽 성읍 중 가장 중요한 성읍들의 이름을 본다: 놉(넵피스로도 불리운다), 바드로스(애굽 남부에 위치한 듯하다), 소안(타니스), 노(테베), 신(펠루시엄), 아웬(헬리오폴리스), 비세셋(부바스티스를 가리키는 듯하다), 드합느헤스(여러해 전에 다프네로 불리운 도시인 듯하다) 등. 20~26절은 애굽이 단번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먼저 하나님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 바로의 한 팔을 꺾으시고 바벨론의 애굽 침입을 통해 남은 한 팔을 꺾으셨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팔을 꺾으셨는가?”

31 장

바로는 왕이 되자 누구 같았는가? 그는 앗수르 왕 같았다. 앗수르 왕은 다른 모든 나무 위에 우뚝 선 백향목같이 다른 모든 왕 위에 뛰어났다(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을 도우사 앗수르 왕을 물리치게 하셨다(10~14절). 그는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부로 내려갔다(15~17절). 바로는 그 앗수르 왕과 같았다. 그 역시 강대했으나 멸망을 당하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18절).

32 장

바로는 자신이 사자같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를 악어로 부르시고 그물로 그를 잡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이 애굽 백성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멸하고 그 땅을 황폐하고 공허케 할 것이다(1~16절). 애굽 백성은 음부로 보내질 것이다. 17~31절은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앗수르 백성과(22,23절), 엘람 백성(24,25절), 메섹과 두발 백성(26~28절), 에돔 백성(29절), 시돈 백성(30절) 등이 그곳에 있다. 애굽은 이 세상에서는 큰 제국이었으나 음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31,32절). 에스겔은 이로써 일곱 나라들(그리고 그 성읍들)에 대한 예언을 끝마쳤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인 세상을 상징한다. 우리는 세상과 그 쾌락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요일 2:15~17).

33 장

이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 에스겔은 파수꾼과 같아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경고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나 그것은 에스겔의 잘못이 아니다. 만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이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실 것이다(1~9절).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공정히 행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분은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악인은 용서할 것이나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의인은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0~20절).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21,22절; 24:27 참조).

23~29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소수 유다인들에 대한 말씀인 듯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불과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셨다고 했다. 그들은 수가 많았으며 따라서 그 땅을 소유할 권리가 더 많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수가 얼마이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제거함으로써 그 땅을 깨끗케 하셔야 했다.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기 좋아했으나 그 말에 순종하기는 원치 않았다. 그의 말이 성취된 연후에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30~33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계병처럼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이르셨다(3장).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이상을 본 후의 일이었다(1,2장). 에스겔은 유다 백성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4~24장).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벨론 군에게 넘겨주셨다. 이 일은 에스겔을 매우 슬프게 했는데 그는 자신의 사역이 모두 소용없었는지 의아해했을지 모른

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같은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으나 에스겔은 계속 경고해야 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세상에 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파수꾼을 징벌하시는가?”

34 장

“목자들”(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양들(백성)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다스렸으며 양들은 흩어져버렸다(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목자들에게서 자신의 양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7~10절). 그분은 그들의 목자-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회복시키고 다스리실 것이다(천년왕국 동안, 11~16절). 그분은 또한 이기적이고 냉혹한 거짓 목자들에게서 자신의 참 양들을 구원하실 것이다(17~24절). 23,24 절의 “나의 종 다윗”은 다윗의 후손인 주 예수님을 가리킨다. 25~3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다스리실 때 양들이 안전과 모든 필요를 가지게 될 것을 보여준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라고 하셨다. 그분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거짓 목자들이었다. 그분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 살아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요 10:8,11,28).

“이스라엘 목자들은 왜 백성들을 소홀히 여겼는가?”

35 장

세일 산은 에돔 땅의 또다른 이름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항상 유대인을 증오했고 예루살렘이 파멸당할 때 기뻐했으므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도피한 자들에게 냉혹했으며 이스라엘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도모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 자신의 땅이 파멸되고 영원히 버려질 것이다.

36 장

사람들은 주로 25~30절의 내용 까닭에 이 장을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땅을 취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 땅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1~7절). 그 성읍과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거할 것이다. 그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들의 땅은 많은 식물을 낼 것이며 그리고 열방이 더 이상 그들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8~15절).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16~38절).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있었다. 열방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말을 했다(16~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깨끗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새로운 출생)을 주고 그들을 더러운 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풍성한 곡식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다시는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럴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22~32절).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사 다시 그곳에 심으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33~36절). 그 때에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가축떼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37,38절). 이 예언들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하셨다(요 3:10). 여기 에스겔 36:26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11:19와 18:31도 다시 읽어보라.

“어떻게 내가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37 장

1,2절의 이상을 통해 에스겔은 한 계곡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뼈들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에게 대언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에 살과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7,8절). 그가 다시 대언했더니 이번에는 몸에 생기가 들어갔다(9,10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과, 그런 다음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11~14절).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개를 취하라고 하셨다. 하나는 유다를 상징했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요셉 혹은 에브라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다.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연결하여 하나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345년 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던 이래 처음으로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었다. 한 왕(메시아)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구원을 얻고 깨끗함을 입고 회복케 될 것이다(15~23절). 다윗(주 예수 그리스도)이 그 왕이 될 것이며 백성들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성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24~28절).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시 불러모아 그들의 옛 땅으로 돌리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처음에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 오실 것이며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는가?”

38 장

이 장과 다음 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래 대적들을 멸하실지를 보여준다. 곡은 이 대적들의 우두머리이고 마곡은 그의 나라이다.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온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

께서 다시 지상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은 곡과 그의 동료들로 전쟁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1~6절).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남하할 것이다. 유다인들은 아무 성벽이 없는 성에 살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7~16절). 그 때 곡의 군대가 그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심히 노하사 그 대적들을 대항해 싸우실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이실 때 곡과 그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불과 큰 폭풍을 보내실 것이다(17~23절).

39 장

곡의 대군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1~6절). 그 후로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일절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7,8절). 곡의 군사들의 무기가 산마다 가득 널려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7년간 땀감으로 사용할 것이다(9,10절). 그 모든 시체를 사해 동편의 “곡의 무리의 골짜기”에 장사지내는 데만 7개월이 걸릴 것이다(11~16절).

새와 들짐승이 시체를 먹는 잔치를 즐길 것이다(17~20절). 그 날에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지 못하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21~24절). 이스라엘은 진정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잊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라고 고백할 것이다(25~29절).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보좌에 계셔서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대적이 그들을 향해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실 것이나 바로 그 때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장래의 이스라엘의 큰 대적의 우두머리는 누구이겠는가?”

40 장

이 장과 다음 두 장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에 대해 많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 세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알 수 있다.

1~4절에서 에스겔은 천년왕국 동안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거기에는 두개의 뜰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뜰 안에 있었다.

5절 - 성전 바깥뜰의 벽

6~16절 - 바깥뜰의 동문

20~23절 - 바깥뜰의 북문

24~27절 - 바깥뜰의 남문 (서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28~31절 - 안 뜰의 남문

32~34절 - 안 뜰의 동문

35~37절 - 안 뜰의 북문

38~43절 -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북문 입구의 식탁들

44~47절 - 북문과 남문의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

48, 49절 - 성전 입구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에스겔은 솔로몬 왕에 의해 세워진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실 것이라고 유다에게 경고했다.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세워질 놀라운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을 에스겔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을 주셨는가?”

41 장

40장은 성전 주위의 뜰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41장은 성전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1,2절 - 성전의 성소
- 3,4절 - 지성소
- 5~11절 - 각 층마다 30개의 골방이 있고 전체가 3층으로 되어 있음
- 12절 - 성전 서쪽에 작은 건물이 있음
- 13~15상반절 - 성전과 그 둘레의 뜰에 대한 측량
- 15하~26절 - 성전 내부

4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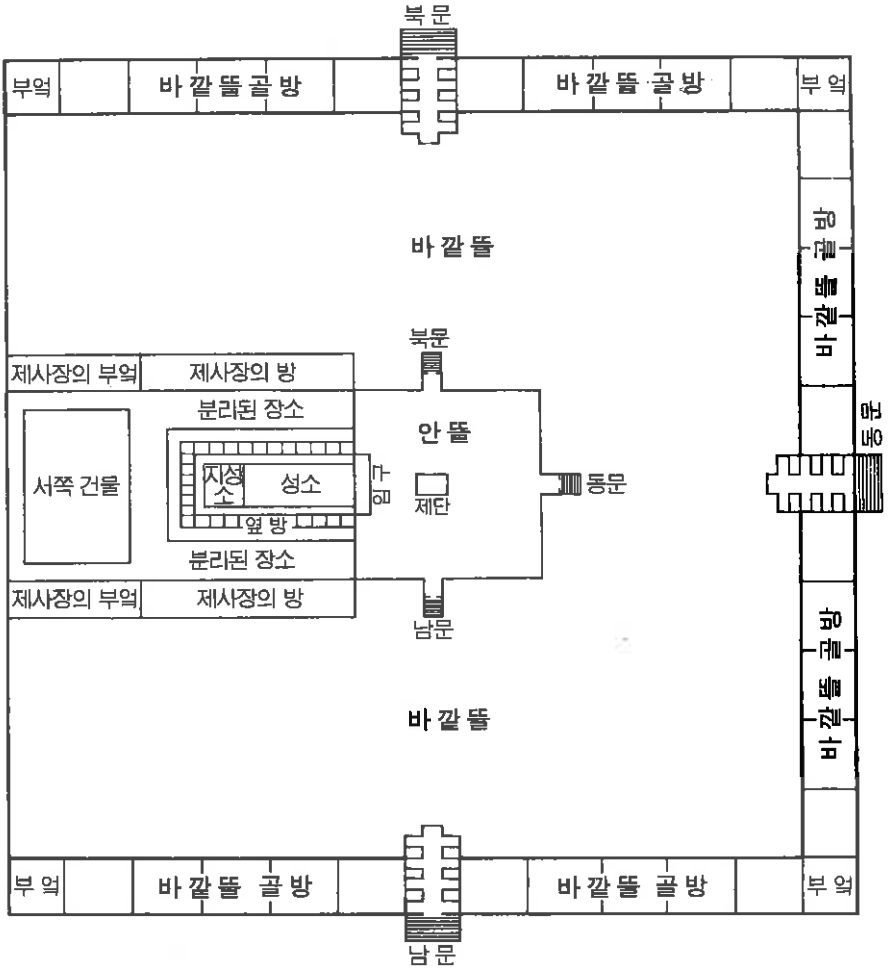
- 1~14절 - 성전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과 그 용도
 - 15~20절 - 바깥뜰의 측량
-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지상 성전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엡 2:19~22).

43 장

앞 부분에서(11:23) 우리는 영광의 구름이 서서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그분의 위(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1~5절). 그분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가까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6~9절). 그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을 것이며 산 꼭대기는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10~12절). 13~17절에서 우리는 세워질 제단의 크기를 보게 된다. 그것은 아래서 위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윗 부분이 아랫 부분보다 작은 모양으로 된 듯하다. 18~27절에서 하나님은 새 제단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행해야 할 바를 에스겔에게 알려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부여

에스겔에 의해 묘사된 성전과 뜰



하실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언제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는가?”

44 장

바깥쪽 동문은 항상 닫혀져야 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다시 오사 그곳을 통해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 다시는 나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왕만 성전 입구에 앉을 수 있는데(1~3절) 이 왕은 “그 왕”되신 그리스도 아래 다스릴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방인들은 더이상 성전에서 직분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4~8절). 한동안 우상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을 것이다(9~4절). 사독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이다(15,16절). 그들은 가는 배우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며(17~19절) 그밖에 여러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20~27절). 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될 것이다(28~31절).

45 장

이스라엘 땅 한 가운데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 한 구역이 설정될 것이다. 이 구역의 끝에 있는 긴 땅은 지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 될 것이다(3,4절). 성전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며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2절). 이 구역 중앙에는 또 하나의 긴 땅이 있을 것인데 이곳은 레위인들을 위한 거룩한 곳으로 불리운다(5절). (이 구역 끝에 있는 이 두 곳의 긴 땅은 1절에 묘사된대로 모두 거룩하다.)

이 구역의 아래에 세번째 긴 땅이 있을 것이다. 이곳은 공동지역이며 예루살렘 성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6절).

왕이 이 구역의 동쪽과 서쪽 경계에 이르는 모든 땅을 소유할 것이다(7,8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9절). 그들은 물건을 매매할 때 정직해야 한다(10~12절). 백성들은 정기적인 제사를 위해 왕에게 일정한 양의 곡물을 바쳐야 한다(13~17절). 하나님은 첫달 첫날에는 성전이(18,19절), 그리고 첫달 일곱째 날에는 백성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20절). 그들은 첫달 제 14일에는 유월절을(21~24절), 그리고 일곱째 달 제 15일에는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25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1천년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 거할 것이다(계 20:4). 백성들은 옛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 보았다.” 장래에 그들의 제사는 갈보리를 “돌아다 볼”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46 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왕이 바깥뜰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가 안식일과 달의 첫날을 위해 예물을 가져올 때 서 있어야 할 곳을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들어온 문으로 바깥뜰을 나가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야 한다(9,10절).

12절은 왕의 예물에 대해, 그리고 13~15절은 여호와께 매일 드려져야 할 제사에 대해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법을 제정하시 왕이 소유를 잃을 경우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를 늘리지 못하게 하셨다(16~18절). 제사장이 예물을 조리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며(19,20절), 바깥뜰에는 백성들의 제물이 삶아질 수 있는 곳이 있었다(21~24절).

47 장

에스겔은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이상 중에 보았다. 이 강은 제단을 지나 동문 남쪽 벽을 통과하여 사해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것은 바다를 정결케 할 것이며 따라서 바다에 많은 고기가 있을 것이다(1~12절). 이어서 이 당시 땅의 경계와 그 분할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13~20절). 이스라엘 지파들은 분깃을 그림으로 그것을 그들 가운데 나눌 것이며 그들 중에 거하게 될 이방인들도 분깃을 얻게 될 것이다(21~23절).

에스겔은 생명수 강(계 22:1)을 생각나게 하는 강을 보았다. 오늘날도 믿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다(요 7:38).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48 장

그 땅은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에 이르는 길고 좁은 땅으로 나뉘질 듯하다. 그 땅의 북쪽 끝은 단 지파에게 속할 것이다(1절). 아셀 지파는 단 지파 남쪽에 있을 것이며(2절), 이어서 납달리(3절), 므낫세(4절), 에브라임(5절), 르우벤(6절), 그리고 유다(7절)가 이어질 것이다. 유다 남쪽에는 이미 왕에게 주어진 땅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을 것이다(8~22절). 베냐민 지파는 왕의 땅 남쪽에 있을 것이고(23절), 이어서 시므온(24절), 잇사갈(25절), 스불론(26절), 그리고 갓(27절)이 이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사방에 3개씩 12문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삼마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성과 이스라엘 땅에 대해 뭔가 보

여주셨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절에 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분은 두 세 사람에게 불과한 곳에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마 18:20). 그분은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다(마 28:20).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무엇이겠는가?”

다니엘

개요

1.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간직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1장)
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네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2장)
3.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과 세 유다 청년들의 시련(3장)
4. 느부갓네살의 나무에 관한 꿈과 그 해석(4장)
5. 벨사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멧세지와 그 해석(5장)
6. 바사 왕 다리오의 자기숭배 명령과 다니엘의 사자굴 투옥(6장)
7. 다니엘의 짐승에 관한 꿈(7장)
8. 다니엘의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꿈(8장)
9. 70이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9장)
10. 하나님의 영광과 장래 일에 대한 계시(10장)
11. 장래 일에 대한 추가적인 계시(11,12장)
 - (1) 곧 일어날 일들(11:1~35)
 - ① 헬라가 메데-바사 군을 물리칠 것이다(11:1~3)
 - ② 헬라제국이 나뉠 것이다(11:4~35)
 - 애굽과 수리아의 전쟁(11:4~20)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어 행할 악한 일들(11:21~35)
 - (2)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11:36~12:13)

- 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할 것이다(11:36~45)
- ② 임박한 큰 환란의 때(12:1~13)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다. 이 때는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으며 B.C. 606년 경이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나라의 높은 지위를 주었으며 후에 벨사살도 그러했다.

다리오 왕은 전쟁에서 바벨론을 물리친 후에 다니엘을 나라의 가장 높은 자로 삼았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위에 있을 때도 높은 지위에 있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는 뜻이다. 다니엘의 예언은 주로 다른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다스릴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는 세상을 다스릴 네 나라들에 대해 예언했다. 그들은 유다 백성도 다스릴 것이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열방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에 관해 예언했다.

1 장

이 장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준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에게 명하여 왕을 섬기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유다에서 온 네 청년을 준비시키게 했다. 그들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였으나 갈대아어로 된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네흐.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먹는 동일한 음식을 내주었다. 어떤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거나 우상에게 바친 것이었을 것이다. 다니엘은 용기있게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왕이 먹으라고 준 음식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나 다니엘

은 왕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차례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삶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 거부를 표해야 한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요구했다(8~13절). 관원은 며칠간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얼마 후에 왕이 그들을 불러 시험을 해 보았다. 이 네 청년은 왕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들을 자신의 조언자들로 삼았다(14~21절).

“왜 다니엘은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는가?”

2장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는 아침에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나라의 박사들이 그 꿈을 알려주지 못하자 그는 병사들을 시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했다(1~13절). 다니엘은 여호와께 기도했으며 여호와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그에게 알려주셨다(14~30절).

하나님은 그와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자 다니엘에게 왕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은 진정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다.

왕은 꿈에서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다리 윗 부분은 구리로, 다리 아랫 부분은 철로,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모양의 신상을 보았다.

또한 왕은 큰 바위에서 잘려나간 돌을 보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부숴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돌이 그 신상에 떨어져 그것을 부숴뜨렸다. 이어서 그 돌은 점점 커져 큰 산을 이루고 온 땅을 차지했다(31~35절).

그 신상은 온 땅과 유다 백성을 다스릴 네 나라에 대한 그림이었다.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나라에 대한 그림이었다. 은으로 된 부분은 바사에 대한 그림이었다. 구리로 된 부분은 헬라에 대한 그림이었고 다리와 발은 로마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둘은 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분은 네 나라를 멸하고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36~45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매우 지혜로운 것을 보고 그를 바벨론 나라의 치리자로 삼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의 조력자가 되었다(46~49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첫번째 꿈에서 무엇을 보이셨는가?”

3장

느부갓네살은 90피트 높이의 큰 신상을 만들고는 음악소리에 맞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1~7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왕에게 나아가 이 유대인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일러바쳤다(8~12절). 왕은 그들에게 신상에게 절할 기회를 한번 더 주었으나 그들은 거절했다. 그리하여 왕은 신하들을 시켜 불을 더욱 뜨겁게 하여 그 세 유대인을 그 속에 처넣으라고 명했다(13~21절). 불이 너무 뜨거워서 유대인들을 불 속에 넣으려한 자들을 태워버렸다. 느부갓네살은 불속을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불 속에서 네 사람을 보았는데 셋은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자였다(22~25절). 불은 유대인들을 상케 하지 못했고 그들을 결박한 줄만 태워버렸다. 왕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선포했다. 아울러 그는 이 세 청년에게 전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부여했다(26~30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을 자주 행하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	2	3	4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열 나라	그리스도의 왕위
노부갓네살	다리오	알렉산더 대제		대환관	천년 통치
				교회의 형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강림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강림	

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불속에 던져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예를 여기서 유일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께 충성되이 행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다른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는가?”

4장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도움을 준 어떤 사건에 대해 진술한다(1~3절). 그는 한 꿈을 꾸었는데 박사 중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말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불러 보내어 그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4~8절). 그는 많은 과실이 달린 한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매우 높고 거대했다. 이어서 한 거룩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자르되 그 아랫부분과 뿌리는 남겨두라고 외쳤다(9~15절). 꿈 내용이 바뀌어 그는 감각을 잃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되버린 꿈을 꾸었다(16~18절).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그 나무는 그와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나라와 같다고 했다. 그는 그의 권위를 잃고 7년 동안 그의 감각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들에서 짐승처럼 지낼 것이다. 꿈 속에서 나무의 그루터기는 뽑히지 않고 남았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죽지 않고 다시 왕이 될 것을 보여주었다(19~26절).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꿈의 실현을 보았다. 그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왕이 되었다(27~37절).

“느부갓네살의 두번째 꿈의 의미는 어떠한가?”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 21 : 24)

다니엘 2 장	다니엘 7 장
— B.C. 606 —	
금 - 바벨론 —	사자
— B.C. 539 —	
은 - 페르시아 —	곰
— B.C. 333 —	
놋 - 헬라 —	표범
— B.C. 63 —	
철 - 로마 —	짐승
강추어진 교회시대	
철과 진흙 — 부흥 로마 —	짐승의 11 번째 볼
또인들 - 천년왕국 -	

이방인의 때 (눅 21 장 24 절)

5 장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2절) “부친”이란 말은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 벨사살은 큰 잔치를 베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성전 기명들을 사용했다(1~4절). 그 때 한 손이 나타나 귀인들이 마시고 웃는 동안 벽에 글씨를 썼다.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노라는 왕후의 말을 듣고 왕은 그를 불러 보냈다(5~16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왕에게 알린 다음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그는 또한 연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잔으로 술을 마신 것이 잘못임을 벨사살에게 지적해주었다(17~24절). 벽에 쓰인 글씨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를 끝내시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벨사살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빼앗아 메데와 바사라는 백성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쓰여있었다.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는데 “메네”(“수가 세어지다”)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저울에 달리다”)은 하나님이 벨사살을 측정하사 그분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발견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바르신”(“나뉘다”)은 그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바사 백성에게 준바 될 것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 날 밤 메데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치고 벨사살을 죽였으며 다리오가 벨사살이 다스리던 모든 지경의 왕이 되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베사 제국이 들어선 것이다.

“벨사살에게 어떤 하나님의 멧세지가 임했는가?”

6 장

메데-바사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삼았다(1~3절). 그런데 왕의 심복 중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자고 제

안했다. 왕은 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아무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게 했다(4~9절).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 기도를 드렸으며 이에 그의 대적들은 왕에게 달려가 그 일을 고했다(10~13절). 다리오는 다니엘을 풀어주려 했으나 자신이 만든 법을 바꿀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했다(14~17절). 왕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것을 염려했으나 아침에 가서 보니 그가 아무 해도 당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대적들을 사자굴에 넣었으며 곧 사자들이 달려와 그들을 먹어치웠다. 이에 다리오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했다(18~28절).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여전히 돌보셨다. 그분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진신했으며, 여호와가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임을 열방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불 속에 던져진 세 청년을 보호하셨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임을 목격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생명을 보호하셨으며 메데-바사 왕 다리오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임을 목격했다.

“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가?”

7장

다니엘 1~6장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반면 7~12장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준다. 다니엘은 메데와 바사가 세상을 다스리기 전인 바벨론 왕 벨사살 때에 7,8장을 기록했다.

7장에서 다니엘은 꿈에서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다. 이 짐승들은 세상을 통치한 네 나라를 상징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고 곰은 “메데-바사”를 상징했다. 꿈은 입에 세 갈빗대를 물었는데 이는 고레스가 왕으로 있을 때 메데-바사가 함락시킨 바벨론의 세

큰 성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표범은 “헬라”를 상징했는데 표범의 네 머리는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했는데 열 뿔은 로마인의 지배를 받은 열 나라를 가리킨다.

다니엘은 말일에 온 세상을 다스릴 다섯째 나라에 대해 예언했다(9절). 하나님은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실 것이다.

8장

2년이 지나서 다니엘은 꿈에 두마리의 숫 짐승을 보았다. 수양은 바사를 상징했고(20절) 수염소는 헬라를 상징했다(21절). 알렉산더 대제가 바사 군과 싸워 이겼으나 그가 죽은 후 그의 나라는 네 부분으로 쪼개졌다(8절). 다니엘은 수염소 머리에 작은 뿔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헬라제국의 한 분할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켰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경배 드리는 것을 금했다. 뒤에 나오는 작은 뿔은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받을 사람을 상징한다. 그는 매우 잔인하고 분노할 것이며 만왕의 왕되신 주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 광포하고 잔인한 자를 죽이실 것이다(23~25절).

2장의 신상은 네 큰 나라들을 가리키고 7,8장의 들짐승들은 열방을 가리킨다. 아래의 빈칸을 같은 나라를 가리키는 짐승의 이름과 그 나라의 이름으로 채워 넣어보라.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나라
금	_____	_____	_____
은	_____	_____	_____
구리	_____	_____	_____
철과 진흙	_____	_____	_____

9장

본장에 기록된 일들은 메대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중에 일어났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주의깊게 읽다가 70년이 곧 끝날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기간이었다(1,2절). 다니엘은 자신이 범죄했고 유다 백성이 범죄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렸다(3~19절).

그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의 일부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가브리엘은 이 일들이 “70이레” 기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 이레는 7년을 의미했다. 요킨대 그것은 바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한 때부터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까지 70이레, 즉 490년이 걸린다는 얘기였다. (그 중 69이레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현재 70번째 이레가 시작되기 전 시대에 있다. 우리는 그 70번째 이레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긴박한 시점에 살고 있다.)

왕이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을 내린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일곱 이레(49년)와 62이레(434년), 도합 483년이 지날 것이다(25절). 434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26절). 그 후에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시대로 불리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27절에 기록된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70번째 이레 동안 로마제국이 다시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 통치자가 유다인의 친구로 가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다인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파기할 것이며 유다인들은 3년 반 동안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3년 반이 끝날 즈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여러 장에서 몇가지 놀라운 일들을 대한다. 거기에

는 장차 일어날 많은 일들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다. 그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일들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일어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70이레에 대해 알려주셨다. 이 490년은 언제 마감되는가?”

10 장

여기에 기록된 일들은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된지 제 3년에 일어났다. 고레스는 일부 유다인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으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3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가 히테겔 혹은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왜 하나님께서 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씀해주셨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를 방해했었는데 이 영은 바사 통치자들의 마음을 지배했다(13절). 천사가 말일에 유다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14절). 그 일들은 11,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천사가 가서 먼저 바사 왕과 싸우고 이어서 헬라 왕과 싸울 것이다(20절).

“왜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11 장

1~35절에 기록된 일들은 이미 일어났고 36~45절에 기록된 일들은 장래 일어날 것이다. (1~35절에 기록된 일들은 다니엘이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1~35절은 바사의 네 왕의 세력에 대해, 그리고 헬라 왕과 싸우는 바사의 마지막 왕에 대해 말해준다(2절). 알렉산더 대제가 바사와

싸워 이겨 세상 나라들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했다. 헬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3절).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그의 심복 중 네 사람이 제국의 네 부분을 다스렸다(4절). 5~35절에는 “남방 왕” 애굽과 “북방 왕” 수리아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쟁은 약 2백년간 지속되었다. 21~35절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묘사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고 더럽혔다.

36~44절에 기록된 일들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고 큰 일들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지날 때까지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다(36~39절). “북방 왕”이 훗날 앗수르에서 올 것이다. 그는 “남방 왕”, 곧 애굽 왕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는 두려운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멈출 것이며 거기서 그와 그의 군대가 멸절당할 것이다.

12 장

우리는 1절에서 “대환란”으로 불리우는 큰 재난의 때를 볼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 3년 반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 일부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다.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며 그 후에 모든 악인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2절; 계 20:5). 하나님은 이 일들을 기록하여 책에 보존해두라고 다니엘에게 이르셨다. 4절 후반부는 3년 반, 혹은 1260일 동안 지속될 대환란 때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아마 대환란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1290일이 뜻하는 의미일 것이다(11절). 12절에는 1335일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

께서 그분의 대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막간의 시간이 포함될 것이다. 13절은 다니엘이 죽은 다음 다시 소생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때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사이의 시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가리켜 교회 시대라 부른다. 그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때이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죄 까닭에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며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으라고 권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 시대가 마감된 후 주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다니엘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의 책을 인봉하라는 명을 받았다(4절). 주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계 22:10)?”

호세아

개요

1. 호세아의 세 자녀의 예언적인 이름(1:1~9)
2.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1:10~2:1)
3.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2:2~13)
4. 이스라엘의 장래 축복에 대한 약속(2:14~23)
5.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개에 대한 예표(3:1~5)
6.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4:1~10:15)
 - (1) 백성의 죄(4:1~5)
 - (2) 제사장의 죄(4:6~11)
 - (3) 우상숭배(4:12~14)
 - (4) 하나님의 호소(4:15~19)
 - (5) 이스라엘 은 백성의 악행(5:1~7)
 - (6)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5:8~15)
 - (7) 선지자의 회개 촉구(6:1~3)
 - (8)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등한 죄(6:4~11)
 - (9)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7:1~16)
 - (10)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8:1~14)
 - (11)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고(9:1~10:15)
7.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11:1~13:16)
8.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축복에의 초청(14:1~9)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이었다. 그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예언을 했다. 그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으며, 앗수르 군이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을 의미하며,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다. 호세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다시 오실 때 임할 여호와와 구원에 대해 예언했다.

우리는 호세아를 불신실한 아내를 가진 선지자로 기억하기가 쉽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이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창기였는지 아니면 그 후에 창기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녀가 죄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떠났다는 것만은 확실히 안다. 그녀는 종으로 팔렸으며 하나님은 그녀를 사서 그의 집에 되돌리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셨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고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야곱, 사마리아로도 불리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치 못했다. 그들은 간음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왕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된다.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보다 더 크다. 호세아의 멧세지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다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1장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신실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셨고 이에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다. 첫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홀으실 것이다”)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홀으실 것을 보여주었다(4,5절). 앓수르 군대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격퇴시킬 것이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후마”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함”)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었다(6절). 그러나 그분은 앓수르 군이 유다 백성을 공격하지는 못하게 하실 것이다(7절). 하나님은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로 지으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었다(8,9절).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얼마 동안만 유효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다(1:10~2:1).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자들, 곧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다(롬 9:26).

“왜 하나님은 그분의 종에게 불신실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셨는가?”

2장

본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이스라엘의 소수 무리에게 말하라고 이르셨다. 하나님은 이 신자들을 “암미” (“내 백성”)와 “루하마” (“공홀을 입은 자”)라고 부르셨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을 그치라고 촉구해야 했다(2절).

만일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3~13절). 그 후에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분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 때 그분을 “바알”(“내 주인”)이 아니라 “이쉬”(“내 남편”)라고 부를 것이며(14~17절), 평강과 안전 속에 거할 것이다(18절). 그들은 주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19,20절). 그 날에 이스라엘(이스라엘)은 더 이상 “홀어지다”는 뜻이 아닌 “심겨지다”는 뜻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씨처럼 그들의 땅에 심겨질 것이고 하늘과 땅이 그들을 축복하사 과실을 내게 할 것이다(21~23절).

3장

하나님은 이어서 호세아에게 시장에 나아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죄 중에 거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값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여종에게 흔히 지불되는 값을 주고 그녀를 샀다. 한 동안 호세아와 그의 아내는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지낼 수 없었으나 그 후로 그는 그녀를 다시 아내로 대해야 했다(1~3절). 이 일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고 다른 “연인들”을 좇았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셨다. 4절은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무 왕도 방백도 없다. 그들은 아무 제사도 없으며(즉,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집에 있는 작은 우상을 말하는 “드라빔”도 갖지 못했다. 5절은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을 충성스레 사랑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를 다시 취하라고 명하셨는가?”

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실함과 사랑없음과 그분을 섬기

지 앎으로 인해 자신이 진노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맹세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까닭에 나라가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6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기를 거절한 까닭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꾸짖으셨다. 백성들은 죄를 범한 후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탐욕스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재빨리 먹어치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제사장들은 더욱 많은 제물을 취했다. 이처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한결같이 매우 악했다(7~11절). 12~19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우상(“막대기”)에게 인도를 구했다(12절). 그들은 산당과 나무 아래서 절을 했다(13절). 여인들은 남자들의 악한 본을 좇았다(13,14절).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악한 이스라엘의 본을 좇지 말라고 경고했다(15절). 이스라엘의 완고한 백성들은 우상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수치스런 삶을 사랑했다(16~19절).

5장

제사장과 백성과 왕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1,2절). 에브라임은 “음녀”가 되어버렸다(3,4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짐승을 가져올 것이나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5~7절). 선지자는 북왕국의 세 성의 거민들에게 징벌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남쪽의 베냐민 족속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했다(8절). 쯤이 사람의 옷을 조용히 잡아 먹어 누더기로 만들 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용히 멸하실 것이다. 미세한 벌레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 그것을 깨끗이 먹어치우듯이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12절). 이스라엘(에브라임) 백성은 병든 자와 같이 앓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앓수르가

그 병을 낮게 해 줄 수 없었다(13,14절).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죄를 자복하기를 기다리고자 하셨다(15절).

6장

1~3절은 이스라엘이 장래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분께 신실치 못함으로 범죄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그분을 알게 되기를 더 원하셨다(4~6절). 7~10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준다. 7절은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절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보여준다.

“왜 주 예수님은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가?(마 9:13; 12:7)”

7장

에브라임은 매우 악했다. 그 백성과 왕의 가족은 죄악되고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1~7절).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섞였으며 재물을 낭비했으며 그들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8~10절). 에브라임 백성은 애굽인과 앗수르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사람이 그물에 걸린 새를 낚아채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11,12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진정 회개하지 않았다(13,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14절).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진정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깊이 참회하는 대신 심한 상처를 입고 부르짖는 짐승처럼 격렬히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셨으나(15절) 그들은 우상을 의뢰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적이 그들을 정복하고 조롱을 퍼부울 것이다(16절).

8장

앗수르 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선지자는 앗수르 군을 땅 위에 나는 거대한 새에 비유했다. 백성들은 율법을 범한 관계로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말했으나(2절)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나라를 둘로 나누었으나(이스라엘과 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4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까닭에 그들에게 매우 노하셨다(4~6절). 그들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7절) 이방인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8절). 하나님은 앗수르와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청한 까닭에 에브라임을 징벌하실 것이다(10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고 유다 백성은 그들의 성을 두른 강한 벽을 의뢰했다(11~14절). 그들은 모두 무서운 고난을 당해야 할 운명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읍을 불로 사르실 것이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9장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외쳤다(1절). 그들의 우상은 그들이 갖고자 한 풍부한 곡물을 주지 못할 것이다(2절). 백성들이 그들의 고토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일부는 애굽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앗수르로 잡혀갈 것이다(3절). 그들은 우상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다(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분부하신 절기의 때에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다른 땅에 포로로 있을 것이다(5, 6절).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속히 제함을 당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7~9절).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여인들의 일부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며 다른 여인들의 아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10~17절).

10 장

포도나무는 그 소유주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한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다(1,2절). 백성들은 하나님도 왕도 필요없다고 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땅을 덮을 독한 풀과 같을 것이다(3,4절). 앗수르 군이 벤아웬(베델)의 금송아지를 취해갈 것이다(5,6절). 사마리아 왕이 죽고 대적들이 우상과 제단을 훼손할 것이며 사람들은 산과 언덕에게 외치기를 그들 위에 덮어달라고 할 것이다(7,8절). 길르앗에서 열한 지파들이 그 죄로 인해 배나뎀 지파를 함께 징벌했으나(삿 20장) 그 때 이후로 그들 자신이 거듭해서 범죄했다.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연합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백성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쉬운 일만 하는 어린 암소와 같았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고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11절).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구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었다(12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그들의 큰 군대를 의지했으며 이제 그러한 죄의 열매를 거두어야 했다. 그들은 대적과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이며 사마리아 성이 파괴될 것이며 그리고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13~15절). 14절의 살만은 앗수르 왕으로 살만에셀로도 불리운다(왕하 15:3).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포도나무와 같았는가?”

11 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1절; 출 12장). (마태는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마 2:15.)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신에게로 거듭 거듭 부르셨으나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우상을 섬길뿐이었다(1,2

절). 그는 에브라임 백성을 인자히, 사랑으로 대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치료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했다(3,4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살게 하는 대신 앗수르로 보내어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5~7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드마와 스보임같이(창 14:8; 19:24,25) 아무 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을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셨다. 9~11절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며 에브라임을 더 이상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12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했다. 호세아가 살던 당시 유다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의 의뢰했다.

12 장

에브라임 백성은 앗수르와 맺은 약속과 애굽에 보낸 예물을 의지했으나 그러한 것들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쓸모없었다(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파도 변론을 벌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야곱—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을 상기시키셨다. 야곱은 장성하여 천사와 더불어 온 밤을 씨름하여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야곱과 같음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했다(3~6절). 에브라임 백성은 훌륭한 상인이요 매우 부유한 까닭에 교만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들을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사 이전과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7~9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길르앗과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약속하셨다(10,11절). 그들은 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겸손히 라반을 섬긴 야곱과 얼마나 달랐는지!(12절; 창 29:20).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상기시키셨다(13절). 에브라임은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더욱 크게 했다(14절).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했는가?”

13 장

에브라임은 우상을 섬기기 전에는 다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들은 “죽고” 그들의 영에는 사라졌다(1절). 그들은 점점더 우상을 섬겼으며 사람들에게 송아지 신상에게 경배하고 입맞추라고 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쪽정이”같이 날리울 것이다(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중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셨건만 그들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숭배했다. 이제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처럼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4~8절).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진대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는가?(9~11절) 에브라임의 죄가 쌓였으며 심판의 날을 위해 보존될 것이다. 에브라임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징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다(13절).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것이다: “내가 돈을 주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하라?” 그 답은 나오지 않지만 “아니다”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죽음을 불러 그들을 괴롭히고 무덤을 불러 그들을 파멸케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55에서 이 구절을 다른 의미로 인용했다.) 15,16절에서 호세아는 앓수르 군(“동풍”)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4 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자백한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다. 그들은 앓수르 백성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의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인정한다. 여호와께서 4~7절에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을 치료하고

사랑하고 자신에게로 돌리시겠다고 하셨다.

에브라임은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말할 것이며 이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돌보리라”고 답하실 것이다(8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8절). 선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로 그의 멧세지를 끝마쳤다.

“8절 말씀은 언제 성취되는가?”

요엘

개요

1.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1:1~20)
 - (1)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메뚜기 재앙(1:1~4)
 - (2) 그 재앙이 미친 영향(1:5~20)
 - ① 술취한 자에게(5~7절)
 - ② 재사장들에게(8~10,13~16)
 - ③ 농부들에게(11,12,17,18)
 - ④ 선지자 요엘에게(19,20)
2. 대적의 침입 장면(2:1~11)
3. 유다 백성에 대한 회개 촉구(2:12~14)
4. 금식 선포(2:15~17)
5. 하나님의 구원 약속(2:18~3:21)
 - (1) 백성들이 부유해질 것이다(2:18,19,21~27).
 - (2)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2:20).
 - (3)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2:28,29).
 - (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2:30~32).
 - (5)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3:1~16).
 - (6)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사 축복하실 것이다(3:16~21).

요엘은 브두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그 부친의 이름 외에 그에 대해 아는바가 거의 없다. 요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는 뜻이다.

요엘은 자신이 어느 왕의 재위 때에 예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성경 학자들이 믿기에 그는 요아스 통치 때부터 아하스 통치 때까지 유다 백성에게 예언한 듯하다.

“여호와의 날”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문구로 다섯차례 나온다(1:15; 2:1,11,31; 3:14).

요엘은 일부 성경학자들에게 세례요한을 생각나게 한다. 그는 “오순절”의 선지자로 불리우기도 한다(2:28,29).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2:17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2:18~3:21에서는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다.

1 장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 선포했다. 수많은 메뚜기떼가 유다로 날아와 순식간에 각종 식물을 삼켜버렸다. 그와같이 북방에서 한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닥쳐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그 땅을 쳤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것은 북방(앗수르)왕이 유다 백성과 싸우기 위해 올 미래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 메뚜기 재앙은 늙은 이들이 기억하는 어떤 재앙보다 극심했다(2,3절). 이 재앙은 네 단계로 이어졌는데(4절) 아마 이 다양한 종류의 곤충은 전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네 나라-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듯하다.

요엘은 술취한 자들과(5~7절) 농부들과(11,12,17,18절) 제사장들(8~10절) 등 모든 백성에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촉구했다. 메뚜기떼가 땅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듯이 백성들도 여호와

게 드릴 아무 예물이 없었다(8~10절).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와 그의 날”이라고 불렀다(15절). 여호와와 그의 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승리와 큰 영광을 그분의 이름에 돌리시는 어느 때이다. 장차 여호와와 그의 날은 교회가 하늘로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천년통치가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요엘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장비를 호소했다.

“매뚜기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는가?”

2 장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싸움을 대비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매우 임박한 때문이었다(1절). 요엘은 바벨론 군이 그 땅을 치러 올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2절) 이 예언은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유다는 대적이 침입하기 전에는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는 황야같았다(3절). 매뚜기때(대적)가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6~9절) 큰 무리를 지어 성을 칠 것이다(4,5절). 어두움이 그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서울 것이다(10,11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12~14절).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촉구했다(15,16절). 장차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호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일 것이다(17절). 그 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18절).

이 책 나머지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친히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동쪽 바다(사해)에서 서쪽 바다(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북방(앗수르)왕을 멸하실 것이다(20절). 그 땅은 다시 비옥해지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21,22절). 큰 수확을 거둔만큼

비가 충분히 내릴 것이다(23~35절).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26,27절). 하나님은 그 날에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28,29절). 이 마지막 예언은 사도행전 2:16~21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실 때 하늘에 큰 징조를 보이실 것이다(30,31절).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분이 천년동안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32절).

3장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보인 태도로 인해 이방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심판하실 것이다(1~3절). 두로, 시돈, 블레셋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종으로 삼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다(4~8절). 그분은 열방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르셨는데 이는 그분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다(9~16절).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풍부한 식량을 주실 것이며 대적들은 다시는 그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16~18절). 애굽과 에돔은 광야가 될 것이나 유다 땅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거할 것이다(19~21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모스

개요

1. 여덟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1:1~2:16)
 - (1) 다메섹(1:3~5)
 - (2) 가사(1:6~8)
 - (3) 두로(1:9,10)
 - (4) 에돔(1:11,12)
 - (5) 암몬(1:13~15)
 - (6) 모압(2:1~3)
 - (7) 유다(2:4,5)
 - (8) 이스라엘(2:6~16)
2. 이스라엘의 범죄 그 운명(3:1~6:14)
 - (1)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첫번째 촉구(3:1~5)
 - (2)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두번째 촉구(4:1~13)
 - (3)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세번째 촉구(5:1~17)
 - (4) 첫번째 슬픔(5:18~27)
 - (5) 두번째 슬픔(6:1~14)
3. 임박한 심판의 징조들(7:1~9:10)
 - (1) 메뚜기 재앙(7:1~3)
 - (2) 큰 불(7:4~6)
 - (3) 다림줄(7:7~9)

- (4) 아모스의 담대함(7:10~17)
 - (5) 실과 광주리(8:1~14)
 - (6) 문 기둥 머리를 치라는 하나님의 분부(9:11~15)
4.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9:11~15)

아모스는 목자로서 뿔나무를 배양했다. 그는 베들레헴 드고아 출신으로 유다에 속했으나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하셨다.

아모스란 이름은 “짐”을 뜻한다. 그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 예언했다. 이 때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웃시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시대의 “지진 전 2년 전”이었다.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상기시켰다.

1장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덟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대할 수 있다. 각 부분마다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란 문구로 시작되는데 이는 이들 백성들이 서너차례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 거듭, 너무도 자주 범죄했음을 뜻한다.

첫째 심판은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대한 것이었다. 수리아 군은 요단 동편(길르앗)에 거하는 두지파 반을 거스려 싸웠었다(3~5절).

둘째 심판은 “가사”에 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블레셋족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가사의 블레셋인들이 그들을 잔인한 에돔족의 손에 넘겨주었다(6~8절).

셋째 심판은 “두로”에 대한 것이었다. 두로 백성도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취하여 에돔족에게 넘겨준적이 있었다. 아울러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9,10절).

넷째 심판은 “에돔”에 대한 것이었다. 에돔족은 그들의 형제,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잔인한 대적이었다(11,12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다.

다섯째 심판은 “암몬”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길르앗 땅 일부를 취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잔인했다(13~15절).

2장

여섯째 심판은 “모압”에 대한 것이었다(1~3절). 모압 백성은 에돔 왕을 적절한 곳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열왕기하 3:26,27을 보라; “그의 말아들”은 아마 모압 왕이 아닌 에돔 왕의 말아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다음 두 심판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섯 이방 나라와 함께 거론하신 것이 놀랍지 않은가? 이것은 아모스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수한 죄 까닭에 더 이상 자신이 그들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짓(우상)을 좇은 까닭에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다(4,5절).

하나님은 그들이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매우 부도덕한 죄를 범하고, 저녁에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가난한 자들의 옷을 밤새 저당잡았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술에 만취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돈으로 그 술을 샀다(6~8절). 9~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에게 베푼 그분의 자비를 상기시켰다. 그분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모리인을 몰리치게 하셨다. 그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또 그분은 젊은이 중 일부는 선지자가 되게 하였고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삶과 세상과의 분리를 보여주기 위해 “나실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실인들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로 더 이상 하나님께 성별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누르실 것이다(13절).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대적으로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14~16절). 아모스는 “앗수르 군”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전에 이 예언을 했다.

“아모스는 여덟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중 마지막 두 나라는 어디인가?”

3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까닭에 그들의 죄는 더욱 심각했고 그들에 대한 징벌은 더욱 컸다(1,2절).

하나님은 까닭없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자도 먹이가 될 짐승을 죽이기 전에는 부르짖지 않는 법이다. 그럴만한 이유나 원인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마련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때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3~8절). 하나님은 땅에 큰 곤란의 때를 보내실 것이다(6절). 그분은 “아스돗”(블레셋인)과 “애굽”으로 와서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라고 초청하셨다. 그러한 죄 까닭에 앗수르 백성이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오직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며(12절) 그들의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소의 신상에게 경배하던 벤엘의 단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13~15절; 왕상 12:28~30).

4장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부요한 백성들을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바

산의 살진 암소들에 비유했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을 확대하고 모든 재물을 쾌락에 탕진했다. 이 일로 인해 앗수르 군이 그들을 그들의 땅에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벤엘에 있는 그들의 우상을 계속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4,5절). 그들은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으며(6절) 하나님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사 백성들로 마실 물도 충분치 못하게 하셨다(7,8절). 그분은 그들의 곡식을 재앙으로 치고(9절) 질병과 전쟁을 땅에 보내셨다(10절). 그분은 성읍들을 파괴시키기도 했으나(11절)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인 하나님 자신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12, 13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여러 모양으로 징벌하셨다(6~11절). 그러한 징벌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5 장

이스라엘이 곧 파멸당할 것이므로 선지자는 슬피 울었다. 열에 하나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다(1~3절).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지 말고 그분을 구하라고 촉구하셨다(4, 5절).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노를 발하사 그들의 부정과 불의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6~9절). 이스라엘의 죄인들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증오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유해진 까닭에 그들로 그 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10~13절).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촉구하셨다(14,15절). 앗수르 군이 쳐들어올 때 모든 백성이 애곡할 것이다(16,17절).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도록 기도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그날이 여러 재앙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흑암과 환란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18~20절).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물과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으나 그들의 삶은 악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셨다(21~24절).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몰록”과 여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안락한 집과 값비싼 양식과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전쟁을 보내실 참이었다(1~7절). 앗수르 군이 사마리아 성을 취할 것이다(8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릴 것이며 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9,10절). 그들은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으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공정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정의를 변하여 부정이 되게 했다(12절).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강한 군대를 자랑했다(13절). 앗수르 군이 북방 경계에서 남방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온 땅을 칠 것이다(14절).

“어느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가?”

7장

1~9절에서 우리는 아모스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이스라엘에게 세가지 위험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첫째로 메뚜기 떼가 들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삼켜버릴 것이다(1~3절). 이것은 앗수르 왕 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에 대한 그림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모스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때 그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두번째 위험은 모든 것을 사를 큰 불이었다(4~

6절). 이것은 디글랏-빌레셀이 그 땅을 칠 것에 대한 그림인 듯했다. 다시 아모스가 기도를 했으며 그 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번째 위험은 사마리아를 멸할 살만헤셀을 가리키는 듯했다(7~9절).

건축자는 벽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림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노라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하셨다.

아마샤는 벰엘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벰엘에 대해 불길한 예언을 하지 말고 유다에 있는 집에 돌아가 생계를 꾸려나가라고 했다(10~13절). 아모스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셨기에 그만 둘 수 없노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거짓 제사장과 그의 집에 일어날 두려운 일들을 아마샤에게 예고해주었다(14~17절).

8장

다음으로 아모스는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았다. 실과가 익자 곧 딸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셨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으셨다(1~3절).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있었다. 이 부자들은 안식일에는 장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을 버는 데 열을 올렸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다(4~6절).

그 모든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그 땅을 벌하실 것이다(7,8절). 낮 동안 아무 빛도 없을 것이며 모든 가정이 크게 슬퍼할 것이다(9,10절).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며 그로 인해 주리고 갈할 것이다(11,12절).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물을 것이며 거기서 아무 멧세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13,14절).

“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실과 한 광주리 같다고 했는가?”

9 장

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제단”-아마도 벤엘의 거짓 제단-에 대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백성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 대적이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1~4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다(5,6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방 나라와 다를바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열방보다 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고 적은 수만 구원하실 것이다(7~10절). 11~15절에서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되돌리실 것을 본다. 그분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11,12절). 들에는 곡식이 번성할 것이며 백성들은 그들의 성을 다시 쌓고 다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13~15절).

“어느 구절들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실 것을 말하는가?”

오바다

개요

1. 하나님이 에돔 백성을 낮추실 것이다(1~4절).
2. 하나님이 에돔 나라를 파괴하실 것이다(5~9절).
 - (1) 에돔의 부가 모두 빼앗길 것이다(5,6절).
 - (2) 에돔족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거짓될 것이다(5,6절).
 - (3) 에돔의 지도자들이 죽을 것이다(8,9절).
3. 에돔이 파괴된 이유(10~14절)
4.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에돔을 징벌하셨다(15,16절).
5.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강해질 것이나 에돔 백성은 모두 죽을 것이다(17~21절).

우리는 이 책을 쓴 오바다란 인물에 대해서나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혹은 섬기는 자”를 뜻한다.

오바다서는 “에돔” 백성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그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기뻐했다.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함락되었으며 이 책에 언급된 것은 몇번째 사건인지 분명치 않다.

그것은 르호보암 통치 시기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을 무너뜨린 때일 수도 있다(왕상 14:25).

혹은 여호람 통치 시기에 블레셋족과 아랍족이 유다에 침입한 때 일 수도 있다(대하 21:16,17).

혹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쳐서 아마사를 공격한 때 일 수도 있다(왕하 14:11~14).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 그것은 B.C. 586년 바벨론 백성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때이다. 예레미야애가 4:21,22과 시편 137:7,8과 같은 성경구절들은 바벨론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에돔 백성이 기뻐한 사실을 보여준다.

에돔 지경은 마가복음 3:8에 “이두메”로 불리운다.

에돔 백성의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나라 백성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일 것이다(1~4절). 셀라 혹은 페트라가 에돔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백성들은 산 비탈을 깎아 만든 집에 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집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적이나 강도들도 원하는 것만 가져가고 약간은 남겨두는데 에돔의 대적들은 모든 것을 취해 갔다(5,6절). 일부 나라들이 에돔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들은 에돔을 배신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7절). 에돔 백성은 그들 중 지혜있는 자들을 자랑했으나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8,9절). 에돔 백성은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기뻐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그 틈을 타서 유다인의 물건을 약탈하고 대적을 피해 달아나는 일부 유다인들을 살해했다(10~14절).

하나님은 곧 열방에게 그분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며,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대한 까닭에 에돔을 징벌하실 것이다(15,16절).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17~21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모든 에돔족을 사를 불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남방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지경을 주실 것이다. 또 해

변의 비옥한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블레셋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한 지도자들이 에돔족이 거하던 산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오바다서는 사람이 심는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7의 진리의 실례를 보여준다. 에돔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잔인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잔인한 대적을 보내어 에돔을 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민족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모스서에서도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어디인가?”

요나

개요

1. 요나의 불순종(1장)
 - (1) 하나님의 부르심(1,2절)
 - (2) 요나의 도피(3절)
 - (3)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보내심(4~10절)
 - (4)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11~17절)
2. 하나님의 구원(2장)
 - (1) 요나의 기도(1~9절)
 - (2) 하나님의 응답(10절)
3. 선포된 하나님의 멧세지(3장)
 - (1)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1~4절)
 - (2) 니느웨 백성의 회개(5~9절)
 - (3) 징벌이 오지 않음(10절)
4.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분노(4장)
 - (1) 요나의 분노 중의 기도(1~3절)
 - (2) 하나님이 요나가 분노한 까닭을 물으심(4절)
 - (3) 요나가 여전히 화가 난 채 니느웨 밖으로 나감(5절)
 - (4)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설명해주심(6~11절)

요나는 아밧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의 고향이 스블론 성의 가드헤벨이었음을 알 수 있다(왕하 14:25).

요나는 앓수르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거스려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멧세지를 받았다. 하나님은 니스웨 백성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전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 니스웨는 앓수르의 수도였다. 요나는 혹 그들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니스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스로 도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스에 도착하기 전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자 그는 그분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러 니스웨로 갔다. 니스웨 백성은 그들의 죄를 슬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기에 요나는 화가 났다.

주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자신도 죽어 장사된 다음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2:40; 16:4).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다.

1.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백성에게 그분에 대해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분부하셨다.
2.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멧세지가 다른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3. 그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졌듯이 지상의 모든 백성 가운데 쫓겨났다. 그들은 다른 백성 중에 있긴 하지만 그들 중에 속해 있지는 않는데 이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그를 섭취하지는 않은 것과 같다.
4.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해냈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스웨 백성에게 심판의 멧세지를 전한 다음 그들을 인자히 대

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고토에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요나서는 로마서 3:29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한 요나서는 로마서 11:11 말씀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짐으로 배에 탄 이방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요나가 다시 마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까닭에 실족한 반면 이방 백성들은 이제 그분이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까닭에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1 장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였고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이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1~3절).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셨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4~6절). 사공들은 폭풍이 임한 것이 누구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그들은 요나가 여호와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중임을 알아냈다(7~10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사공들은 요나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폭풍을 피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고로 마침내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다(11~16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키게 했으며 그는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17절).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나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왜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가?”

2장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아뢰었다.

요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2~6절).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7,8절)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드렸다(9절). 그 때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슬퍼하게 될 때에 대한 그림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

3장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지시하셨으며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로 갔다. 그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 후면 그 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그들은 그의 멧세지를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진정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굶은 배움을 입고 스스로 겸비케 했다. 왕 자신도 스스로 겸비케 했으며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와같이 스스로 겸비케 하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 성은 그 후로 150년이나 존속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아무도 죄로 인해 징벌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그분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징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

시는 것은 의로운 처사인데,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지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롬 3:25).

4 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백성을 징벌하지 않으신 까닭에 요나는 화가 났다. 그는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가 선지자로서 말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1~3절). 요나는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았다. 하나님은 큰 나무를 그곳에 준비하사 요나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요나는 그 나무가 태양벌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4~6절).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사 그 나무를 시들게 하셨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그 바람과 뜨거운 태양으로 그를 매우 곤비케 하셨다. 이에 요나는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7,8절). 하나님은 요나가 죽어 말라버린 식물로 인해 슬퍼한 것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자신이 니느웨 성의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더욱 슬퍼하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그 성에는 12만명의 어린아이와 죽일 필요가 없는 많은 육축이 있었다.

본문은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가지 사물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큰 물고기와(1:17) 큰 나무와(4:6) 벌레(4:7)와 뜨거운 동풍(4:8)이다.

“왜 요나는 화가 났는가?”

미가

개요

1.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장)
 - (1)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1:1~7).
 - (2) 미가의 슬픔과 부르짖음(1:8,9)
 - (3) 적군이 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1:10~16).
2. 부유하고 잔인한 자들의 운명(2:1~11)
 - (1) 사람들에게 공평치 않은 자들은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2:1~5).
 - (2) 미가는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2:6~11).
3. 백성들의 고토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1:12,13)
4.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및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3:1~12)
 - (1) 지도자들은 부를 탐했다(3:1~4).
 - (2) 선지자들은 재물만 원했다(3:5~8).
 - (3) 지도자, 제사장 및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3:9~11).
 - (4)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3:12).
5. 영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미래 나라(4:1~13)
 - (1)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

이다(4:1~8).

- (2) 그 때가 임하기 전에 무서운 고난이 있을 것이다(4:9,10).
- (3) 하나님이 유다인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4:11~13).

6.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5:1~15)

- (1) 이방 나라들이 유다에게 악을 행하고 있었다(5:1).
- (2)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5:2)
- (3)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5:3,4).
- (4) 하나님이 앗수르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5:5,6).
- (5)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5:7~9).
- (6) 열방은 그들의 칼과 창을 버리고 정결케 될 것이다(5:10~14).
- (7)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징벌하실 것이다(5:15).

7. 하나님의 시련을 당할 이스라엘의 장래(6:1~16)

- (1)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는 촉구(6:1,2)
- (2)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6:3~5)
- (3)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6:6~8)
- (4)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릇된 일들(6:9~12)
- (5)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6:13~16)

8.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7:1~10)

- (1)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7:1,2상).
- (2) 많은 악인들이 있었다(7:2하~).
- (3) 친구와 친척들이 서로간에 진실하지 않았다(7:5,6).
- (4)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었다(7:7).
- (5) 소수의 의인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7:8~10).

9.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들(7:11~20)

-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실 것이나 열방은 징벌하실 것이다(7:11~13).

- (2)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토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7:14, 15).
- (3) 열방은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7:16,17).
- (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7:18~20).

이 책의 기자인 미가는 모레셋에 거했다.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했다. 이사야와 호세아가 미가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했다. 그는 사마리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세 성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뜻이다.

1 장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보낼 징벌에 관한 자신의 멧세지를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다. 그분은 전에는 성전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그분의 처소를 떠나셨다(1~3절). 그분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을 징벌하사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4~9절). 선지자는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칠 것을 예언하면서 매우 슬퍼했다(10~16절). 그는 앗수르 군대가 가까이 이르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몇몇 성의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전했다. 이 성들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이 그 멧세지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10~14절).

강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며 그들은 아둘람으로 피신할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므로 백성들은 머리를 깎아 그들의 큰 슬픔을 드러내야 했다(15,16)

절).

“미가는 세 성에 대해 기록을 했는데 그 중 1장에 언급된 두 성은 어디어디인가?”

2장

2장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이유를 설명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집과 땅을 취해갔다(1,2절). 그러므로 적군이 와서 부자들에게서 그 집과 땅을 취해갈 것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다(3~5절). 백성들은 그런 얘기는 듣기 싫으니 하지 말라고 미가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런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줄로 생각했다(6절). 그러나 미가는 그들이 “여호와와 신이 편급하시나? 우리를 징벌하는 이가 여호와일리가 있겠는가? 그분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7절). 그들은 그분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상태였다. 그들은 아무 저항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옷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다(8,9절).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고로 그 땅이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일어나 다른 땅으로 가야 했다(10절).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 그들의 고토에 돌아올 것이다(11,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귀환을 막는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실 것이다(13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시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매우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분께 범죄한 사람들은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3장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불공평하고 의를 행치 않고 백성들의 값진 소유물을 탐냈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냉혹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1~4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에게 재물을 준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5절).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멧세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 수 없었다(6,7절).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여주었다(8절).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모두 재물을 사랑했다. 그들은 안전할 줄로 생각했으나 미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9~12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고기를 먹은 것인가?”

4장

그리스도께서 천년동안 땅을 다스리실 때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다. 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검과 창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모두들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며, 사람마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1~5절). 갇혔던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6,7절).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통치인 왕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다(8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이 땅에는 참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현세와 다

가을 세상에서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9,10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유다인을 그들의 고토로 돌리시기 전에 이방인을 한테 모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여 이방인을 징벌하실 것이며 이방인의 부요가 여호와께 넘겨질 것이다(11~13절).

5장

1절은 미가가 이 책을 쓸 당시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고 있었다. 2절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과 상황이 1절의 상황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을 말해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에는 슬퍼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3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다음 세 시대를 보게 된다:

1. 이스라엘 백성은 주 예수님을 거절한 까닭에 버림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현재에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2. 고통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은 곤란의 때 혹은 큰 환란의 때로 불리운다.
3.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고통과 환란의 때가 끝난 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그의 양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것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4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선한 지도자들을 세우사 앗수르 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나아올 때 능히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5,6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것이다(7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

든 대적을 멸할 것이다(8,9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힘이나 말, 군대, 혹은 그들의 성을 둘러싼 튼튼한 벽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10,11절). 그들은 마법과 강신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이다(12절).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거짓 신을 파괴할 것이며(13,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1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며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그들은 큰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8~30).

“미가는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6장

하나님은 “신들”을 불러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평가하라고 하시고는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말씀하셨다(1,2절).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자히 대했다고 이르셨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 사람을 섬기는데서 해방하시고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 할 때 그들을 보호하셨다(3~5절). 이렇게 그들에게 베푸는 인자의 댓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분은 그들에게 많은 짐승을 잡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 그분에게 바치기를 원치 않으셨다. 다만 그분이 원하신 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와 겸손을 갖추는 것뿐이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불러 그들의 죄가 그 환란의 원인이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백성들은 옳지 않은 저울을 통해 사람들을 속였다(10,11절). 그들은 어떤이들에게는 냉대했고 또 어떤이들에

게는 거짓말을 했다(12절). 그들은 일을 불공평하게 처리했으며 그 댓가로 재난을 당할 것이다(13~15절). 16절의 “오므리의 울레”란 표현은 오므리가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일을 의미하는 듯하다(왕상 16:25,26).

7 장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에는 선하고 정직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서로 해치고 죽였다(1,2절). 지도자들과 재판자들은 돈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죄 있는 자를 풀어주었다(3절). 그들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4절). 그들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다. 친구들, 이웃,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서로 대적했다(5,6절). 하나님 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7절).

이스라엘 백성 중 소수는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 곤란을 당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대적에게 말했다. 그들이 범죄한 까닭에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되돌리실 것이며 그 때 그들의 대적이 두려워할 것이다(8~10절).

선지자 미가는 11~13절에서 예루살렘성을 향해 말했다. 그는 그 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로잡혀간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징벌하실 것이다.

14절은 목자가 그의 양을 돌보듯이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실 것을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며, 이방인이 놀라며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5~17절).

이 책의 마지막 몇 구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로 인해,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

에 하나님을 찬양한다(18~20절).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징벌하시는 동안 종종 그분의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고통을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 결국 그들은 그분이 보내신 환란과 시련으로 인해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18,19절)”

나훔

개요

1. 하나님의 심판자되심(1:1~8)

- (1)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보응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2절).
- (2) 하나님은 속히 분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며 의를 행하신다(3절).
- (3) 하나님은 왕처럼 위대하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3~5절).
- (4) 아무도 하나님을 거스려 싸울 수 없다. 그분은 선하시며 잘못을 행치 않으신다(6~8절).

2. 니느웨의 운명(1:9~15)

- (1)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9~12절).
- (2)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을 계속 포로로 소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12,13절).
- (3) 백성들은 니느웨 성을 잊되 그 이름조차 잊게 될 것이다(14절).
- (4) 유다 백성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들었다(15절).

3. 바벨론 군대의 니느웨 침공(2:1~12)

- (1) 백성들이 전쟁에 대비하라는 촉구를 받았다(1절).
 - (2) 나훔이 진행중인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2절).
 - (3) 바벨론 군대가 니스웨를 침공했다(3,4절).
 - (4) 니스웨 백성이 당황하고 두려워했다(5~12절).
4. 니스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2:13~3:19)
- (1) 니스웨 백성이 그들의 최악된 삶으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2:13~3:4).
 - (2)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징벌하듯이 하나님이 니스웨를 징벌하실 것이다(5~7절).
 - (3) 니스웨는 군대가 애굽의 노아몬 성을 파괴했듯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8~15절).
 - (4) 무수한 폐뚜기때 같이 많은 앗수르 군이 있으나 그들은 달아날 것이다(15~19절).
 - (5) 니스웨가 멸망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19절).

이 책의 기자인 나훔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가 엘고스라는 곳에 살았다는 것뿐이다. 아마 이곳은 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알려진 곳인 듯하다. 그의 이름은 “위로하다”는 뜻이다. 그는 앗수르 백성이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고토로 돌리실 것이라는 말로 유다 백성을 위로했다.

이 책이 기록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B.C. 714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하나님이 니스웨 성을 멸하실 것과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멸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며, 아울러 하나님이 장차 그분의 백성을 공격할 앗수르인과 같은 악인을 멸하실 것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다. 어떤 나라들은 크고 강성하고 잔인한데 그들은 오랫동안 존재할 것처럼 보이거나 때가 되면 하

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장

하나님은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을 징벌하신다. 그분은 투기하시며 사람들의 죄에 대해 보우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속히 분노하지 않으시며 매우 강하시다(1~3절). 그분이 징벌하실 때는 아무도 대적해서 싸울 수 없다(6,8절).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다(7절).

하나님은 앗수르 백성을 곧 멸할 것이라고 9~11절에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앗수르 백성이 강할지라도 곧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많은 환란을 당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앗수르 백성에게서 그들을 해방하신 까닭에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12, 13절).

하나님은 14절에서 다시 앗수르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앗수르 왕을 그가 우상을 섬기던 곳에 묻을 것이며 앗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15절은 앗수르인이 멸망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와, 유다 백성의 기쁨에 대해서 말해준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였다. 어느 나라가 니느웨를 쳐서 멸망시켰는가?”

2장

처음 열 구절은 바벨론 군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해 준다. 하나님은 그 성의 놀란 백성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르셨다(1절). 여호와께서 곧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2절). 3,4절은 바벨론 병사들을, 5절은 적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겹게 방비하는 미약한 니느웨 병사들을 보여준다. 강물이 성으로 흘러

들어와 성벽을 약화시켰다(6절). 니느웨의 여왕이 포로로 잡혀갔다(7절). 백성들은 성에서 피신했으며 멈추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8절). 바벨론 병사들은 니느웨 성에서 모든 은금을 탈취해갔으며 그 성을 황폐하고 무너진채로 버려두었다(9절).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니느웨 성은 전에는 사자의 굴처럼 강성했고 그 성 백성은 다른 백성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0~13절).

하나님은 앗수르를 징벌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바벨론 백성 역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지만 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사람이나 사물을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장

3장은 니느웨 성과 그것이 파괴된 경위와 그 까닭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말해준다. 니느웨 백성은 다른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1절).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거리에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2,3절). 창기가 돈을 벌 목적으로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이 그들이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범한 관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계셨다(4절).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른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죄에 걸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징벌하고자 하셨다(5~7절). 애굽의 노아몬(혹은 테베)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했으며 니느웨 백성 역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8~10절).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분의 징벌을 받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과음으로 만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으며 그들은 건디지 못할 것이다(11~13절). 그들은 바벨론 군대와

싸우기가 매우 힘들 것이며 바벨론이 그 성을 취할 것이다(14~17절). 니스웨에는 메뚜기떼와 같이 많은 무역상과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그 성을 버리고 도주할 것이다.

앗수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었다. 온 땅은 죽어가는 사람과 같았다. 니스웨가 멸망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데 이는 앗수르가 그 동안 그들을 몹시 괴롭게 한 때문이다(18,19절).

니스웨 성은 나훔이 이 책을 쓴지 1백년 후에, 그러니까 B.C. 612년에 멸망했다.

“니스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여기 나훔의 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박국

개요

1.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 징벌하지 않으시는지 선지자 하박국은 의아해했다(1:1~4).
2.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1:5~11).
3. 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하실 것인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다. 바벨론 백성은 유다 백성보다 더 죄악되었다(1:12~17).
4. 유다의 의로운 백성은 죽지 않을 것이며 사악한 바벨론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2:1~20).
 - (1)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다(2:1)
 - (2)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분의 행동을 기다리라고 이르셨다(2:2,3).
 - (3)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들은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살 것이나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까닭에 멸절당할 것이다(2:4).
 - (4) 바벨론의 죄(2:5~19)
 - ① 그들은 항상 다른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다(2:5~8).
 - ② 그들은 교만했으며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일들을 원했다

(2:9~11).

③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부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였다(2:12~14).

④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죄를 범케 만들었다(2:15~17).

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2:18,19).

(5)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임하기 전에 고요한 때가 있을 것이다.

5. 하박국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했다(3:1~19).

(1)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도우실 것을 구했다(3:1,2).

(2)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보여준 하나님의 자비하신 돌보심을 다시 상기시켰다(3:3~15).

(3)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을 징벌하시기를 기다렸다(3:16).

(4)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약속했다(3:17~19).

하박국은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했다. 그 때는 요시아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로 보인다.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 혹은 팔로 어떤 사람을 꼭 붙잡고 싸우는 자를 뜻한다. 그는 유다 백성의 죄와 징벌에 대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었다.

1장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잔인함과 절도, 싸움과 부정을 아뢰었다(2~4절). 그는 여호와께 얼마나 오래동안 그들의 죄를 징벌하지 않고 놔두실 것인지를 여쭙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5~11절에서 답변하셨다. 그분은 바벨론 군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적군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눈에 띠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두렵고 오만한

자들이었다. 바벨론 군대는 말과 같이 치달아서 신속히 적을 무찌르는 들짐승같이 잔인한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렸다. 그들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은 왕들과 귀인들을 조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대단히 자랑스레 여겼다.

하박국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징벌하실 수 있단 말인가? (12~17절)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을 징벌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갈고리나 그물로 고기를 낚아채는 어부마냥 저들을 포로로 삼는 것을 보시고서도 말이다(15절).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살찌고 번성했다(16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로 타국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다니!(17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듯 보인다.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의 백성을 확대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약탈하고 살해한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강포와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결국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아무 실수도 안하시며 아무 불공정한 일도 안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을 알고서 왜 하박국은 불만족했는가?”

2장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보기 위해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 답변을 기록해두어 그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바벨론이 멸망했으며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도록 하라고 이르셨다(2절). 교만한 바벨론 왕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적은 무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4절). 느부갓네살은 포도주를 즐겼으며 또 바로 그 음주 습관처럼 더욱더 많은 백성을 자기 수하에 두기를 좋아했다(5절). 그런데 그가 굴복시킨 백성이 약탈을 통해 부를 얻음으로써 그를 비웃을 것이다(6절). 그들은 바벨론을 학대할 것이며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행했듯이 그 부를 빼앗아갈 것이다(7,8절).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더 많은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조처를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직하고 잔인했으며 징벌을 받아야 했다(9~11절).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죽인 까닭에 바벨론왕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재차 말씀하셨다. 그는 노임을 지拂하지 않고 바벨론의 성들을 쌓았는데 그 성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할 것이다(12~14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 또 한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을 죄로 이끌면서 즐거워했으며 그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며 그 결과 환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15~17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대해 한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셨다. 그분은 바벨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18, 19절). 하나님은 곧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권능을 보이실 것이며 따라서 땅의 모든 백성이 그분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20절).

“4절 후반부는 신약성경에 세 차례 발견된다(롬 1:17; 갈 3:11; 히 10:38),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장

하박국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

의 대적을 징벌하신 일을 들은적이 있었으며, 이에 하나님께 다시 그분의 대적을 징벌하사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2절). 3~15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대적을 향해 나가사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큰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묘사했다. 하나님은 과거에 종종 그분의 대적을 징벌하셨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애굽을 심판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셨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들을 대적한 가나안 열족을 심판하셨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 백성을 징벌하실 때에 대해 묵상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워 떨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작정했다(16절).

하나님이 대적을 징벌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박국은 비록 그와 그의 백성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 기뻐했다(17~19절).

하박국은 우리가 주변에서 진행되는 일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가르쳐준다.

“하박국은 먹을 양식이 충분치 않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스바나

개요

1. 하나님은 확실히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1:1~18).
 - (1)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1:2,3)
 - (2) 그분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까닭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1:4~6)
 - (3) 여호와와 심판의 날은 절기를 위해 짐승들이 살해되는 때와도 같다(1:7~13). 이스라엘의 대적이 고기를 먹으려 이를 것이다(1:7). 유다의 악한 백성들은 제사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과 같다(1:8~13).
 - (4) 여호와와 심판의 날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1:14~18).
2.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슬피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신다(2:1~3).
3.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실 것이다(2:4~15).
 - (1) 그분은 블레셋 백성을 벌하실 것이다(2:4~7).
 - (2) 그분은 모압과 암몬 백성을 벌하실 것이다(2:8~11).
 - (3) 그분은 에디오피아 백성을 벌하실 것이다(2:12).
 - (4) 그분은 앗수르 백성과 특히 니느웨 성을 벌하실 것이다(2:13~15).
4.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

다(3:1~7).

- (1)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를 슬퍼하지도 않았다(3:2).
 - (2)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재물을 탐했다(3:3).
 - (3) 선지자들은 부주의하고 불충실했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일상 물건처럼 다루었다(3:4).
 - (4)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거기 계셨다(3:5~7).
5. 하나님은 그분에게 충성스런 소수 백성에게 위로의 멧세지를 전하셨다(3:8~20).
- (1) 하나님이 죄악된 이방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3:8).
 - (2) 다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3:9).
 - (3) 다른 나라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3:10~13).
 - (4)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다(3:14~17).
 - (5)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들(3:18~20).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로서 요시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멧세지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에 의해 숨겨진”이란 뜻이다(2:3).

우리는 이 책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을 일곱차례 볼 수 있다. 이 밖에 “질투”와 “함께” 등의 중요한 낱말이 나온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긴 까닭에 분노 혹은 “질투”하셨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3:5) 그리고 그들의 대적을 치신 분이로서(3:15)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

1 장

1장은 온 땅이 파괴되고 황폐될 것과 특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파

괴될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온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2,3절). 그분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까닭에 유다 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는 바알이란 우상이고 다른 하나는 암몬 백성이 섬기는 말감이란 우상이었다. 유다 백성은 심지어 하늘의 별들을 신처럼 섬기고 경배하기까지 했다(4~6절). 여호와와 심판의 날은 큰 연회와 같을 것이다. 유다는 제 사용 짐승같이 될 것이며 바벨론은 연회에 초대된 손님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백성을 해치고 속인 까닭에 유다 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다(7~9절). 그 성의 여러 곳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이 눈에 떠는 모든 자를 죽이고 그 소유를 탈취할 때 울며 부르짖을 것이다(10~13절). 14~18절은 여호와와 그의 실상을 매우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날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큰 죄에 대해 징벌하실 날이다. 그날은 특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전쟁과 환란과 죽음의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에게서 그분의 백성의 사랑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심판날은 큰 연회같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유다는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짐승과 같을 것인가?”

2 장

유다 백성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죄를 슬퍼하라고 촉구하셨다(1,2절). 3절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일부 유다 백성에 대한 묘사로 보인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분에게 돌이키면 그분의 큰 진노의 날에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부근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4~15절).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을 멸하실 것이며(8~11절) 유다 백성은 그들의

땅을 기축을 위한 목초지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에 모압과 암몬 백성의 강팍하고 오만한 말을 들으셨다(8~11절). 그들의 땅은 황폐할 것이며 남은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가 그곳에 가서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사용하여 에디오피아 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다(12절). 바벨론 왕은 여기서 “하나님의 검”으로 불리운다. 어떤 이들은 이 에디오피아에 애굽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앗수르의 성들도 무너뜨릴 것이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오직 짐승들과 새들만 거할 것이며 그 땅을 지나는 모든 백성들이 전에 그곳에 거한 자들을 조롱할 것이다(13~15절).

본장에 기록된 사건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발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 정확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을 징벌하실 것이며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3장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이 그분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죄악되었으며 사람들을 학대했다. 그 성의 귀인들은 사자같이 사나웠으며 재판장들은 부를 모으는 데만 탐닉했다(3절). 선지자들은 마땅히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해야 했음에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4절).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 중에 계셨으며 그분은 그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5절). 여호와께서 유다로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 다른 백성을 징벌하셨건만 유다 백성은 더욱 죄를 범할 뿐이었다(6,7절).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소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멸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르셨다(8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열

방에게 한가지 순수한 언어를 주실 것이며,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그들의 고토로 돌려보냄으로써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9,10절). 유다의 모든 악한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럼을 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1절). 살아남은 백성들은 겸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롭게 살 것이다(12,13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까닭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14~20절).

“본장의 어느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유다의 소수 백성에게 주실 축복들을 말해주는가?”

학개

개요

1. 학개는 제 6월 1일에 멧세지를 전했다(1:1~15).
 - (1) 학개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지적해주었다(1:1~4).
 - (2) 그로 인해 비와 먹을 양식이 거의 없었다(1:5~11).
 - (3) 백성들은 학개의 격려하는 말을 듣고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다(1:12~15).
2. 두번째 멧세지가 제 7월 21일에 주어졌다(2:1~9).
 - (1) 학개는 성전을 지으라고 백성들을 재차 격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2:1~5).
 - (2) 장차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2:6~9).
3. 세번째 멧세지가 제 9월 24일에 주어졌다(2:10~19).
 - (1) 성전이 황폐된 상황에서 백성들은 제단에 제물을 드렸으나 그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2:10~14).
 - (2)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는 먹을 양식도 충분치 못했다(2:15~17).
 - (3) 만일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2:18,19).
4. 네번째 멧세지가 제 9월 24일에 주어졌다(2:20~23).

하나님은 이방 왕들을 폐하고 메시아를 그분의 위에 앉히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백성들을 격려하셨다(2:20~23).

학개는 유다 백성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첫번째 귀환자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 5:1에서도 볼 수 있다.

학개의 이름은 “행복하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는 행복한 때였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1:13; 2:4),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1:5,7; 2:15,18), “굳세게 할지어다”(2:4) 등을 들 수 있다.

1 장

학개는 메데-바사 왕 다리오 통치 2년에 이 책을 기록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성전 재건을 착수하는데 너무 더디다고 하셨다(2절). 그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와의 전을 짓지 않고 있었다(4절).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줄 것이다. 여호와와의 전을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은 주리고 갈하고 가난했다(4,6절). 그들이 여호와와의 전을 짓지 않은 까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9~11절).

그 땅의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것은 학개가 하나님의 멧세지를 그들에게 전한지 23일만의 일이었다(12~15절).

2 장

약 1개월 후에 백성들은 전에 그곳에 있던 아름답고 큰 성전을 생각하며 비탄에 잠겼다(1~3절). 하나님은 장차 지어질 성전이 이전에 지어진 그 어떤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셨

다. 이 큰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천년동안 이 세상에서 다스리실 때까지 이어질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오실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부를 그곳에 바칠 것이다(4~9절). 그리스도야말로 백성들이 진실로 기다리는 그분이다(7절).

학개는 제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온 세번째 멧세지를 전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두가지 질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첫째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겠는가?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옳게 대답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이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 그것을 만질 경우 더럽고 불결하게 되겠는가? 제사장들은 그렇게 된다고 옳게 대답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물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나, 더럽고 거룩치 못한 사람은 다른 사물도 더럽고 거룩치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개가 이러한 질문들을 요구한 이유는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예물이나 그들 자신이나 모두 불결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데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사 소량의 양식만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즉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10~19절).

스룹바벨은 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다(20~23절). 하나님은 열방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실 표증이었다.

“불결한 것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스가랴

개관

1.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조들의 과오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선지자의 멧세지(1:1~6)
2.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여덟가지 꿈 혹은 이상(1:7~6:8)
 - (1) 붉은 말을 탄 사람의 이상(1:7~17):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유다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기뻐하며 방관하는 이방 백성에게 분노하셨다. 그분은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그분의 백성을 고토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 (2) 네 뿔과 네 공장(工匠)의 이상(1:18~21):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네 제국을 멸하실 것이다.
 - (3) 척량줄을 가진 사람의 이상(2:1~13):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하시고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실 것이다.
 - (4)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상(3:1~10): 제사장들은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다시 인도될 것이다.
 - (5)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4:1~14): 하나님은 이 스라엘을 그분을 위한 등불로 택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 (6)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5:1~4):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

(7) 에바의 이상(5:5~11): 우상들이 그 본래 있던 바벨론의 처소로 되돌려졌다.

(8) 네 병거의 이상(6:1~8): 그분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들의 대적이 굴복되었음을 보여준다.

3.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썼다(6:9~15).

이것은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 그분은 교회와 국가 모두의 머리이시며 그들을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4. 베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해운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계속 특별한 날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7:1~8:23).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5월의 어떤 날들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한 선지자들의 충고를 종종 거절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그것을 지켰다(7:1~14).

(2)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다(8:1~8).

(3) 백성들은 양식이 풍부할 것이며,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귀히 여길 것이다(8:9~13).

(4)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스가라는 백성들에게 의롭게 살 것을 독려했다(8:14~17).

(5) 백성들은 특별한 날들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왔으나 장차 올 날에는 그러한 날들에도 원하는 모든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백성이 나아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8:18~23).

5.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기쁨과 힘을 얻을 것이다.
- (1)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9:1~8).
 - (2) 메시아가 먼저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9:9).
 - (3)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9:10).
 - (4)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9:11,12).
 - (5) 이스라엘 나라는 헬라에 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9:13).
 - (6)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보호하실 것이다(9:14~17).
 - (7) 하나님이 우상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비를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이르신다(10:1,2).
 - (8)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을 도와 대적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10:3~5).
 - (9)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들의 고토로 인도하실 것이다(10:6~12).
 - (10) 하나님이 의를 행치 않은 지도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11:1~3).
 - (11)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참 목자 같으실 것이다(11:4~8).
 - (12)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다(11:8~14).
 - (13)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짓 목자—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에게 넘겨주셨다(11:15~17).
 - (14) 예루살렘은 열방에게 많은 환란을 야기시킬 것이다(12:1~3).
 - (15) 여호와께서 유다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12:4).

- (16)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임을 인정할 것이다(12:5).
 - (17) 유다 지경 언저리에 거하는 백성들이 대적을 떨하고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둘 것이다(12:6~9).
 - (18) 유다 백성은 그들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까닭에 슬퍼하며 부르짖을 것이다(12:10~14).
 - (19)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씻는 길을 보이시고 그들을 정케 하실 것이다(13:1).
 - (20) 그들은 그들의 우상과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할 것이다(13:2~6).
 - (21)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13:7).
 - (22) 백성 중 소수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13:8,9).
6. 여호와께서 백성을 징벌하실, 여호와의 날로 불리우는 특별한 날에 대한 이상(14:1~21)
- (1) 여러 나라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14:1,2).
 - (2)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러 오실 것이다(14:3~5).
 - (3) 그 날은 춥거나 어둡지 않을 것이다(14:6).
 - (4)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14:7,8).
 - (5)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14:9).
 - (6) 그 땅의 지형 자체가 변할 것이다(14:10).
 - (7)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안전할 것이다(14:11).
 - (8) 유다 백성을 미워하는 이방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14:12~15).
 - (9)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14:16~19).

- (10) 평범한 그릇들과 여타 물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사용될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와의 전에서 사고 팔지 않을 것이다(14:20,21).

이 책을 쓴 스가라는 베레가의 아들이었다. 스가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자”란 뜻이다. 그와 학개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고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였다. 그 두 사람 모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을 것을 힘써 격려했다(스 5:1). 스가라는 학개가 그의 두번째 멧세지를 전하고 세번째 멧세지를 전하기 전의 시점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멧세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스가라는 여덟가지 이상 혹은 꿈을 보았으며 그의 언어는 상징적인 것들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나 그 중 남은 일부 백성은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성은 부유하고 크게 될 것이다. 앞의 다섯가지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뒤의 세가지 이상은 그분의 심판을 말해주었다.

스가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9:9) 누군가는 30에 그분을 대적에게 팔아넘길 것(11:12,13), 그분이 사람들에게 맞은 후 목자로서 죽으실 것(13:7), 그분이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에 다시 오실 것(14:4),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과 왕으로 천년동안 다스리실 것(14:9) 등의 사실들을 그는 알려주었다.

스가라가 예언한 일들 중 일부는 그 당시에 일어났으나 그 중 많은 부분은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1~6절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은 스가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와의 멧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께로 다시 나아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셨다. 3절은 이 책이 기록된 이유를 말해준다. 하나님은, 이 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분의 멧세지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들이 범한 과오들로부터 백성들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심판하셨으며 그 때 백성들은 그들이 범한 악행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로 고통을 당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가라는 8절에서 여덟가지 이상 혹은 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6:8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이상들을 기록했다.

첫 이상에서 스가라는 붉은 말을 탄 사람으로 나타난 여호와와,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색 말을 탄 그분의 조력자들이 땅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11절의 “여호와와의 사자”는 그분이 여호와와임을 뜻한다. 그분의 조력자들은 아마 천사들로 보인다.

이 이상에서 스가라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 특히 그분이 그분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 혹은 그분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행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롬 8:28).

조력자들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다스리는 동안 이방인들이 부유하고 행복했던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70년간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까닭에 한 천사가 슬프다고 하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말로 그를 기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심히 학대한 까닭에 이방인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다시 도울 준비가 되셨으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아직은 다 성취되지 않았으나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18~21절은 두번째 이상을 보여준다. 네 뿔이 있었으며 천사의 말이 그 뿔들은 유다를 그들의 땅에서 사로잡아간 네 이방 나라라고 했다. 네 공장(工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천사가 말해주바 없으나 그들은 유다 백성을 그들의 고토에서 사로잡아간 이방인들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들이 틀림없다.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2장

세번째 이상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 척량줄을 손에 든 한 사람을 보여준다. 아마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를 재고 있는듯 보인다. 이 이상은 곧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거하게 될 것과,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협에서 보호하시는 까닭에 성벽이 필요없게 될 것을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그 성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기에 다른 백성들은 그 성에 대해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1~5절).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천년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때 실현될 것이다.

6~1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포로들에게 이르시기를 북방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바벨론은 사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하지만 그 군대가 행진하는 길은 북쪽으로 뺏다가 남쪽으로 휘어졌는데 그 까닭에 그들은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른 것이다. 이 포로들은 여호와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후가 될 것이다(8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눈동자처럼 그분에게 소중하다고 인자

히 말씀하셨다(8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성전에 오실 때 백성들은 노래할 것이며(10절) 이방 백성은 그 때에 그분을 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상 열방을 징벌하기 위해 일어나실 때 모든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13절).

3장

다음 이상에서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았다. 그는 정결케 될 필요가 있는 더럽고 죄악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러한 상태를 상징할 수도 있다. 사단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인간힘을 썼으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고 의복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4,5절).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께 진실하고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곳에 선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권한을 소유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6,7절).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신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을 상징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기를 원하셨으나 사단이 그 일을 방해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깨끗이 씻기고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으나 사단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휘방한다. 그는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후 4:4).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들을 보고 놀랐는데 그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서 그들에게 이전의 위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다. 8절은 그리스도를 “내 종 순”으로 표현하며, 9절은 그분을 글이 새겨진 돌로 표현한다. (다니

엘 2:34,35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 흑자는 순(筍)은 초림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들은 재림시의 그리스도(마 21:44)를 묘사한다고 생각한다.

본장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의 평온한 생활상을 보여준다(10절).

“누가 그 순과 그 들인가?”

4장

다섯번째 이상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순금 등대를 보여준다. 이 등대는 바닥이 있어 거기서 줄기가 뻗어올라온 듯하다. 그 줄기 꼭대기에는 기름이 채워진 주발이 있었다. 그 주발에서 일곱 등잔이 나왔으며 각 등잔 끝에는 기름을 태우는 작은 등이 있었다. 이 등대 양편에는 감람나무가 있었으며 이 감람나무가 순금 등대의 주발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순금 등대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듯하다.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과 왕을 상징한다.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한다. 또 그것은 제사장과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 이상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와 신(神)으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의미해준다. 하나님은 그들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실 것이며, 스룹바벨은 기초를 놓음으로 시작한 그대로 성전 재건을 끝마칠 것이다.

많은 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것이나 결국 그것은 완성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놀랄 것이다(7절). 어떤 이들은 그것이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훨씬 왜소한 것을 보고 그 성전을 비웃었다(스 3:12; 학 2:3). 그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을 생각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건축을 마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0절).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눈을 상징하며 그분이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신 것을 보여준다.

이 이상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1~7절의 이상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었다.

이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또한 이 이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신만이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힘을 주실 수 있다.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세 이상 중 첫째 이상이다. 이 두루마리는 길이가 30피이트요 폭이 15피이트였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적과 거짓말장이를 대적한다고 쓰여있었다. 하나님은 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의 집의 나무와 돌들을 파괴하실텐데 이는 그분의 심판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위해 오시기 전에 임할,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 때 하나님은 절도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죄와,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징벌하실 것이다.

여섯번째 이상은 곡물을 담은 큰 바구니 속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여준다(5~11절). 사람들은 곡물을 사고 팔 때 이러한 바구니로 곡물의 양을 측정했다.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 아마 그녀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사고 파는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듯하다. 계시록 18:2에서 그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운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은 그 바구니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이는 죄가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두 여인이 날아와 그 바구니를 시날 혹은 바벨론

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사고 파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가 그 발원지인 바벨론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거짓 종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시는 까닭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우상숭배를 중단했으나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섬길 때는 더욱 죄악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새 이상은 무엇, 무엇인가?”

6 장

이어서 스가라는 네 병거가 말에 끌려 두 뿔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말들은 붉은 색, 흑색, 흰색 및 어룡진 색이었다(1~3절). 천사는 그 말들이 하늘의 네 영을 가리킨다고 스가라에게 설명했다(4,5절). 아마 이것은 그것들이 바벨론과 메대-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나타내는 영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뜻이리라. 이들은 세상을 다스린 네 큰 이방 나라들이었다.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나아갔고 어룡진 말들은 남쪽으로 나아갔다.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생각나게 한다. 다니엘 11:5~45을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다. 흰 말들은 서쪽으로 나아갔으며 붉은 말들이 간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천사는 북쪽으로 간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케 했다고 스가라에게 말했다. 이것은 아마 북방의 군대가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으나 이제 멸망을 당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이상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할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다스리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상들이 끝난 후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 중 세 사람에게서 금과 은을 취하라고 스가랴에게 명하셨다. 그는 금과 은을 취해서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면류관을 만들어야 했다(9~11절). 흔히 면류관은 대제사장이 아닌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대제사장을 위한 면류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때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다. 12절은 장차 지상에서 다스리실 때 성전을 지으실 순이란 분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 때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높일 것이며 그분은 그분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13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순 사이에 평화의 사함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 그 면류관을 보존해두어야 했다. 14절에는 헬렘과 헨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헬렘은 헬대를 가리키고 헨은 요시아를 가리킨다. 헬렘 혹은 헬대, 그리고 헨 혹은 요시아에 대해서는 10절에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에 돌아올 것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을 들려줌으로써 백성들에게 그분을 순종하도록 격려하시고자 하셨다(15절).

7 장

7,8장은 특히 금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이들이 벨엘로부터 나아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상황에서 계속 매년 금식을 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70년 이상 동안 금식을 지켜왔다.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날에 금식을 시작했으나 여호와가 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셨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선지자들은 공평과 정직과 인자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백성들에게 외쳤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며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수도를 멸하고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

하신 것이다(12절). 그분은 그들이 부를 때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며(13절), 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셨으며 그 땅은 황무하고 쓸모없게 되었다(14절).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보상해보려고 금식을 행했다. 종교적인 행위는 의로운 삶을 대신할 수 없으며 참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선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3장 끝 부분과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는지를 말해준다.

“7,8장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8 장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8절). 그분은 유다의 대적들에게 매우 분노하실 것이다(2절).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고 아이들은 그 거리에서 뛰놀며 노인들은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일이 일어날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사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6~8절). 이 구절에 기록된 일들은 스가라 시대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학개와 스가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고 독려했다. 유다 백성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이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있었다(9,10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양식이 풍부하게 될 것과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들은 이

방 백성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11~13절).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앞서 경고하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스가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므로 의와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치 말라고 권고했다(14~17절).

여호와께서는 슬픈 금식일이 먹고 마시는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베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셨다(18,19절).

본장 끝 부분에서 우리는 이방 백성이 여호와를 찾아 세계 각지에서 나아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유다 백성은 그 때에 세계 만민에게 축복을 전해줄 것이다.

9장

하나님은 수리아(하드락, 다메섹, 하맛-1,2절), 두로와 시돈(2~4절), 및 블레셋(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5,6절)을 친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두로 백성은 부유하고 강성한 까닭에 교만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을 바다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블레셋 성들은 두로 성이 대적에게 함락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줄로 생각했다. 블레셋 백성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까이에 거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에그론 백성은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방 백성인 여부스 족속과 같게 될 것이다. 에그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처럼 되어 진실되고 평화로울 것이다(7절).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8절). 1~8절에 기록된 일들은 헬라 왕 알렉산더 대제가 이방 나라들을 물리침으로써 성취되었다. 또한 이 일들은 장차 또 한 차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9절은 어떻게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한 초림의 모습을 말해준다. 10절은 그분이 권능과 큰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 말해준다. 그분은 모든 병기를 떨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9,10절 사이에는 현재의 은혜의 때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 나라들을 축복하실 것이나, 현재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계신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방인이며 그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지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다.

11절의 “피”는 언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데 사용한 피를 가리킨다. 그것은 율법의 언약의 표증인 피(출 24:8)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신 30:1~10)를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사무엘하 7:4~17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샘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 포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질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헬라와 여타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13~15절). 이 일은 마카비라 불리운 형제들이 유다의 지도자였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들은 B.C. 175~163년에 그들의 대적을 격퇴시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대적을 멸할 것이다. 그들은 단 사면과 뿔 모양의 단 가장자리에 뿌릴 피를 가득 채운 “양푼”과 같을 것이다(출 24:6; 레 4:18). 또한 그들은 그 대적을 죽인 까닭에, 피가 뿌려진 단 사면과 같게 될 것이

다.

“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초림하셨는가? 재림시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10 장

스가라는 그들을 돕지 못할 우상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다(1,2절). 우상은 백성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목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다. 그들은 양떼를 이끄는 수염소와도 같았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사 그들을 전쟁의 말과 같이 용맹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3절).

많은 사람들이 4절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해한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이며 성벽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과 같으실 것이다. 그분은 장막을 불드는 말뚝과 전쟁의 활과 같을 것이며, 그분은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대적에게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이다(5절).

6~12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동안 흩어져 있던 세계 각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에브라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큰 용사와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사 애굽과 앗수르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들을 멸하실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랑할 것이다(11,12절).

11 장

11장은 유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과, 로마인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준다.

여기에 레바논으로 불리운 예루살렘 성을 불이 사를 것이며, 만일 그 불이 백향목 즉 예루살렘을 사른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들도 사를 것이다(1~3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목자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 혹은 목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4,5절). 하나님은 백성들을 로마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6절). 이 부분은 대환란으로 불리우는 큰 고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기도 한다.

여호와께서 은총 혹은 아름다움과 연락(連絡) 혹은 동맹이란 이름의 두 막대기를 취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인자히 대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기를 원하셨다(7절).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를 원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분은 그들이 재 길을 가게 내버려두셨다(8,9절). 그분은 첫째 막대기를 부러뜨리셨는데 이는 그 언약이 더이상 유효치 않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이방인들로 그분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분의 언약이었다(10절). 가난한 백성 혹은 상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다(11절). 그 목자가 그분의 샅을 청구하자 그들은 노예의 값인 은 30을 그분께 드렸다(12절). 그들은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넣었는데 이는 유다가 주님을 대적에게 넘길 때의 경우와 같다(13절).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둘째 막대기를 부러뜨리셨는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14절).

15~17절은 장차 이 땅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는 해로운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는 대신 약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17절).

“왜 사람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으며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12 장

12장은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장차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에 대해 말해준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큰 환란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은 무거운 돌을 올리려는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해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군대들을 저지하실 것이며 그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1~5절).

그 때에 유다 백성은 사르는 불과 같이 에워싼 모든 것을 사를 것이다(6절). 승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백성에게 먼저 임할텐데 이는 예루살렘 백성이 유다 백성만 못해 보이기 때문이다(7절).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 이방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8,9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보고 심히 통곡할 것이다(10,11절). 본문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인 분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한다. 이분은 여호와이셨다. 그들은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애곡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다. 11절에 나오는 하다드림본에서의 통곡은 역대하 35:20~25에 기록된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한 통곡을 의미한다. 왕의 가족이 통곡할 것이며 선지자 나단의 가족이 통곡할 것이며(12절) 제사장인 레위의 가족이 통곡할 것이며 교사들의 가족이 통곡할 것이며(시므이는 교사였다), 그리고 백성들이 통곡할 것이다(13,14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이제껏 슬퍼한적이 없으나 장차 그 일을 깨닫고 슬퍼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이 우리의 삶에 슬픔을 가져온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죄를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정결케 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13장

13장 첫 구절은 12장 끝 부분과 함께 읽혀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이란 특별한 날을 주어 지키게 하셨다. 그 날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때를 대망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인 까닭에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그 때가 그들의 대 속죄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샘을 열어 그들의 죄와 부정함을 씻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이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3~6절은 난해한 대목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해주는 듯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체 하면 그의 부모가 노를 밭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한 아무도 임의로 선지자 행세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농부이며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까닭에 상처를 입어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모호하게 대답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6절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갈보리에서 받으신 못자국난 상처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앞의 구절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그 문구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으로 보아도 될는지 의문스럽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겹에게 주 예수님을 찌르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칼”이 갈보리에서 주 예수님을 죽였으며, 양 곧 유다 백성은 그 후로 지구상에 흩어져 방황했다. 유다 백성은 주 예수님을 거절했으며 따라서 그 중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남은 3분의 1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 남은 무리는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도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칼에게 주 예수님을 찌르라고 명하셨는가?”

14 장

14장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은 이방 군대가 앗수르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때를 가리킨다. 그 군대가 그 성을 침입하여 그 취한 물건을 서로 나눌 것이다(1절). 유다 백성의 절반이 잡혀가고 절반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2절). 그 때 여호와께서 친히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산을 둘로 쪼개실 것인데 하나는 북편으로 하나는 남편으로 옮겨지고 둘 사이에 큰 계곡이 생길 것이다(3~5절).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You)와 함께 하리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선지자 스가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서 그리스도를 친근히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그 때에는 한 곳은 밝고 한 곳은 어두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곳이, 심지어 밤에도 밝을 것이다(6,7절). 오직 여호와만이 그 날의 실상을 알고 계신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동으로는 사해로, 서로는 지중해로 흐를 것이다. 이 생수는 항상 흐를 것이다(8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며 사람들은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9절). 땅은 비옥해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남은 땅보다 높아질 것이며 사람들은 평안 중에 즐거워할 것이다(10,11절).

“재앙”으로 불리운 질병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몹시 놀랄 것이다. 예루살렘 주변 나라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을 도울 것이며 그들은 대적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12~15절).

많은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그분을 섬기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에게에는 하나님

이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물이 풍부한 까닭에 비를 특별히 원하지 않을텐데 따라서 그들이 그분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16~19절).

그 때에는 여호와께 모든 것이 드러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들을 보존해두는 대신 그것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심지어 말 방울과 집에서 쓰는 그릇들까지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을 위해 쓸 목적으로 보존해둔다. 그들은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때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이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고 팔거나 스스로 부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20,21절).

말라기

개관

1.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여호와와의 지적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여호와와의 경고(1:1~3:15)
 - (1) 백성들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1:1~5).
 - (2)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는데 유의하지 않았다(1:6~14).
 - (3)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징벌하실 것이다(2:1~9).
 - (4) 백성들은 이혼을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었다(2:10~16).
 - (5)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거나 공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했다(2:17).
 - (6)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이 책의 주제와 관계가 먼 삽입부분이다(3:1~6).
 - (7)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3:7).
 - (8)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스스로 취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었다(3:8~12).
 - (9)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3:13~15).

2.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고 모든 악인은 징벌하실 것이다(3:16~4:6).
 - (1) 하나님께서 그분께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시키실 것이다(3:16~18).
 - (2)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4:1).
 - (3)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4:2,3).
 - (4)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촉구와 함께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고 약속하셨다(4:4~6).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기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다 백성의 일부가 고토에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모든 일이 옳게 행해지지 않는 않았다. 유다 백성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동족을 속이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이 시정되어야 했다.

말라기의 가문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다. 그의 이름은 “나의 사자”란 뜻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세명의 사자를 언급하는데 여호와와 제사장(2:7), 세세 요한 및 여호와 자신(3:1) 등이 그러하다.

말라기서는 구약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1 장

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부인했다. 먼저, 여호와께서 자신이 백성들을 몹시 사랑했노라고 말씀하자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2절). 그분은 자신이 야곱을 사랑했으며 그들이 야곱의 자손임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또한 에서를 거절했으며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을 징벌하셨다(2~4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이 파멸한 것을 보고 하

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케 될 것이다(5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이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에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공경하지 않았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6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분께 부정한 예물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부인했으나 그분은 그들이 여호와께는 아무것을 드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눈멀고 저는 짐승을 가져온데 반해 총독에게는 감히 그런 예물을 드리려 하지 않았다(8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높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교적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높이지 않기가 매우 쉽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공경과 높임을 받으신다.

말라기는 그 죄를 슬퍼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시지 않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다(9절).

백성들은 댓가가 없이는 성전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지키거나 제단의 불을 보존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드리는 그들의 예물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10절).

만일 그분의 백성 유다가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11절).

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지 않았으며 그분을 섬기는데 싫증을 느꼈다(12,13절).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들에게 분노하셨다(13,14절).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2장

하나님은 만일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이 친히 그들

을 분명히 징벌할 것이라고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다(1~4절). 그분은 그들에게 이전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레위와 맺으신 언약에 충실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르셨다(5~7절). 지금의 제사장들은 매우 악했으며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그들을 멸시하게 했다(8,9절).

10~16절은 백성들이 아내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백성들은 이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까닭에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나라를 약화시켰다(10,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12절). 남편들로부터 이혼을 당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물로 여호와와의 단을 적셨다(13절). 하나님이 그들의 아내를 버린 자들을 고소할 증인이셨다(14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백성을 이루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다(15절).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혼을 증오하신다(16절).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한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말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괴로워한다고 답하셨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줄로 생각했다(17절).

3장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2:17).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뭔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분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과 후에는 엘리야를 가리킨다. 그 때 그분이 친히 오실 것이다. 그들이 원한다고 한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1절). 그러나 그분은 죄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누가 그분을 당하겠는가?(2절) 그분은 제사장들의 죄를 씻으사 그들로 정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하실 것이다(3,4절). 또한 여호와께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이다(5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그분이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않았을 이유이다(6절).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권했으나 그들은 그분을 떠난적이 없노라고 대답했다(7절). 이에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스스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8,9절). 만일 그들이 마땅히 가져와야 할 모든 예물을 그분께 가져온다면 그분께서 큰 부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분은 충분한 비를 내리시고 질병과 병충과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10~12절).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에 관해 그릇되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자들을 도우시며, 그들이 부요케 되었다고 가르쳤다(15절).

그러나 하나님께 진실한 일부 백성이 있었으며,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며 그들이 그분께 속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실 것이다(16~18절).

“1절의 두 사자는 누구인가?”

4 장

교만하고 죄악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오실 때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분께 진실한 자들은 그분을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대적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람이 나귀를 타고 뛰듯이 그들을 밟을 것이다(1~3절).

이 책의 말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다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실 것이라고 이르셨다. 그가 와서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한

그들의 선조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저주하실 것이다.

말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로 불리우는 16인 중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후의, 혹은 최대의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와 다른 구약 기자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엘리야는 언제 세상에 올 것인가?”

해답

이사야

1.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다(18절).
2. 그는 잠시간만 살 것이므로(22절).
3. 두개, 그리고 5장에서 추가로 6개.
5. 재판장들은 술에 취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22,23절).
6.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1,5절).
7. 이사야의 아내는 곧 이어 아기를 가졌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백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8.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대적의 군대를 보내어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보화를 취하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4절).
9. 6절.
10. 12절.
11.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6절).
13. 거룩한 천사들(3절)과 매대인(7절).
14. 바벨론 왕은 루시퍼 혹은 계명성을 상징했다(12절).
16. 백성들이 매우 교만했으므로(6,7절).
17. 1~3절.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다.
20. 하나님은 애굽인에 대한 한 증표로 이것을 행하라고 그에게 명하셨다(3절).

22. 엘리야김(15,21절).
24. 여호와 자신(23절).
26.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속히 징벌을 받을 것이다(10,11절).
28. 주 예수 그리스도(롬 9:33).
30. 21절.
32. 의로운 왕 주 예수 그리스도(1,2절).
34. 악인이 세세토록 형벌을 받을 불못(계 14:7; 19:3).
36. 그는 예루살렘 백성이 왕에게 반역하기를 원했다(13~15절).
37. 산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도록 여호와께 구하라는 말로 이사야에게 응답하셨다(21~23절).
38.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가 지시한 것을 행했다(3,21절).
39. 그는 제국의 왕이 그에게 예물을 보낸 까닭에 교만해졌다(2절).
40. 3~5절.
42. 마태복음 12:18~21.
43. 이스라엘 민족.
44. 어떤 이들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것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9~20절).
45.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으며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
46. 우상은 걸을 수조차 없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도우신다.
48.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의미하나 그분은 또한 의롭고 자비하시다.
50.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셨다(4절).
52. 주 예수 그리스도.
53. 사람들이 그분을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받아들일 때(10절).

55. 그분의 생각은 훨씬 크고 높다(9절).
57. 15절에서 그분은 진정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0. 11절과 또한 16절.
61. 2절 전반부는 은혜 안에서의 그분의 초림을 말하며 후반부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분의 재림을 말한다.
63.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다.
66. 65:17; 66:22. 베드로후서 3:13도 참조하라.

예레미야

1. 그가 태어나긴 전에(5절).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았으므로(7,10절).
5. 그들의 마음이 악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았다(23절; 막 8:17,18).
6. 주 예수께로 나오라.
9.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죄인이었으며 그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자 했다.
11.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기 때문에.
13.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이었다.
15. 16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며 기뻐했음을 의미한다.
17.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이며 믿을만하지 않다(9절).
18.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행하실 수 있다(6절).
20.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19:14,15).

- 22.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 즉 고니야의 후손이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하고자 했다(30절).
- 24.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
- 25. 70년(7절).
- 27.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라는 증표.
- 29. 스마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지 않았으므로(27절).
- 31. 헤롯이 예루살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으므로(마 2:16).
- 32. 대적이 사라지고 유다 백성은 다시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으므로(15절).
- 34. 그들이 약속을 지켜 그 종을 놓아줄 것을 보여주기 위해.
- 36.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다.
- 38. 그를 밖으로 끌어낼 때 예레미야의 팔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40.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 할 것이다(13,15절).
- 42.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미 예굽에 가기로 결심했다(20절).
- 44. 하늘 황후(25절).
- 45.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므로(5절).
- 48. 그렇지 않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모압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47절).
- 50. 그들이 다른 많은 민족을 굴복시켰으므로.
- 52. $20+11+37=68$ 년(1,31절).

예레미야 애가

-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백성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 3.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분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알고 있었다(23절).

4. 그렇지 않다. 애굽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으며(17절) 에돔은 기뻐했다(21절).

에스겔

1. 그분은 에스겔에게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다.
2. 예레미야와 요한.
3. 하나님은 위기가 임박했음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그에게 명하셨다.
4.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표증으로(4~6절).
5.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여러 방법에 대한 그림이었다.
8.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9. 그렇다. 대부분 백성들은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졌으나 천사는 먼저 슬퍼하는 자들에게 인을 쳤다.
11. 그것이 처음에 졸로몬에 의해 지어졌을 때.
13. 마술로.
14. 오직 그들 자신(14절).
16. 그녀는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았으며 다른 나라들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했다.
18. 나는 부모에게서 죄악된 성품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내가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20.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22. 그분은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 재련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4. 그들의 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멸절당할 것이므로 그것은 백성들에게 한 표증이 되었다(21절).
26.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는 건설되지 않았다(21절).

28. 적그리스도.
30.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세력을 꺾으사 약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해준다.
33. 만일 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34. 그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36. 하나님만이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으며 당신이 믿는다면 그분은 그것을 주실 것이다.
37. 그것은 한 민족으로 다시 소생할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었다.
39. 꼭.
40. 그는 제 14년에 이 이상을 보았다(1절).
43. 주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45. 이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뒤돌아 본다.
47. 그것은 현재 사해로 알려진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8절).
48.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영원히 거기에 거하실 것이므로(35절).

다니엘

1.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2. 하나님이 그를 온 땅의 왕으로 삼으셨으나 다른 세 왕이 그를 뒤따를 것이다.
3.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경배하는 것을 금했다.
4.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므로 징벌을 내린 후에 다시 그를 축복할 것을 그에게 보이셨다.
5. 벨사살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았으며 그의 나라는 그에게서 떠날 것이다.
6. 그러므로 방백들은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했다고 말

할 수 없었다.

8. 다니엘 2장	다 니 엘 7 장	다니엘 8장	나 라
금	사자		바 벨 론
은	곰	수양	매대-바사
동	표범	수염소	헬라
철과 흙	10뿔 달린 짐승		로마

9.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10. 악한 영이 저지했으므로.

12. 다니엘 시대 백성들은 그의 책을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

호세아

1.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떠나 다른 신을 좇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3.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기꺼이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었다.
6. 백성들에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신데 대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8. 우리는 항상 심는 것 이상을 거둔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환란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큰 환란을 보내실 것이다(갈 6:7).
10. 백성들은 과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호세아 시대에는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마 21:33~41).
12. 그들은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된 까닭에 마땅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했다.
14. 여호와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보고 모든 죄와 우상에서 돌이킬 것이다.

요엘

1. 하나님은 큰 군대를 유다로 보내실 것이며 그들은 눈에 띠는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3.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곳에 모일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대적한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아모스

2. 유다와 이스라엘.
4.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11절).
6. 13절. 아모스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8. 이스라엘은 많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참이었다.
9. 11~15절.

오바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암 1:11,12).

요나

1.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고 말했다.
4. 요나의 백성의 대적인 니느웨 거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셨으므로.

미가

1. 사마리아와 예루살렘(5절). (베들레헴이 5:2에 언급되어 있다.)
3.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을 매우 학대했다.
5. 베들레헴(2절; 마 2:6).

7.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놓으심으로써 그분은 그분의 자비를 베푸신다.

나훔

1. 바벨론 나라.
3.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다(19절).

하박국

1. 그는 바벨론 백성이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2.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분께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주님을 믿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3.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실 것을 확신했으므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했다(18절).

스바냐

1.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시되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의 모든 소유를 취해가게 하실 것이다.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은 부유해질 것이다.
3. 12,13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언급하며,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언급한다.

화개

2. 그렇지 않다(13절). 온전하신 하나님의 어린양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할 수 있으시다.

스가라

1.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며, 그렇게 하면 자신도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3절).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 곧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대적을 징벌하기 위해 오실 그 분이시다.
5. 날아가는 두루마리, 척량줄, 네 병거.
7. 백성들은 금식을 지켰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9.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으나(9절) 장차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10절).
11. 그는 제사장들에게 주 예수님을 체포하는 법을 말해주었으나 그 돈은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마 26:15; 27:5~7).
13.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으셨다.

말라기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야곱이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자 힘쓴 까닭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3. 세례 요한과 주 예수 그리스도.
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큰 날 전에.

알기 쉬운 선지서 개요

발행일 : 1995년 2월 25일 1판 1쇄 발행
2001년 3월 30일 1판 2쇄 발행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 정 병 은

발행인 :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정 가 : 5,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11-8 03230